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행정학 석사학위논문

경찰의 경비 및 수사사건에 대한 언론의 보도태도 차이 분석

: 보수 및 진보 신문을 중심으로

2013년 2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 전공

김 동 주

행정학 석사학위논문

경찰의 경비 및 수사사건에 대한 언론의 보도태도 차이 분석

: 보수 및 진보 신문을 중심으로

2013년 2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 전공

김 동 주

경찰의 경비 및 수사사건에 대한 언론의 보도태도 차이 분석

: 보수 및 진보 신문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정 용 덕

이 논문을 행정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10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 전공

김 동 주

김동주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2년 12월

위 원 장 구 민 교 (인)

부 위 원 장 박 상 인 (인)

위 원 정 용 덕 (인)

학위논문 원문제공 서비스에 대한 동의서

본인의 학위논문에 대하여 서울대학교가 아래와 같이 학위논문 저작물을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동의사항

- ①본인의 논문을 보존이나 인터넷 등을 통한 온라인 서비스 목적으로 복제할 경우 저작물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복제를 허용합니다.
- ②본인의 논문을 디지털화하여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논문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복제·배포 및 전송 시 무료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개인(저작자)의 의무

본 논문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하는 등 동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소속대학(원)에 공개의 유보 또는 해지를 즉시 통보하겠습니다.

3. 서울대학교의 의무

- ①서울대학교는 본 논문을 외부에 제공할 경우 저작권 보호장치(DRM)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②서울대학교는 본 논문에 대한 공개의 유보나 해지 신청 시 즉시 처리해야 합니다.

논문제목 : 경찰의 경비 및 수사사건에 대한 언론의 보도태도 차이 분석
: 보수 및 진보 신문을 중심으로

학위구분 : 석사 ■ · 박사 □

학 과 : 행정학과

학 번 : 2011 - 22120

연 락 처 :

저 작 자 : 김 동 주 (인)

제 출 일 : 2013 년 2 월 5 일

서울대학교총장 귀하

국 문 초 록

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라는 사명을 토대로 국민들에게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경찰활동은 경찰의 시민에 대한 일방적인 작용이 아니라 경찰과 시민 간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그 사이에서 정치, 언론, 문화 등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언론과 관련하여 이들은 사회 현상을 그대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재구성하여 독자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최근 언론의 사회적 영향력이 강화되어 가고 있으며, 공공기관에 대한 인식 및 신뢰도 형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찰의 주요사건에 대하여 언론의 보도태도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기본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첫째는 언론의 경우 사실의 객관적 전달에만 역할이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프레임을 형성하는 주체로서 보도성향, 보도태도 등에 따라 언론보도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경찰에 대한 언론의 보도 실태는 어떠한지를 분석한다. 둘째로 언론매체별, 언론성향별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다른 해석과 표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바 경찰과 관련된 주요 사건에 대해서 각 매체가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그 정도는 어떠한지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상기와 같이 언론매체 간에 경찰에 대한 보도태도가 차이를 보일 경우 경찰업무유형에 따라서 그 차이가 다르게 나타날 것인가를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언론보도에 대한 분석의 시간적 범위를 200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1일까지로 하며, 각 해에 주요 ‘경찰경비’ 및 ‘경찰수사’ 사건을 한 건씩 선정하여 총 13개의 사건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언론의 보도태도를 분석함에 있어서 내용분석을 방법론으로 사용하였다. 표본 추출에 앞서 우선 조선, 한겨레 양 신문(매체)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고, 한겨레신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기사 DB인 KINDS(이하 KINDS : www.kinds.or.kr)를 활용하고, 조선일보는 조선일보 DB를 활용하여 보도면종은 오피니언·인물, 정치·해설, 종합, 지역, 경제, 매체, 문화, 사회, 생활·여성, 특집을, 보도장르는 전 장르를 대상으로 기사를 분석하였다. 이 두 신문을 선정한 것은 보수와 진보성향에 따른 언론 보도태도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비교해보기 위함이었다.

분석결과 개별적인 사건 내에서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은 보도태도에서 차이를 나타내었다. 기본적으로 모든 사건에서 예외 없이 한겨레신문이 조선일보에 비해서 경찰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보도하였다. 구체적으로 양상을 살펴보면 경비 사건의 경우 경찰 진압 자체의 폭력성 및 그 원인, 집회 및 시위자의 정당성, 집회·시위 등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대외적 이미지 및 신뢰도 변화 가능성 등에서 차이를 보였다. 이는 거시적으로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라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라는 가치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은 각각 다른 부분에 중심점을 둔 것으로 해석된다. 수사 사건에 있어서는 범죄 피해자 및 유족의 보호, 경찰 수뇌부 및 일선 수사관의 은폐 가능성 및 정도, 경찰의 수사 역량, 경찰수사의 윤리성 등에서 양 매체가 차이를 드러내었다.

이러한 개별적사건분석 이후 상기에서 제시한 연구문제에 대한 거시적 분석이 이루어졌다. 우선, 경찰에 대한 언론의 보도 실태라는 첫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조선일보 및 한겨레신문 모두 각 사건별로 경찰에 대하여 ‘매우긍정’ 적으로 보도한 기사를 찾아볼 수 없었다. 또한, ‘긍정군’ (‘매우긍정’ 및 ‘긍정’)과 ‘부정군’ (‘매우부정’ 및 ‘부정’)을

비교해보았을 때 한겨레신문의 경우 ‘긍정균’이 3.4%, ‘부정균’ 39.9%로 나타났고, 조선일보의 경우 ‘긍정균’이 12.0%, ‘부정균’ 20.3%로 나타나 한겨레신문 및 조선일보 모두 후자의 비중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현재 언론의 경찰에 대한 보도태도가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번째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우선 경찰주요사건에 대한 매체별 보도태도를 살펴보면 단 한 건의 예외 없이 한겨레신문이 조선일보보다 모든 사건에 있어서 경찰주요사건에 대한 보도에 있어서 더 부정적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도 한겨레신문이 3.49, 조선일보가 3.11의 보도태도를 나타내어 0.37만큼의 보도태도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여의도 농민집회 전용철 사망사건에서 양 매체 간 차이가 0.78로서 보도태도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텔런트고 장자연 성상납 의혹 사건 (소위 ‘장자연리스트’ 사건) 및 부유층 노인 및 출장마사지 종사 여성 연쇄살인사건 (소위 ‘유영철’ 사건)에서 양 매체 간 차이가 0.11로서 보도태도에서 가장 작은 차이를 나타내었다.

마지막 연구문제와 관련해 '경찰경비'사건 5개와 '경찰수사'사건 8개를 각각 보도매체간 보도태도 차이 순대로 정리하여 분석하였고, 그 결과 '경찰경비'사건에서의 보도태도 차이가 '경찰수사'사건에서의 보도태도 차이보다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 경찰, 경비, 수사, 보도태도, 언론보도, 내용분석

학 번 : 2011-22120

< 목 차 >

| | |
|-----------------------------------|----|
| 제 1 장 서 론 | 1 |
|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1 |
| 제 2 절 연구대상 및 범위 | 2 |
| 제 3 절 연구의 방법 | 6 |
|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 8 |
| 제 1 절 경찰(警察)의 의미 | 8 |
| 1. 경찰의 목적 및 기능 | 8 |
| 2. 경찰의 임무 및 그 유형 (치안행정서비스) | 10 |
| 제 2 절 언론의 보도 및 보도태도와 관련한 이론 ... | 14 |
| 1. 언론의 프레이밍(framing) | 14 |
| 2. 언론의 선정주의(Sensationalism) | 16 |
| 제 3 절 경찰과 언론의 관계 | 18 |

| | |
|------------------------------------|----|
| 제 4 절 언론의 이념적 지향에 따른 보도태도 차이 | 21 |
|------------------------------------|----|

제 3 장 연구모형 및 조사 설계24

| | |
|-------------------------|----|
| 제 1 절 가설 및 변수의 선정 | 24 |
|-------------------------|----|

| | |
|----------------------|----|
| 1. 가설 및 변수의 선정 | 24 |
|----------------------|----|

| | |
|----------------------------|----|
| 제 2 절 내용분석의 의의와 표본추출 | 32 |
|----------------------------|----|

| | |
|-----------------------|----|
| 1. 내용분석의 의의와 절차 | 32 |
|-----------------------|----|

| | |
|--------------------------|----|
| 2. 분석대상의 규정 및 표본추출 | 36 |
|--------------------------|----|

| | |
|-----------------------------|----|
| 제 3 절 분석기준 및 분석단위의 설정 | 39 |
|-----------------------------|----|

| | |
|-------------------|----|
| 1. 분석기준의 설정 | 39 |
|-------------------|----|

| | |
|-------------------|----|
| 2. 분석단위의 설정 | 40 |
|-------------------|----|

| | |
|------------------|----|
| 제 4 절 자료수집 | 42 |
|------------------|----|

| | |
|------------------|----|
| 1. 자료수집 방법 | 42 |
|------------------|----|

| | |
|-------------------------|----|
| 2. 자료의 선정 및 배제 기준 | 42 |
|-------------------------|----|

| | |
|--------------------|----|
| 제 5 절 신뢰성 검증 | 45 |
|--------------------|----|

| | |
|---------------------|----|
| 1. 신뢰성 검증의 의의 | 45 |
|---------------------|----|

| | |
|-----------------|----|
| 2. 신뢰성 분석 | 46 |
|-----------------|----|

제 4 장 내용분석의 결과48

제 1 절 보도매체간 보도태도 차이에 관한 개별적 분석 48

1. 롯데호텔 노동조합 파업·농성 및 진압 사건48
2. 부평 대우자동차 노동조합원 폭력진압 사건52
3. 2002 한·일 월드컵 경호경비56
4. 전북 부안군 위도 핵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사건60
5. 부유층 노인 및 출장마사지 종사 여성 연쇄살인사건64
6. 여의도 농민집회 ‘전용철’ 사망사건68
7. 서울 서남부 연쇄살인사건71
8. 김승연 한화그룹회장 보복폭행사건73
9. 경기 안양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76
10. 텔런트 고 장자연 성상납 의혹 사건79
11. 양천경찰서 피의자 가혹행위 사건83
12. 인화학교 장애인성폭행사건86
13. 수원 납치토막살인사건89

제 2 절 가설의 검증 및 분석결과의 해석91

1. 가설 I의 검증91
2. 가설 II의 검증95
3. 가설 III의 검증101

제 5 장 결 론103

| | |
|----------------------------|-----|
|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 103 |
| 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 108 |
| 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제언 | 110 |
| 참고문헌 | 112 |
| Abstract | 116 |

〈표 목차〉

| | |
|--|----|
| [표 1] 2000년 이후 주요 ‘경찰경비’ 및 ‘경찰수사’ 사건 | 3 |
| [표 2] KINDS 제공의 보도장르 | 4 |
| [표 3] 경찰의 기능과 역할의 변화 | 9 |
| [표 4] 경찰 임무의 유형 | 12 |
| [표 5] Howard의 구분을 기준으로 한 경찰의 임무 구분 | 12 |
| [표 6] 언론의 선정성 및 선정주의의 의미 | 16 |
| [표 7] 기사의 보도태도 판단기준 | 24 |
| [표 8] 경찰업무유형 분류기준 | 29 |
| [표 9] 연도별 주요사건의 선정요건 | 30 |
| [표 10] 연도별 주요사건 선정 예시 (2011년) | 31 |
| [표 11] 조사기간 내 경찰업무유형별 주요사건 빈도 | 31 |
| [표 12] 내용분석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 | 33 |
| [표 13] 내용분석의 과정과 절차 | 35 |
| [표 14] 언론매체 영향력 및 신뢰도 (n=10,000, %) | 37 |
| [표 15]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의 보도성향 | 38 |
| [표 16] 경찰주요사건별 · 매체별 분석기사 수 | 44 |
| [표 17] 경찰주요사건별 · 매체별 전체 보도기사의 보도태도 분포 | 92 |
| [표 18] 경찰주요사건별 종합적 보도태도 및 중립기사 배제 보도태도 | 94 |
| [표 19] 경찰주요사건별 · 보도매체별 보도태도 및 그 차이 | 95 |
| [표 20] 경찰주요사건별 · 보도매체별 보도태도 및 그 차이 (중립기사배제) | 98 |

<그림 목차>

| | |
|---|-----|
| [그림 1] 보도색인 설정 (한겨레) | 5 |
| [그림 2] 보도색인 설정 (조선) | 6 |
| [그림 3] 신뢰도 계수(Coefficient of reliability) | 46 |
| [그림 4] 매체별 경찰주요사건에 대한 언론의 보도태도 추이 | 97 |
| [그림 5] 매체별 경찰주요사건에 대한 언론의 보도태도 추이 (중립기사배제) | 98 |
| [그림 6] 경찰업무유형별 보도매체간 보도태도 차이 | 102 |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최근 언론의 사회적 영향력이 강화되어 가고 있으며, 공공기관에 대한 인식 및 신뢰도 형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언론의 효과에 대해 McLuhan(1964)은 매스미디어가 사람들의 태도나 의견을 쉽게 변화시킬 정도로 그 힘이 막강하다고 보았다. 반면에 Pool(1973)은 미디어효과는 개인의 기존 태도·가치성향·신념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아 언론의 효과가 과대평가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논쟁 속에서 최근 언론보도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언론(미디어)의 보도실태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효과를 예측해 보는 것은 그 자체로 큰 의미를 지닌다.

언론은 현실을 그대로 투영하기보다는 선택과 배제를 통해 적극적으로 사회적 현실을 구성해낸다(Gitlin, 1980). 특히 Noelle-Neumann(1974)의 침묵의 나선이론에 따르면 미디어는 어떤 의견이 우월하고 어떤 의견이 힘을 얻으며, 어떤 의견이 사람들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인에게는 반대하는 사람은 소외될 수 있다며 압력을 행사할 수 있고, 정치인에게는 대중적 지지를 상실할 수 있다는 위협을 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들은 자신의 실제 인식과 태도를 감추고 여론에 편승하는 경향이 보이게 된다. 또한 이것이 내재화될 경우 이를 진정한 자신의 선호로 착각하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

다.

이렇게 언론의 보도태도가 대중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 사회 내 주요 문제에 대해서 언론의 보도태도가 어떻게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지, 그 양상은 어떠한 지를 밝히는 것은 진실한 여론의 파악과 향후 언론에 대한 경찰의 대응에 중요한 자료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배경으로부터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한다.

첫째, 언론의 경우 사실의 객관적 전달에만 역할이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프레임을 형성하는 주체로서 보도성향, 보도태도 등에 따라 언론보도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경찰에 대한 언론의 보도 실태는 어떠한가?

둘째, 언론매체별, 언론성향별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다른 해석과 표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바 경찰과 관련된 주요 사건에 대해서 각 매체가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그 정도는 어떠한가?

셋째, 상기와 같이 언론매체 간에 경찰에 대한 보도태도가 차이를 보일 경우 경찰업무유형에 따라서 그 차이가 다르게 나타날 것인가?

제 2 절 연구대상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언론보도에 대한 분석의 시간적 범위를 200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1일까지로 하며, 각 해에 주요 ‘경찰경비’ 및 ‘경찰수사’ 사건을 한 건씩 선정하여 총 13개의 사건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

였다. 그 이유는 적절한 시간적 범위의 제한을 통한 현실적 연구수행 여건의 고려와 동시에, 이 시기는 경찰조직을 둘러싼 외부의 환경변화와 함께 내부적으로 다양한 치안정책의 수립과 경찰 이미지 개선을 위한 다각적 노력이 활발히 전개된 때이다. 따라서 해당 시기의 경우 언론의 보도태도 변화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아래에서 밝히겠지만 매체 간의 보도성향(진보, 보수 등)이 지속적으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바 경찰 주요 사건에 대한 보도매체 간 보도태도 차이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확인해볼 수 있을 것이다.

<표 1> 2000년 이후 주요 ‘경찰경비’ 및 ‘경찰수사’ 사건

| 연도 | 경과 | 2000년 이후 주요 ‘경찰경비’ 및 ‘경찰수사’ 사건 |
|------|----|--|
| 2000 | 경비 | 롯데호텔 노동조합 파업·농성 및 진압 사건 |
| 2001 | 경비 | 부평 대우자동차 노동조합원 폭력진압 사건 (소위 ‘대우차 사태’) |
| 2002 | 경비 | 2002 한·일 월드컵 경호경비 |
| 2003 | 경비 | 전북 부안군 위도 핵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사건 (소위 ‘부안 방폐장’ 사건) |
| 2004 | 수사 | 부유층 노인 및 출장마사지 종사 여성 연쇄살인사건 (소위 ‘유영철’ 사건) |
| 2005 | 경비 | 여의도 농민집회 전용철 사망사건 |
| 2006 | 수사 | 서울 서남부 연쇄살인사건 (소위 ‘정남규’ 사건) |
| 2007 | 수사 | 한화그룹 김승현회장 보복폭행사건 |
| 2008 | 수사 | 경기 안양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 |

| | | |
|------|----|---|
| | | (소위 ‘혜진·예슬’ 사건) |
| 2009 | 수사 | 탤런트 고 장자연 성상납 의혹 사건 (소위 ‘장자연리스트’ 사건) |
| 2010 | 수사 | 양천경찰서 피의자 가혹행위사건 |
| 2011 | 수사 | 인화학교 장애인성폭행사건 (소위 ‘도가니’ 사건) |
| 2012 | 수사 | 수원 납치토막살인사건 (소위 ‘오원춘’ 사건) |

다만, 이 시기는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의 집권기간으로써 정부변화에 따라 경찰에 대한 언론의 보도태도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필 수 있을 것으로 일견 생각할 수 있으나 연구의 방식이 경찰 전반에 대한 언론의 보도태도를 분석한 것이 아니라 각 연도별 경찰 주요사건에 대한 언론의 보도태도를 분석한 것이 때문에 사건 간 특성 차이가 매우 심한 것을 고려해보았을 때 정부별 보도태도 차이를 판단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것임을 미리 밝힌다.

구체적인 분석의 대상이 되는 경찰에 대한 언론의 보도는 위 기간의 종합 일간지의 신문의 보도기사 내용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분석대상의 범위에 있어서도 앞선 기간의 범위와 마찬가지로, 연구수행의 현실적 여건 등 실질적 한계를 감안하여 많은 언론매체 중에서 소수의 일부매체를 대상으로 경찰에 대한 언론의 보도태도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정하였다.

보도범위에 있어서 한겨레의 경우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기사검색 데이터베이스인 KINDS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기준으로 모든 보도장르를 자료수집의 대상으로 했다. 조선일보 역시 모든 보도 장르를 자료수집의 대상으로 했다.

<표 2> KINDS 제공의 보도장르

| | | | | | | | | |
|----|----|-----------|-----|----------|-----------|-----|-----|-----------|
| 번호 | 1 | 2 | 3 | 4 | 5 | 6 | 7 | 8 |
| 장르 | 가십 | 기획, 연재 | 뉴스 | 명단 | 사고 | 사망 | 스케치 | 좌담, 대담 |
| 번호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 장르 | 사설 | 인물평 | 인터뷰 | 용어 해설 | 칼럼, 논단 | 텍스트 | 통계 | 해설 |

보도면중에 있어서는 오피니언·인물, 정치·해설, 종합, 지역, 경제, 매체, 문화, 사회, 생활·여성, 특집을 자료수집의 대상으로 설정하였고, 북한, 방송·연예, 스포츠, 정보통신·과학, 국제·외신의 경우 경찰에 대한 언론의 보도태도를 판단하기에 부적합한 면종이라고 판단되어 이를 배제하였다. 단, 조선일보의 경우 KINDS와 같은 보도면종 설정이 불가능한바 실제 검색 시에 상기의 배제면종을 고려하여 추출하였다.

<그림 1> 보도색인 설정 (한겨레)

| | | | | | | |
|----------------|---|---|--|---|---|---|
| 매체선택 | <input type="checkbox"/> 경향신문 <input type="checkbox"/> 세계일보 | <input type="checkbox"/> 국민일보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겨레 | <input type="checkbox"/> 내일신문 <input type="checkbox"/> 한국일보 | <input type="checkbox"/> 동아일보 <input type="checkbox"/> 아시아투데이 | <input type="checkbox"/> 문화일보 | <input type="checkbox"/> 서울신문 |
| 면 종 | <input type="checkbox"/> 북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지역 <input checked="" type="checkbox"/> 생활여성 | <input type="checkbox"/> 방송·연예 <input type="checkbox"/> 정보통신·과학 <input checked="" type="checkbox"/> 특집 | <input type="checkbox"/> 스포츠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경제 <input type="checkbox"/> 국제·외신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오피니언·인물 <input checked="" type="checkbox"/> 매체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정치·해설 <input checked="" type="checkbox"/> 문화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종합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회 |
| 장 르 |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가십 <input checked="" type="checkbox"/> 스케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칼럼·논단 |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획·연재 <input checked="" type="checkbox"/> 좌담·대담 <input checked="" type="checkbox"/> 텍스트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뉴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통계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명단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인물평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설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고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인터뷰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망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일지/용어해설 |
| 세 부 조 건 | <input type="checkbox"/> 1면만 검색 | | | | | |
| 검색결과 보기 | 리스트 형태: <input checked="" type="radio"/> 제목+본문일부 보기 <input type="radio"/> 제목만 보기 정렬 순서: 최근기사순 ▼ 페이지당 검색개수: 25 ▼ 쪽보기 | | | | | |

<그림 2> 보도색인 설정 (조선)

천안에서도 '도가니' 장애인 학교 여학생들 “교사가 수차례 성폭행” 검·경,
본격 수사 나서 기고자: 윤주현

천안의 한 공립 특수학교에서 장애인 학생을 교사가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른바 '도가니사건'(광주 **인화학교**에서 벌어진...

[발행일] 조선일보 2011.11.21 사회 A12 면



[PDF보기]

**인화학교, 장학금 3000만원을 성폭행 합의금에 특별수사팀 중간 보고 - 교
장, 퇴직금 등 1억 부담수령** 기고자: 조홍복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방검찰청은 25일 **인화학교** 특별수사팀 중간 수사 보고를 통해 미질이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애인 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62) 전 **인화학교**...

[발행일] 조선일보 2011.10.26 사회 A10 면



[PDF보기]

| | | | | |
|-----------------------------------|--|---|----|---------------------------------------|
| 발행일 | <input type="radio"/> 1년 이내 | <input checked="" type="radio"/> 20110101 | 부터 | <input type="text" value="20111231"/> |
| 예) 20090101, 200501, 2005 | | | | |
| 자료정렬 | <input type="text" value="최근기사순"/> | | | |
| 목록보기 | <input checked="" type="radio"/> 제목+본문 <input type="radio"/> 제목만 | | | |
| 출력건수 | <input type="text" value="50건"/> | | | |
| <input type="button" value="검색"/> | | <input type="button" value="지우기"/> | | |

본 연구의 분석단위는 신문에 보도된 개별 기사의 전체 지면이다. 경찰에 대한 보도란 경찰조직 자체에 대한 보도, 범죄보도, 집회시위 등의 진압에 관한 보도 등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헤드라인 위주로 분석대상을 추출하되, 키워드가 주된 내용이 아닌 경우, 글자 수 500자 미만의 단신기사와 사진기사, 관련된 내용이 전체 지면의 20%이하일 경우 등을 분석대상에서 제외시켰다.

KINDS에서 검색이 불가능한 조선일보의 경우에는 조선일보 홈페이지(조선일보DB) 내 PDF검색을 사용했다. 분석시기별로 즉, 연도별로 각 사건을 선정하여 기사를 추출한 결과 사건별로 10건에서 47건까지 분석하였으며, 최종적으로 한겨레신문 238건, 조선일보 192건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 사용된 분석기사는 총 430건이다.

제 3 절 연구의 방법

이 연구에서는 언론의 보도태도를 분석함에 있어서 내용분석을 방법론으로 사용한다. 표본 추출에 앞서 우선 조선, 한겨레 양 신문(매체)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한겨레신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기사 DB인

KINDS(이하 KINDS : www.kinds.or.kr)를 활용하고, 조선일보의 조선일보 DB를 활용하여 보도면종은 오피니언·인물, 정치·해설, 종합, 지역, 경제, 매체, 문화, 사회, 생활·여성, 특집을, 보도장르는 전 장르를 대상으로 기사를 분석하였다. 이 두 신문을 선정한 것은 보수와 진보성향에 따른 언론 보도태도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비교해보기 위함이다.

내용분석 과정에서는 코딩작업이 중요하므로 연구 설계를 할 때 외적타당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미리 예비조사(pretest)를 거치고, 이를 통해 보도태도의 코딩기준을 설정하였다. 우선, 해당 보도(기사)에서 나타나는 문장, 어구, 단어 등 현시적 내용을 기본 축으로 분석하고, 명시적인 단어나 어구나 드러나지 않더라도 전체적 내용을 근거로 보도태도를 판단해 잠재적 내용까지 코드화하였다. 다만, 후자의 경우 연구의 객관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큰바 해당 부분의 영향을 제한하고자 기사에서 질적 지표(전체적 내용)에 근거하여 보도태도를 판단할 경우 매우긍정(1) 및 매우부정(5)의 양 극단으로는 코딩하지 않았다.

상기와 같은 원칙에 근거하여 보도 태도 간 배타성이 확보되도록 세분화된 코딩 매뉴얼을 작성하였고, 예비조사를 통하여 대표 어휘군을 수집하는 등 연구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기사를 분석하여 보도태도를 ‘매우긍정=1’, ‘긍정=2’, ‘중립=3’, ‘부정=4’, ‘매우부정=5’의 다섯 가지로 범주화하였다. 보도태도 차이의 극적인 효과를 위하여 척도를 더 넓게 책정할 수도 있으나 보도내용에 대한 주관적 판단이 연구의 객관성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어 1에서 5까지로 한정하였으며, 객관성 제고를 위해 상기에서 밝힌 대로 각 범주에 대해 상세한 판단지침을 미리 선정하고 코딩하였으며, 복수의 코딩자 간에 코더 간 신뢰도를 확인하고, 일정 수준을 확보하여 객관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경찰(警察)의 의미

1. 경찰의 목적 및 기능

전통적으로 경찰의 존재의 목적은 시민의 안전과 재산의 보호, 평화의 유지, 범죄예방, 그리고 범죄수사에 있다(Thibault et al., 2011). 구체적으로 범죄자의 공격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불법행위자들에 의한 상해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함으로써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외에도 경찰은 주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법규를 집행한다고 하였다. 또한 Thibault et al.(2011)은 경찰의 첫째 목적은 범죄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며, 교통의 안전운행 그리고 긴급한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며 둘째 목적은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며, 법규를 집행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경찰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해보면, 경찰의 목적은 전통적인 범죄진압, 질서유지, 서비스의 제공을 넘어 지역사회의 범죄나 사고를 일으키는 근원적 문제해결이며 이를 위한 경찰의 역할과 기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표 3> 경찰의 기능과 역할의 변화



* 남궁구 (1997),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전략으로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6 No.1, pp. 363을 참고로 하여 재구성함

전통적 경찰개념에서 경찰이란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 통치권에 의하여 국민에게 명령하거나 강제하는 권력적 작용을 의미한다. 따라서 경찰의 역할도 범죄에 대한 사후적 진압활동이 중심이 되었다. 그러나 현대적 경찰개념은 경찰이 사회공동체의 구성원 및 국민 생활에서 문제의 해결자,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다. 즉, 경찰은 사회공공의 질서를 위해와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다양한 사회적 구원을 응원하는 것으로 보고, 범죄예방을 위한 사전적 경찰활동이 중요시된다. 다시 말하면, 경찰의 역할과 기능을 명령하고 강제하는 권력작용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유지를 하면서 주민에게 봉사하는 서비스맨이라는 측면이 강조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경찰의 궁극적인 목표는 안전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제1차 목표는 사회질서의 유지와 생명 및 재산의 보호이다. 제1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위 목표는 1) 범죄방지 2) 범죄자의 체포와 기소, 3) 도난 및 유실물 회복 4) 병약자 조력 5) 위법행위단속 6) 지역사회에서 이용 불가능한 서비스의 공급 등이라고 할 것이다(이상안, 1995).

2. 경찰의 임무 및 그 유형 (치안행정서비스)

우리나라 경찰에 있어서 현행법상 경찰의 임무를 살펴보면, 경찰법 제3조에는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경찰의 임무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에는 경찰관직무의 범위를 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②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③ 경비, 요인경비 및 대간첩작전 수행, ④ 치안정보의 모집, 작성 및 배포, ⑤ 교통의 단속과 위협의 방지, ⑥ 기타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의 여섯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모두 경찰의 임무를 법의 집행에 국한된 것으로 보여 진다. 그렇다면 왜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는 서비스임무에 해당하는 봉사적 직무는 명시되고 있지 않는 것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흔히 봉사적 직무와 규제적 직무의 구분은 경찰이 국가적 권위의 대표자라고 보는 대륙법계 경찰제도와 경찰은 국민의 수임자라고 보는 영미법계 경찰의 차이인 것으로 설명된다. 다시 말하면, 대륙법계 국가들에게 있어서 경찰작용은 법집행이어야 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영미법계 국가에 있어서 경찰작용이란 행정서비스라는 관점을 보이는 경향이 크다. 대륙법계의 법통을 가진 우리나라의 경우, 경찰작용은 당연히 법집행이라는 행정행위로 보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경찰작용이 법집행과 경찰행정서비스의 제공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한편 경찰대학에서 출판된 경찰학개론서에서는 이들 임무들을 ① 위협의 방지 ② 범죄의 수사 ③ 서비스라는 3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특히, 위협의 방지와 범죄의 수사 이외에 서비스라는 제3의 임무를 포

함시키고 있는데, 21세기적 복지행정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 오늘날 경찰에게는 좁은 의미의 소극적인 위험방지를 위한 명령, 강제나 범인의 체포, 수사와 같은 법집행적인 임무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서비스 활동을 통해 국민에게 봉사하는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고 함으로써 경찰 업무에 있어서 서비스 영역과 법집행 영역을 구분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임무들을 경찰의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구분한다면, 법 집행에 해당하는 활동들은 명령과 강제에 의해 임무를 수행하는 규제적 직무라고 할 수 있는 반면, 서비스에 해당하는 활동들은 계몽지도와 봉사에 의한 봉사적 직무라고 할 것이다.

<표 5> 경찰 임무의 유형

| 임무영역 | | 내용 |
|-----------|-----------|--|
| 규제적 임무 | 위험의 방지 | 1. 공공의 안녕 : 법질서의 불가침성, 국가의 존립과 기능성, 개인의 권리와 법익의 불가침성 2. 공공질서 3. 위험 |
| | 범죄의 수사 | 사법경찰작용으로서 수사경찰의 주된 임무 |
| 봉사적 임무 | 서비스 | 급부행정적 서비스활동 |

오늘날 경찰의 주요 업무를 분류할 때, 범국가적 사안에 대한 대응과 범죄의 수사를 규제적 임무로 분류한다면, 나머지 업무는 방법, 순찰, 교통 등이 포함되는 것이 보통이다. 우리나라 경찰의 업무도 크게 규제적 업무와 봉사적 업무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Howard(1987)는 봉사적 임무를 직접적 봉사 업무와 간접적 업무의 항목으로 분류하여 사용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도 Howard(1987)의 분류에 따라 봉사적 업무를 다시 직접적 봉사업무와

간접적 봉사업무로 분류하고, 두 가지 봉사적 업무에서 누락된 업무는 기타 봉사업무로 분류하여 각 항목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활동의 설명과 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표 5> Howard의 구분을 기준으로 한 경찰의 임무 구분

| 임무의 유형 | | 내용 |
|--------|--------|--|
| 규제적 임무 | | ① 대규모의 재해 및 소요사태 대응 및 대간첩작전 ② 개인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자유와 권리에 대한 침해인 범죄에 대한 수사 |
| 봉사적 임무 | 직접적 봉사 | ① 대시민 안내 및 교시 ex) 파출소에서 지리를 물어오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안내하는 것 ② 대시민 조력 및 지원 ex) 시간에 쫓기는 사람을 위해 민원서류를 대신 접수해 주기도 하고, 고소 및 진정서를 대서 해주는 것 ③ 긴급구호 및 보호 ex) 경찰은 외근활동 때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과 관찰을 병행하며, 사고 발생시 신속한 출동과 초기의 현장구조 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각급 경찰기관에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것. ④ 미아 및 가출인 찾아주기 ⑤ 유실물 찾아주기 ⑥ 대민상담 ex) 인·허가, 고소·고발 등 각종 경찰 민원 및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는 것 ⑦ 지역사회 활동 ex) 주민들의 위급상황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야간운영지정병원, 약국, 자동차정비업소, 열쇠협회 등과 비상연락망을 구축, 심야나 휴일에도 신속해 연결,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⑧ 청소년 선도 및 보호 ex) 청소년들이 범죄나 비행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의 일환으로 대도시의 주요 역·터미널·유원지 등에 경찰관·청소년선도위원·자원봉사요원 등 상담요원을 배치하여 선도 및 귀가 |

| | | |
|-------|-----------|--|
| | | 조치하고 있으며 유흥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전개하는 것 |
| | 간접적 봉사 | ① 방법상담 활동 ex) 외근 경찰관이 가정이나 기업체 등을 방문하여 범죄예방 등에 관한 상담 및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는 것 ② 방법진단 ex) 각 파출소에서, 순찰과정 중 방법이 취약한 가정이나 업소의 문단속 등을 점검하여 그 결과와 주의사항을 방법순찰카드에 기재하여 놓아두기도 하고, 특정 지역 및 금융기관 등의 범죄 대상이 되기 쉬운 곳에 대해서는 방법시설을 점검하고 설치를 권장하는 것 ③ 순찰 |
| 기타 임무 | | ① 교통관련 봉사업무 ex) 도시의 교통흐름을 조정·통제하고, 운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역할 ② 112 신고센터 업무 -봉사적 업무와 범죄수사 업무의 경계에 위치하는 업무 |

<표 7> 경찰 근무부서별 인원현황

| 구분 | 계 | 경무 | 생활안전 | 수사 | 경비 | 정보 | 보안 | 외사 | 감사 | 교통 | 홍보 | 정보통신 | 지구대 | 기타 |
|----|--------|-------|-------|--------|-------|-------|-------|-------|-------|-------|------|------|--------|------|
| 인력 | 97,732 | 3,560 | 5,688 | 18,566 | 8,140 | 3,500 | 1,855 | 1,087 | 1,401 | 9,557 | 113 | 917 | 42,908 | 440 |
| 비율 | 100% | 3.6% | 5.8% | 19% | 8.3% | 3.6% | 1.9% | 1.1% | 1.4% | 9.8% | 0.1% | 0.9% | 44% | 0.5% |

자료협조 : 경찰청 경무기획국

제 2 절 언론의 보도 및 보도태도와 관련한 이론

1. 언론의 프레임(framing)

프레임(frame)에 대한 연구는 끊임없이 이어져 왔는데, 프레임은 사람들에게 현실에 대한 해석의 틀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한다. 뉴스 프레임이란 간단히 말해 뉴스를 사건이나 이슈를 전달하는 객관적인 매개체라기보다 특정한 틀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프레임을 뉴스 연구에 본격적으로 이용한 Tuchman(1978)은 “뉴스는 세상을 향한 창이며, 우리는 그 창들을 통해” 세상을 알게 된다고 했다. Gitlin(1980)은 프레임을 “현실에 대한 인식, 해석, 제시, 선택, 강조, 배제와 관련된 지속적인 패턴이며, 이 패턴에 따라 상징조작자가 관행적으로 언어적 또는 영상적 담론을 조직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Gamson(1992)은 프레임을 “이슈와 관련된 사건에 의미를 부여하는 조직적이고 중심적인 아이디어”이며 “사람들의 뉴스 이야기를 특정한 방식으로 이해하도록 돕는 이야기 구성 방식”이라고 정의 했다. Entman(1991)은 뉴스프레임을 “현실의 지각에 있어 특정 면을 선택, 강조함으로써 텍스트에서 현저하게 만드는 의미 구성 현상과 그에 연관된 수용자 인식의 틀”이라고 정의했다.

이러한 ‘현실을 규정하고 해석’ 하는 주체는 언론이기도 하고 수용자이기도 하다(송용희, 2005). 따라서 프레임은 언론에 의해 재구성된 메시지와 수용자의 해석이라는 두 가지 개념을 아우르고 있으며, Scheufele(1999)이 제시한 것처럼 이 두 가지를 연결하거나 각각의 프레임을 구성

하는 과정을 프레이밍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프레임과 관련한 연구에서 언론의 현실에 대한 틀 짓기 방식에 편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기에는 부정적인 것이 더 많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한 뉴스 틀의 차이가 사람들의 지각과 여론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도 있다(송종길, 2004).

사회인지 심리학에서는 독자들이 자신의 지식, 이전 스키마와 일치하는 정보를 더 잘 회상하고 수용한다고 말한다. 즉, 자신의 스키마와 일치된 메시지를 수용할 때, 독자들은 그 메시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자신의 이전 지식에 통합시키고, 담론을 구축해 나간다는 것이다(Fiske, 2006). 즉, 특정 프레임의 영향도 수용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말한다.

2. 언론의 선정주의(Sensationalism)

언론 프레이밍과 더불어 언론의 선정주의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언론의 보도가 객관적인 사실 전달에서 벗어나 다른 특정한 목표를 추구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함의하며, 이로 인해 경찰에 대한 보도 역시 언론의 특수한 목적에 의해 편향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선정성은 우선 선정주의(sensationalism)라는 용어에 근거하는 것으로, 이는 원래 철학과 문학 분야에서 유래되었는데 1830년대 초 신문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이래 오늘날 이르러서는 거의 사용화 되었다. 이 용어도 언론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많은 용어와 마찬가지로 사용하는 학자마다 그 개념이 각기 다르다.

<표 6> 언론의 선정성 및 선정주의의 의미

| 학자 및 기관 | 선정성 · 선정주의의 의미 |
|---------------------|---|
| Mott, 1969 | “독자의 감정을 흥분시켜 주는 내용과 그런 내용을 담은 뉴스보도방식” 또는 “범죄, 재앙, 성추문, 기문 등을 자세히 보도하는 것” |
| Emery & Emery, 2000 | “개인의 감정에 중점을 두는 뉴스보도방식” |
| 박영상, 1998 | “흥미 위주로 기사를 작성하거나 사건을 윤색하고 왜곡시키는 것” |
| 박허식, 1986 | “특정의미를 극도로 강조하고, 독자의 흥분을 자극하며 사건을 실제보다 흥미롭고 중대한 것처럼 윤색하는 것” |

이러한 선정주의는 범죄, 전쟁에 관한 보도뿐만 아니라 정치보도 등 언론보도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특히 범죄 관련보도의 경우 정치, 경제, 군사 부문 등에 비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지 않아 일반 국민의 관심을 유도하기 용이하고, 사건 자체가 지닌 잔혹성 등으로 인해 선정적인 기사로 각색하기에 유리한 면이 있다. 이로 인해 사건의 본질이 과장, 은폐, 축소되기 십상이며 여러 정보원을 짜집기하거나 추측과 가설을 중심으로 보도되기도 한다. 또한 기사의 선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러한 범죄에 대응해야 하는 경찰 부문의 문제점을 과장, 왜곡하는 경우도 상당하다. 가령, 일선 경찰공무원 개인의 발언을 경찰 조직 전체를 대표하는 의견으로 확대해석하거나 각종 사건에서 불거지는 의혹, 설(設), 음모론 등에 대해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보도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으로 인해 범죄 유형(살인, 강간, 강도 등)의 상대적 빈도, 범죄의 추이, 범죄자의 구성 및 특성(성별, 직업, 인종 등), 범인과 피해

자의 관계, 범인의 검거율 등에서 보도와 실제 현실이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가령, 실제 범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재산범죄는 선정성의 부족으로 실제보다 적게 보도되는 반면, 대인범죄는 사건 자체의 선정성으로 실제보다 더 많이 보도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더해 인터넷 뉴스의 확산과 종합편성채널의 등장, SNS의 확산 등으로 인해 기존 보도매체의 경쟁 대상이 확대되었고, 경쟁의 정도 또한 치열해지면서 이러한 선정적인 보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더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오보에 대한 해명이 소홀하다는 점에 있다. 어떤 의혹이 불거져서 혼란을 야기한 후 ‘아니면 말고’ 식으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야하는 언론의 의무를 스스로 저버리고 있는 것이다.

제 3 절 경찰과 언론의 관계

우리 사회에서 경찰과 언론은 각자의 고유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한다. 경찰의 업무는 범죄를 예방·진압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반면, 언론의 책임은 비록 경찰을 난처하게 하거나 때때로 방해하는 것이 될지는 모르지만 진실을 찾아내어 보도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국가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권력을 감시하는 것이다. 언론의 감시자로서의 기능은 종종 경찰과의 관계에 있어서 갈등을 빚게 된다. 이러한 갈등으로 양 기관의 구성원은 늘 상대방에 대하여 불만과 비판을 가지고 있다.

언론은 경찰에 대하여 업무의 불투명성과 업무 수행에 있어서의 비밀주의 경향을 지적하며, 경찰관들이 시민의 알권리를 위한 자신들의 업무 수행에 비협조적이라고 비난한다. 언론은 또한 경찰이 언론의 독립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예컨대, 경찰에서 언론의 취재원을 찾아내려고 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사진, 동영상 등 언론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 언론은 경찰이 자신들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고 비난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또한 국가의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 언론이 경찰의 감시 대상이 되거나 공권력 집행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이유로 경찰과 언론 간의 관계가 악화되기도 한다.

경찰에 대한 언론의 이같은 비난과 불평에 대해 경찰은 언론의 선정주의(Sensationalism)를 꼬집는다. 경찰은 언론이 선정주의로 인해 복잡하고 민감한 경찰관련 주제에 대해 추측성 기사를 쓰거나 보도를 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기사나 보도에 대해 언론이 무책임한 태도를 취한다고 비난한다. 예컨대, 종종 성급한 사건보도로 진행 중인 사건수사에 어려움을 주거나 시위 또는 인질사건에서 수상방향 및 수사기법을 공개함으로써 진압대상인 시위대 또는 범인에게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경우가 있다. 또한, 단편적이고 지엽적 문제점들을 부각시켜 경찰전체의 구조적 문제로 치부하거나 경찰의 무능력으로 묘사하기도 한다. 특히, 한국의 보수언론의 경우 19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정치적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정치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기능보다는 자신의 기득권세력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언론권력을 남용하고 여론을 왜곡하기도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현직 경찰관 1000명을¹⁾ 대상으로 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경찰에 대한 언론보도가 왜곡 또는 부풀려졌다고 느끼는가에 대한 질문에 44.1%가 ‘매우 그렇다’, 39.3%(284명)가 ‘그런 편이다’ 라고 답하였다. 이는 언론에 대한 경찰관들의 인식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1) 본 설문조사는 서울, 경기, 광주, 전남, 전북지방청 소속 경찰관을 대상으로 2008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루어 졌고, 설문대상자는 근무지별 지방청 300명, 경찰서 300명, 지구대 및 파출소 400명, 직급별 경위이상 200명, 경사이하 800명, 성별 남자 900명, 여자 100명의 분포를 나타낸다.

그러나 언론과 경찰의 외견 상의 갈등적 관계는 현실에서는 적대적이기 보다는 협조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양자의 협조관계는 비록 기능상 추구하는 목적은 다를지라도 역할 수행에 있어서 경찰과 언론이 공통점을 갖기 때문이다. 즉, 경찰과 언론은 자신들의 역할 수행 방식에 있어 ‘정보의 수집’과 ‘대중과의 관계’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경찰은 사회 속에서 자신의 임무 수행을 위해 필연적으로 사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이 점에서 언론은 매우 소중한 정보원으로서의 기능을 한다. 또한 경찰은 자신의 임무 수행을 위해 종종 대중에게 경찰정책에 대한 홍보를 하거나 사건 수사를 위해 수배를 하고 제보를 요청하기도 한다. 이를 위해 경찰은 오늘날과 같은 현대 미디어 사회에서 언론과의 관계를 등한시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 경찰 임무 수행을 위해 대중과의 신뢰관계 형성의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로서는 여론 형성을 통해 경찰 이미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언론과 적대적 관계를 형성할 수 없는 것은 자명하다.

반면, 언론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회의 다양한 현상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찰을 잠재적인 취재원으로 여기게 된다. 특히, 언론은 대중들의 호기심을 강하게 유발하는 범죄관련 사실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경찰과 일정한 우호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전국 어느 경찰기관에서나 매일 아침 언론사 기자들이 찾아와 전날 밤에 있었던 각종 사건 사고에 대하여 취재하는 광경을 볼 수 있는 것이다. 각 경찰관서 마다 출입기자 명부를 비치하고 관리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위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경찰과 언론의 관계는 대중과 정치라는 외부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기능적으로는 상호 갈등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현실에서는 위의 두 가지 외부환경으로 인해 상호 협조적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 4 절 언론의 이념적 지향에 따른 보도태도 차이

실제로 언론의 이념적 지향에 따라서 실제 보도태도가 차이를 보이는 것에 대해 상당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일반 국민에게 상식으로까지 인식되고 있다.

외국의 Entman(1991)은 1983년에 발생한 KAL 007기 폭파사건(소련에 의해 발생)과 1988년에 발생한 여객기 폭파사건(미군전함에 의해 발생)에서 미국의 언론이 서로 다른 뉴스프레임을 근거로 해당 사건들을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분석 결과 수많은 희생자가 나타남으로써 유사성을 보인 두 사건이 미국의 정치적 이해에 따라 하나는 소련의 야만행위로, 다른 하나는 군 작전지역에서 발생한 어쩔 수 없는 사건으로 묘사됐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전남식, 2004). 다시 말해 보도의 소재가 되는 기본적 사실의 인지에 있어서 각 신문사가 동일하다하더라도 이것에 대한 해석은 자신의 이념적 성향, 신문사의 이해관계 등에 의해 얼마든지 각색되고 변형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연구에서도 김대중 대통령 서거에 대하여 신문사별로 보도태도에서 큰 차이를 나타내었다. 3개 신문사를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각 신문사 모두 중립적 보도의 비중이 가장 많았던 부분은 일치하였다. 그러나 각 신문사별 긍정적, 부정적 보도의 비중에 있어서 신문사들은 차이를 나타내었다. 대표적으로 조선일보의 경우 부정적 보도비중(13.9%)이 긍정적 보도비중(12.9%)보다 높았으나 한겨레신문의 경우 긍정적 보도비중(34.7%)이 부정적 보도비중(8.4%)의 4배를 상회할 만큼 양 신문

사가 보도태도에 있어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에 대해 연구자는 언론에 등장하는 기사나 내용 등이 비록 사실에 근거하더라도 뉴스의 분석과 나열, 기사화 과정에서 고려되는 비중(news value)과, 바라보는 정치적 입장과 시각(political perspectives)에 따라 각기 상이하게 해석되고 있음을 지적한다(유정선, 2009).

또한 언론은 정권에 대한 전반적 평가에 있어서도 이념적 성향에 따라서 다른 보도태도를 나타내었다. 조선일보가 김영삼 정부에 대하여 ‘독불장군’, ‘국민 알잡아 본다.’ 등으로 표현하며 대통령 개인 속성의 문제를 부각시켰다면, 한겨레신문은 공격 강도가 훨씬 높아서 김영삼 정부를 사실상의 독재정권으로 규정하고 ‘군사독재의 사생아’, ‘5공수준의 인권시계’와 같이 감정적으로 비난하였다. 김대중 정부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이념 공격을 중심비판기조로 삼아 반공이데올로기와 자유민주주의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세력으로 몰아붙였다. 반면, 한겨레신문의 경우 이념적으로 동질의식을 갖고 있는 김대중 정부 자체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진보노선에서 이탈하는 것을 공격하였다(전남식, 2004).

또한 본 연구에서처럼 이념성향에 따라 언론의 보도가 차이를 나타낸다는 것을 밝힌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그 중 한겨레신문과 조선일보를 특정하여 분석을 진행한 것이 상당하였다. 한겨레신문과 조선일보 간에 보도태도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각 신문사의 창간배경에서도 유추해볼 수 있다. 조선일보의 경우 1920년 3월 5일 창간되어 한국의 근현대사와 역사를 같이해왔다고 볼 수 있다. 이에 타 신문사에 비하여 역사가 오래되었고, 그 결과 보도에 있어서 경로의존성(path-dependency)이 나타나 보수적 성향을 띄기 쉬웠음을 유추할 수 있다. 반면에 한겨레신문은 1988년 5월 15일에 창간되어 가로쓰기, 한글쓰기 등 당시 획기적인 편

집방식을 드러내었으며 2만 7천여 명이 창간기금 50억 원을 들여세운 국민주 신문으로써 기존 언론들과는 다른 성향을 나타내었다(김효진, 2008).

구체적인 연구에 있어서 백선거(1997)는 15대 총선에서의 중심 주제에 대하여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에 실린 보도를 대상으로 이데올로기 편향성을 분석하여 그 차이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정재철(2001)은 2001년 이슈였던 언론개혁과 관련된 담론을 분석하는데 있어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이 언론개혁에 관해 양극화된 사회적 담론을 생산하고 있다고 상정했다. 그는 양적인 분석을 통해 두 신문의 주요 정보원, 주제, 스트레이트 뉴스 기사 제목의 방향성에 있어서 두 신문이 차이가 있음을 검증했으며, 질적인 분석으로 두 신문에 등장하는 주체와 담론을 구성하는 주요 언술, 담론적 실천 등이 불일치한다고 주장했다.

유용민·김성해(2007)의 연구에서는 조선일보가 노동운동을 구시대적 낙오자, 개혁방해세력, 불법이익집단으로 프레임하고, 이를 부정적으로 보도하는 한편, 경쟁력, 국익, 효율성 등 신자유주의적 가치를 강조했다. 반면 한겨레신문은 노동운동을 민주주의 견인자, 생존위한 저항자, 구조적 피해자로 틀 지으며 이를 긍정적 또는 중립적으로 보도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말했다.

제 3 장 연구모형 및 조사 설계

제 1 절 가설 및 변수의 선정

1. 가설 및 변수의 선정

1) 보도태도

먼저 기사의 논조는 매우긍정, 긍정, 중립, 부정, 매우부정으로 나누어 보도태도를 분석하였다. 이는 기사 내용에서 나타나는 글의 투를 분석하는 것으로 긍정은 바람직하거나 옳다고 지지하는 내용이나 경찰을 우호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담긴 경우 등을, 중립은 단순사실 전달이나 양비론 및 양시론을, 부정은 바람직하지 않고 옳지 않다고 반대하는 내용 및 경찰을 비판하는 시각이 담긴 경우 등을 기사에 포함시켰다. 구체적 코딩방식은 다음과 같다.

〈표 7〉 기사의 보도태도 판단기준

[illegible]

므로 사건에서 나타난 부정적 부분에 대해 책임을 귀속시키기가 용이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가설1]을 설정한다.

가설1-1(H1-1) : 사건별로 언론의 경찰에 대한 보도태도는 부정적일 것이다.

가설1-2(H1-2) : 전체적으로 언론의 경찰에 대한 보도태도는 부정적일 것이다.

2) 보도매체 및 보도성향²⁾

두 번째 가설은 보도매체 따라 언론의 보도태도가 어떻게 달리 나타나는가에 대한 논의와 관련된다. 신문구독률과 신문사의 성향을 감안하여 선정된 2개 신문사의 보도태도를 비교하고자 함이 목적이다. 또한 신문사의 보도성향을 변수로 보수-진보의 상반된 입장에 따라 경찰의 역할·기능에 대한 입장이 어떻게 달리 나타나는지 검토한다. 이를 위해 매체별(신문사별)로 보도태도를 검증하며 이와 더불어 보도성향에 따른 차이를 검증코자 [가설2]을 설정한다.

가설2(H2) : 보도매체(성향)별로 언론의 경찰에 대한 보도태도는 다를 것이다.

| |
|--|
| $H2_1 : \mu_{\text{조선(보수)}} \neq \mu_{\text{한겨레(진보)}}$ |
|--|

| |
|---|
| $H2_2 : \mu_{\text{조선(보수)}} = \mu_{\text{한겨레(진보)}}$ |
|---|

3) 경찰업무유형(警科)

경찰의 경우 경찰관직무집행법³⁾ 제2조(직무의 범위)에 따르면 아래와

2) * 김도훈(2007)의 연구에서 참고함 (차후 보도성향 구분방법 등과 관련하여 수정 필요)

3) 11031 , 2011.8.4,

같이 업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 경찰관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개정 2011.8.4>

1.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3.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수행
4.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5.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6.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다만,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찰공무원임용령⁴⁾에서 아래와 같이 경과(警科)를 구분하여 업무의 유형을 세분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법령과 같이 일반, 수사, 보안, 특수 4개 분야로 구분할 경우 경찰의 업무 구분이 불명확해지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해당 업무구분은 경과(警科)별 내부승진 및 보수 규정을 위한 것으로서 강학상·실무상 구분과는 괴리되는 측면이 있다.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조(경과 및 특기) ① 총경이하의 경찰공무원은 다음의 경과로 구분한다. 다만, 제2호의 수사경과 및 제3호의 보안경과는 경정이하 경찰공무원으로, 제4호 나목의 운전경과는 경사이하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1. 일반경과
2. 수사경과
3. 보안경과
4. 특수경과⁵⁾

4) 23759 , 2012.5.1,

5) 3 1 4 가. , . , . , .

따라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⁶⁾규정을 중심으로 경찰업무유형을 구분한다. 다만, 이 경우 실제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외사’ 나 ‘생활안전’ 등의 경우 타 경찰업무유형에 비하여 중요사건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적어 해당 업무유형을 독립적인 분과로 정하기에 한계가 있다. ‘정보’와 ‘보안’의 경우 정치경찰 활동, 개인정보보호 등에 있어서 서로 유사한 업무양상을 보이고 있어 양자를 통합하는 것이 연구에 적실한 반면, 직제 상 ‘경무’에 포함되는 경찰 자체 내부적 사건과 외부적 정책은 구분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경무’와 ‘기획홍보’로 분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찰의 업무유형을 ‘경무’, ‘경비교통’, ‘수사’, ‘기획홍보’, ‘정보보안’, ‘감찰’로 구분한다. 이러한 구분을 기초로 아래와 같은 <경찰업무유형 분류기준>을 통해 신문기사를 실제적으로 분류한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하부조직) ① 경찰청에 경무국·생활안전국·수사국·경비국·정보국·보안국 및 외사국을 둔다.

<표 8> 경찰업무유형 분류기준

| | |
|------|---|
| 기획홍보 | 대국민 치안서비스 제고를 위한 정책 및 제도 실시, 대국민 홍보 민간위원회 및 민경 합동위원회 설치, 정책연구소의 개설 |
| 경비교통 | 시위 진압 일반치안업무(요인보호, 문화재 보호, 공공시설 보호, 자연재해 등) |
| 정보보안 | 정치경찰활동, 북한 관련 업무, 정보 DB화, 개인정보보호 |
| 감찰 | 경찰비리 |

6) 23644 , 2012.2.29,

| | |
|----|--|
| 경무 | 경찰 권한 변동, 경찰 부서 신설 및 변경, 인사관리, 경찰 자체 위원회 설치, 경찰 내 노조, 경찰조직내부 사건 |
| 수사 | 범죄인지 및 피의자 검거, (외국인 수사 포함) |

그러나, 상기 6개 경찰업무유형 전체를 대상으로 보도매체 간 보도태도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할 경우 한겨레신문과 조선일보를 합쳐 수천 건의 기사를 분석해야하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어 언론보도에서 중심이 되는 두 가지 경찰업무유형을 선정한 다음 양 자를 비교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분석의 대상이 되는 경찰업무유형을 선정하기 위해 200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1일까지 <표 9> 경찰업무유형 분류기준과 <표 10> 주요사건의 선정요건을 고려하여 매년 약 10~13개 주요사건을 추출하였다.

<표 9> 연도별 주요사건의 선정요건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일보, 한겨레 양 신문에 모두 게재 - 각 신문 별로 시간차를 두고 2회 이상 게재 - 위키백과, 네이버지식백과, 두산백과 내 관련 내용 서술 - 사건사고의 경우 드라마, 영화화를 통한 대중적 인지도 고려 - 부서 신설·변경의 경우 전국 지방청 및 서 단위의 대규모 신설·변동에 한정 - 경찰비리의 경우 반사회성인륜범죄(ex. 경찰관 모친살해) 및 대규모, 고위간부비리 등에 한정 - 시위진압의 경우 일주일 이상 및 1만 명 이상 시위에 한정(ex. 민주노총, 전교조 파업 등) |
|---|

그 결과 아래 <표 11> ‘연도별 주요사건 선정 예시’ 와 같이 각 연도별

로 정리하였고, 경찰업무유형별로 주요사건의 빈도를 <표 12> ‘조사기간 내 경찰업무유형별 주요사건 빈도’ 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10> 연도별 주요사건 선정 예시 (2011년)

| 주요사건 | 경찰업무유형 |
|--------------------------------|--------|
| 2011재보궐 선거 사이버테러사건 (10.26부정선거) | 정보보안 |
| 인화학교 장애인성폭행사건 (소위 ‘도가니 사건’) | 수사 |
| 경찰 비위를 조사한 인권위 내부 문건을 불법 유출 사건 | 정보보안 |
| 고려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 | 수사 |
| 부산저축은행 등 상호저축은행 영업정지 및 수사 | 수사 |
| 네이트 개인정보 유출 사건 | 정보보안 |
| 3.3 Ddos 공격 사건 | 수사 |
| 모친살해 경찰간부 사건 | 감찰 |
| 사법개혁특별위원회설치 | 경무 |
| 인천조직폭력배 유혈난투 사건 | 수사 |
| 경찰수사개시권명문화 | 경무 |
|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집회시위 | 경비교통 |

<표 11> 조사기간 내 경찰업무유형별 주요사건 빈도

| 업무유형 | 기획홍보 | 경비교통 | 정보보안 | 감찰 | 경무 | 수사 |
|-------|------|------|------|-----|-----|-----|
| 사건 빈도 | 30건 | 50건 | 18건 | 18건 | 38건 | 52건 |

상기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언론보도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어지는 분야가 ‘경비교통’ 및 ‘수사’ 인 것으로 나타났음과 동시에 ‘기획홍보’, ‘감찰’, ‘경무’ 등의 경우 경찰 내부적인 사건으로써 언론의 보도태도가 중립 특히, 사실전달보도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어 경찰업무유형을 ‘경비교통’ 과 ‘수사’ 로 압축하였다. 마지막으로, ‘교통’ 의 경우 사건의 경미함으로 인해 분석에 어려움이 있는 바 ‘경찰경비’ 와 ‘경찰수사’ 로 최종 선정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가설3]를 설정하였다.

가설3(H3) : 경찰업무유형별(‘경찰경비’ 및 ‘경찰수사’)로 경찰주요사건에 대한 보도매체 간 보도태도 차이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 |
|--|
| H3 ₁ : $\mu_{\text{경비}}$ \neq $\mu_{\text{수사}}$ |
| H3 ₂ : $\mu_{\text{경비}}$ $=$ $\mu_{\text{수사}}$ |

제 2 절 내용분석의 의의와 표본추출

1. 내용분석의 의의와 절차

1) 내용분석의 의의

내용분석(content analysis method)은 인간의 행태를 직접 관찰하거나 설문지와 인터뷰를 통하지 않고 조사자가 커뮤니케이션 내용을 관찰 측정하는 방법이다. 특히, 인쇄 매체나 방송의 내용을 조사하는 수단으로서 효과적이기 때문에 매스미디어 연구자들 사이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연구방식이다. 이러한, 내용분석은 방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분석하는 데 효율적인 방법이므로 행정학 연구를 위해서도 유용한 방법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에 사회과학의 문헌연구는 내용분석에 의존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문헌연구라 하면 곧 내용분석을 의미한다 해

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이해영, 1999).

내용분석이 특히 요구되는 경우는 다음의 경우이다. 첫째, 조사대상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이 어렵고 주어진 자료가 문헌적일 때 사용한다. 둘째, 비록조사대상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이 가능하여 설문이나 면접 등을 통해 자료를 얻었더라도 그것을 재확인하기 위하여 응답자가 남겨놓은 다른 자료를 분석해 보고자하는 것과 같이 보완적인 연구방법으로도 사용된다. 셋째, 연구대상자의 언어 또는 문체 등이 주어진 연구자체에 관건이 될 때 사용된다. 마지막으로, 매스미디어 내용의 변천경향, 논조, 주제 분석 등을 할 경우에 내용분석이 필요하다(차배근, 1999).

이처럼 내용분석은 커뮤니케이션 분야에 적합하며 특히 역사적 연구에 적합한 방식으로 연구자의 실수 등에 의해서 재 연구가 필요할 경우 조사 연구나 실험연구에 비해서 비용측면에서 유리하고, 조사연구나 실험연구에서처럼 연구자의 개입이나 반작용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는 것에 장점이 있다. 이에 반해 연구대상이 이미 기록되어 있는 의사전달 내용만으로 한정된다는 점과 사용된 분석범주(categories)와 개념정의에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방법적인 면에 있어서 매우 손쉬우면서도 객관적인 현상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인 것은 분명하다(김영석, 1994).

<표 12> 내용분석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

| 연구자 | 정의내용 |
|------------------------|---|
| Berelson, 1952 | 커뮤니케이션의 명백한 내용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이며, 계량적으로 기술하는 데 필요한 하나의 연구기법 |
| Walizer & Wienir, 1978 | 기록된 정보의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 고안된 일련의 체계적인 절차 |
| Krippendorf, | 어떠한 자료로부터 그 문맥에 대하여 타당한 증거들 |

| | |
|--------------------|--|
| 1980 | 을 만드는 연구의 기법 |
| Kerlinger, 1986 | 변인측정을 목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체계적이고 개 고간접이며 수량적인 방식으로 연구하는 방법 |
| 김경동 · 이온죽, 1995 | 인간의 상징적 기호로 표현된 의사소통 기록물의 내 용적 특징들을 체계적으로 기술하고, 그 동기원인 및 결과나 영향을 체계적으로 추론하고자 하는 사회 과학의 분석기법 |

위와 같이 내용분석의 개념은 연구자나 학문분야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개념정의에 있어 연구자들에 따른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내용분석에 대한 몇 가지 공통적인 요소를 보면 아래와 같다(이상호, 2005).

첫째, 내용분석은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기록물의 내용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한다는 측면에서는 문헌연구(document studies)의 한 종류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기록자료가 내용분석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모두 장기간의 축적 자료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다양성 측면에서는 오랜 기간의 경험이 쌓인 커뮤니케이션 분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개념정에서 나타나듯이 내용분석법은 커뮤니케이션 분석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점이 강조된다. 이는 내용분석의 과정이 일관성 있는 규칙을 따라야 하고, 그러한 동일한 규칙을 따르면 누구나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분석자의 주관적인 감정의 개입이나 편견은 배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면에서 내용분석법은 과학적인 연구의 기본적인 요건이 강조되는 연구방법으로 볼 수 있다.

셋째, 내용분석은 통계처리를 통한 계량분석을 보다 선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언급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이 강조된다는 면과 상

호 연결된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 “내용분석이 대규모의 자료를 대상으로 수량적 접근을 통해서 귀납적인 일반화를 시도하거나 가설검증을 목표로 하는 접근법이라는 점에서 질적 접근은 내용분석의 연구범주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 이라고 했다(김경동·이온죽, 1995). 이는 내용분석이 양적인 분석에 보다 적합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끝으로, 메시지가 나타내는 내용을 기술하는 것도 내용분석의 하나이다. 즉, 메시지가 전달하는 내용의 의미 또는 효과를 추론하는 것이 내용분석의 목적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메시지의 내용을 단순히 기술하는 것은 특정한 분야의 초기연구로서 과거에 연구된 적이 없는 탐구적 연구가 아니면 보편적인 방법으로 볼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탐구적 연구에서는 명확한 이론적 배경을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형식을 갖춘 가설과 연구의 문제를 제시하지 않는다.

2) 내용분석의 절차

내용분석은 분석대상 자료의 내용에 관한 연구문제의 해답을 구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법이므로 분석의 단계를 크게 문제인식, 연구의 설계, 분석과 해석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그 과정 및 절차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이상호, 2005).

<표 13> 내용분석의 과정과 절차

| 단계 | 과정 및 절차 | 검토항목 |
|----------|---------------|---------------------------------|
| 문제 인식 | 선행연구 및 이론검토 | 연구문제와 가설의 정확한 설정 |
| | 연구문제 및 가설의 설정 | |
| 연구 설계 | 자료의 선정과 표본추출 | 문헌자료의 종류와 범위규정 모집단과 표본 집단 규정 |

| | | |
|-----------|----------------|------------------------------|
| | 분석기준의 설정 | 표본추출방법의 기술 분석기준과 분석단위의 규정 |
| | 분석단위와 집계단위 결정 | |
| 분석과 해석 | 신뢰도 검증, 통계적 분석 | 코딩의 신뢰도 기술 |
| | 결과의 해석 | |

다만 위에 제시된 내용분석의 절차가 정형화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도 이와 유사한 절차를 보이며, 다음과 같이 여섯 단계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먼저, 연구문제와 가설의 설정이며, 둘째, 문헌자료의 규정과 표본추출을 하며, 셋째, 분석기준(category)을 설정하고, 넷째, 분석단위를 결정하며, 집계체계의 규정과 분석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뢰도 검증이다(김경동 · 이온죽, 1995).

하지만 세부적 절차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할 지라도 연구문제와 가설의 설정을 중심으로 연구대상과 표본을 선정하고, 특정한 분석기준을 통해 내용분석을 본격적으로 실시한 후 최종적으로 신뢰도 검정을 요한다는 기본적인 틀에는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중심적인 절차를 따라 연구를 진행한다.

2. 분석대상의 규정 및 표본추출

1) 언론매체 및 보도범위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위한 분석대상으로서 문헌자료의 종류와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연구의 자료 선정에 대한 객관적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수집된 자료들이 연구문제의 답을 구하는 데 얼마나 적절한 지, 작성된 자료

들은 신뢰할 수준의 것인지를 판단하는 과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언론매체 중에서 신문을 분석의 대상으로 정하여 경찰에 대한 언론의 보도태도가 어떻게 나타나는 지를 빈도, 상대적 비율 분석 등을 통해 알아보하고자한다. TV나 라디오를 배제한 이유는 이러한 영상, 음성 매체의 경우 역대 자료가 색인화 되어 있지 않아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기가 어려운 현실적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이고, 인터넷 매체를 배제한 이유는 해당 매체의 경우 대부분의 참여자가 젊은 층, 여성, 비장애인 등으로써 매체의 대상이 예상되어 이점이 보도태도에 대한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매체의 경우 타 매체에 비하여 보도형식자체의 완성도가 떨어지고, 정보원의 출처가 불분명하며, 추측성 기사 등 보도의 질이 낮은 점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신문의 경우 영향력과 신뢰도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KINDS 등을 통해 언론보도 자료를 연구주체에 맞게 수집하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구체적인 분석대상 언론매체는 조선, 한겨레 양 신문을 선정하였다. 분석대상 언론매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 기본적으로 언론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와 영향력은 2010년 광고주 협회가 발표한 조사 자료를 선정의 기준으로 인용했다.

<표 14> 언론매체 영향력 및 신뢰도 (n=10,000, %)

| 매체 | KBS | MBC | NHN | SBS |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 |
|-----|------|------|-----|-----|------|------|------|
| 영향력 | 53.9 | 22.6 | 8.8 | 6.4 | 2.3 | 0.6 | 0.4 |
| 신뢰도 | 33.3 | 24.8 | 9.7 | 7.9 | 2.6 | 1.0 | 0.8 |

(자료 : 광고주협회, 2010, 공양식, 2011 재인용)

*한겨레신문은 신뢰도에서 동아일보와 동일함

또한 보도성향과 관련해 이 신문들은 선행연구에서 대표적인 진보지와 보수지로 많이 활용되어왔다. 백선기(1997)의 연구에서는 조선일보를 대표적인 보수신문으로, 한겨레신문은 진보주의를 대표하는 신문으로 구분하고 있다.

<표 15>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의 보도성향

| | 조선일보의 보도 성향 | 한겨레신문의 보도성향 |
|------|-------------|-------------|
| 정치이념 | 보수주의 | 진보주의 |
| 경제이념 | 실물경제 | 실명경제 |
| 남북관계 | 반공주의, 반주체사상 | 점진적 통일주의 |

* 백선기, 1997 내용을 표로 요약

김경희 · 노기영 (2011) 또한 정치이념과 경제이념에 있어 조선일보, 동아일보는 보수성향을,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진보성향을 가지는 신문으로 구분하고 있다. 물론, 보수와 진보의 구분에 있어서 상당한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한국의 경우 권력의 진공상태로 규정되는 해방 이후와 적산불하 및 원조경제체제, 개발독재 시기를 거치면서 이념의 구분이 더 복잡하고 특수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국내 주요매체에 대한 이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점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본 연구에서도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보수성향이 강한 매체,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진보성향이 강한 매체로 정의하였다.

2) 표본추출

본 연구에서는 한국언론재단의 언론기사 DB인 KINDS(이하 KINDS :

www.kinds.or.kr)에서 제공하는 뉴스검색서비스를 통해 수집하고자 시도하였다. 그러나 조선일보의 경우 KINDS를 통해 검색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다. 따라서 조선일보의 경우는 해당 언론매체의 홈페이지(조선일보 DB)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과 선정된 언론매체의 신뢰도와 영향력을 고려하여 KINDS를 통한 검색의 범위를 벗어난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해당 언론매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자료가 수집된 만큼 자료의 신뢰성은 더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표본수집의 시간적 범위는 2000년 1월 1일부터 최근인 2012년 12월 1일까지로 하였다. 검색기간은 첫해와 마지막 해를 제외하고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 1년 단위로 구분하여 검색어를 포함한 기사를 분석하여 신문사별 보도자료를 구분하여 집계하였다.

제 3 절 분석기준 및 분석단위의 설정

1. 분석기준의 설정

내용분석 연구에 있어서 분석기준의 선정과 이에 대한 정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Berelson(1952)은 “내용분석의 성패는 분석기준이 연구문제와 분석 자료에 적합하게 설정되었는가에 달려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분석기준은 연구목적을 해결하기 위해 연구문제를 구체화시킨 범주(category)를 말한다. 다시 말해, 연구대상의 내용을 분류하기 위한 넓은 범위의 기준이라 할 수 있다. 분석기준은 일반적으로 분석자의 지적 능력을 동원하여 주관적인 방법으로 설정하기도 하나, 연구

결과의 질적인 수준과 신뢰성을 결정하는 사항인 만큼 연구문제 해결에 잘 부합하도록 합리성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하나의 분석기준은 세부적으로 분류될 수도 있지만, 분석기준 사이에는 반드시 상호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한다(이상호, 2005). 본 연구에서의 분석기준은 경찰에 대한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한 언론의 개별적인 ‘보도자료’와 해당 보도자료의 시간적 경과, 경찰업무유형, 매체 간 구분에 의한 언론의 보도태도 등 ‘변화’와 ‘차이’라고 할 수 있다.

2. 분석단위의 설정

분석단위(Unit of analysis)는 분석하려는 내용을 말한다. 그리고 내용은 유형에 관계없이 반드시 측정할 수 있는 단위로 환원될 수 있도록 설정 혹은 선정하여야 한다. 내용분석의 연구기법이 발달하면서 분석단위도 세분화 되었다. 그러나 주로 통상적인 연구단위인 기록단위(recording units)와 맥락단위(context units) 등이 사용되고 있다. 기록단위는 내용분석의 최소단위로서 단어나 용어와 같이 측정이 용이한 요소가 되기도 하고, 논문과 기사의 주제와 같이 측정이 어려운 내용적 요소가 될 수도 있다. 주제는 문장과 단락으로 파악할 수 있지만, 보통 본문 전체에 걸쳐 함축하고 있는 내용으로 파악해야 할 경우도 많고 또 주제간 경계선이 불확실하여 복수의 주제를 함축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히 분석에 신중을 요한다. 또한, 주제와 더불어 항목(items)이 기록단위가 될 수 있다. 예컨대, 논문 한편, 연설문 전문, 신문의 기사 한 건 등이 항목인데, 단위자체가 광범위하며 내용이 너무 일반적이고 복잡적이므로 정확성을 기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김경동·이온죽, 1995).

맥락단위는 내용을 범주에 따라 분류하는 과정에서 검토되어야 할 상황을 연구자들에게 암시해 주는 요소를 말한다(배현석, 2002). 예를 들면, 김광웅(1983)의 연구에서 역대 대통령 연설문에 등장하는 ‘정치복지’란 단어는 기록단위로 사용될 수 있지만 이것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문단, 단락 또는 전체 연설문 가운데 어느 것이 적절한지는 맥락단위를 통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과 같다(이상호, 2005).

내용분석을 위한 구체적 분석의 단위를 살펴보면, 김성태·이창호(2007)는 공적이슈에 대한 미디어분석을 위한 연구에서 내용분석의 단위로서 뉴스 연도, 기사분량, 기사유형, 기사작성자, 전문용어의 사용 및 설명여부, 기사제목 및 내용의 논조, 보도유형, 발표 자료의 출처, 기사의 주제, 사실성 입증기제 사용여부, 취재원의 종류 및 논조 등을 사용하였다. 한동섭·유승현(2008)은 언론보도에 나타난 익명 정보원에 관한 연구에서 내용분석의 단위로 보도태도와 정보원 유형 그리고 중심적 정보원/부차적 정보원으로 나누었다.

본 연구에서는 신문의 기사를 내용단위로 설정한다. 다만, 상기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 경우 단위자체가 광범위하며 내용이 너무 일반적이고 복잡적이므로 정확성을 기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으나 이는 아래에서의 맥락단위를 고려하여 그 정확성을 제고하고, 내용단위 내에 있는 단어, 어구, 문장 등 양적지표에 의하여 보도태도를 객관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신뢰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맥락단위에 있어서는 기사의 보도년도(한겨레신문과 조선일보 모두 보도색인에서 1년 단위로 검색기간을 설정), 기사분량(500자 이하 단신기사는 제외, 경찰관련내용이 전체 기사분량의 20%이내인 경우 배제), 기사제목 및 내용(헤드라인 및 본문 내 단어, 어구 등을 참조하여 보도태도 설정), 취재원의 종류(보도에서

인용이 나타난 경우 그 인용의 편향성과 배치 양상 등을 검토) 등으로 설정하였다.

제 4 절 자료수집

1.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에서 자료수집에 있어서는 한겨레신문의 경우 KINDS 기사검색서비스를 이용하고, 조선일보의 경우 조선일보 홈페이지(조선일보 DB)를 이용하여 매체별, 연도별로 기사를 수집하였다. 상기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보도색인을 통해 우선 검색기간을 설정하고, 검색 시 경찰주요사건에 대한 보도기사 약 20건~100건 사이가 되도록 검색어를 설정하였다. (검색어는 아래 개별적(사건별) 분석에서 밝힌다.) 보도장르는 양 매체 공히 전 장르를 포괄하였다.

일부 사건의 경우 검색어 설정의 한계로 인해 검색 시 100건이 넘는 기사가 도출된 경우 한겨레신문의 경우 정확도 순으로 기사가 배치되어 있으므로, 정확도가 높은 상위 20~40개의 기사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고, 조선일보의 경우에는 검색된 기사가 시간 순으로 배열되어 있어 순서대로 20~40개의 기사를 선정할 경우 1년 사이 시간 경과에 따른 보도태도 차이가 왜곡변수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계통표본추출법을 사용하여 2~4건의 기사 당 한 건을 추출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2. 자료의 선정 및 배제 기준

기고에 있어서 ‘독자의 소리’ 등과 같이 당해 신문사가 독자들에게 일정 부분을 할당하여 해당 부분에는 자유롭게 독자의 기고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고가 언론의 보도태도를 나타낸다기보다 독자 개인의 태도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기에 이는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기고라고 하더라도 기사 마지막에 언론사의 첨언이 있거나 기고가 신문 부록이 아닌 사설 주위에 배치되어 기고에 대한 언론의 선별이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 역시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동일한 매체 내에서 동일한 기사가 여러 번 보도되는 경우 (대부분은 KINDS 및 조선일보DB 시스템 오류로 인해 발생)에는 이를 1건으로 집계하였다. 그리고 가령 ‘인화학교 장애인성폭행 사건(소위 ‘도가니’ 사건)’에 대한 각 매체의 보도태도를 확인하기 위해 검색기간 설정 후, 검색어를 ‘인화학교, 경찰’로 검색했을 때 ‘천안 도가니 사건’과 같이 언론사가 보도의 선정성 등을 이유로 분석대상사건과 무관하지만 검색어에는 포함되어 검색된 기사의 경우에는 당연히 배제하였다.

이 외에 경찰에 관한 보도가 해당 기사 내에서 아주 부수적인 부분(보도분량 중 20%이내)인 경우 기사를 배제하였다. 이는 사실상 기사에서 경찰에 대한 보도태도를 드러내었다기보다 다른 주제, 다른 내용을 표현하기 위해 기사가 작성되었으나 추가적인 사실전달을 위하여 경찰의 행위를 언급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다만, 경찰에 대하여 한 줄만 언급하는 등 그 분량은 적으나 경찰에 대한 태도가 명백히 반영된 경우에는 이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한 건의 기사 내에 여러 사건이 나열식으로 보도되어 있는 종합기사의 경우에는 분석에서 배제하였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사건에 대한 보

도의 경우 언론의 보도태도가 드러나는 것이 가능하나 여러 가지 사건이 한꺼번에 나열되어 있는 경우 해당 사건 만에 대한 언론의 보도태도가 드러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상기의 자료수집 방법 및 자료의 선정·배제 기준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신문기사를 추출하여 이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표 16> 경찰주요사건별·매체별 분석기사 수

| 연도 | 사건명 | 한겨레 | 조선 | 합계 |
|------|--|-----|-----|-----|
| 2000 | 롯데호텔 노동조합 파업·농성 및 진압 사건 | 15건 | 7건 | 22건 |
| 2001 | 부평 대우자동차 노동조합원 폭력진압 사건 (소위 ‘대우차 사태’) | 22건 | 17건 | 39건 |
| 2002 | 2002 한·일 월드컵 경호경비 | 20건 | 18건 | 38건 |
| 2003 | 전북 부안군 위도 핵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사건 (소위 ‘부안 방폐장’ 사건) | 19건 | 17건 | 36건 |
| 2004 | 부유층 노인 및 출장마사지 종사 여성 연쇄살인사건 (소위 ‘유영철’ 사건) | 18건 | 12건 | 30건 |
| 2005 | 여의도 농민집회 전용철 사망사건 | 14건 | 8건 | 22건 |
| 2006 | 서울 서남부 연쇄살인사건 (소위 ‘정남규’ 사건) | 7건 | 3건 | 10건 |
| 2007 | 한화그룹 김승현회장 보복폭행사건 | 25건 | 22건 | 47건 |
| 2008 | 경기 안양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 (소위 ‘혜진·예슬’ 사건) | 16건 | 19건 | 35건 |
| 2009 | 탤런트 고 장자연 성상납 의혹 사건 | 25건 | 20건 | 45건 |

| | | | | |
|------|--------------------------------|------|------|------|
| | (소위 ‘장자연리스트’ 사건) | | | |
| 2010 | 양천경찰서 피의자 가혹행위사건 | 21건 | 14건 | 35건 |
| 2011 | 인화학교 장애인성폭행사건 (소위 ‘도가니’ 사건) | 19건 | 13건 | 32건 |
| 2012 | 수원 납치도막살인사건 (소위 ‘오원춘’ 사건) | 17건 | 22건 | 39건 |
| 합계 | | 238건 | 192건 | 430건 |

제 5 절 신뢰성 검토

1. 신뢰성 검토의 의의

내용분석이라는 방법론적 특성상 신뢰성의 문제가 제기되기 쉽다. 특히, 본 연구와 같이 보도태도를 분석할 경우 태도라는 불확정개념에 대해 다수의 연구자 특히, 코더(Coder) 간에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연구의 신뢰성 특히, 검증한 가설의 신뢰성이 문제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내용분석의 경우 보도자료 등을 분석함에 있어서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분석을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복수의 코딩작업을 실시하게 된다.(차배근, 1999; 공양식, 2011 재인용)

이 외에 분류할 내용이 방대하건가 방대하지는 않더라도 코딩의 기준(세부 매뉴얼)이 제대로 설정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복수의 코더가 내용 분석을 실시하고, 코더 간 신뢰도(coefficient of reliability)를 측정하여 분석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신뢰성 분석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 이외에 석사과정 중에 있는 보조자 1명이 공동으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내용분석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기에 앞서서 보도태도를 판단하기 위한 세부 매뉴얼에 대하여 미리 사전교육하고, 코더 간 신뢰도를 도출하기 위한 분석대상사건을 선정하게 되었다. 해당 사건은 ‘전북 부안군 위도 핵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사건(소위 ‘부안 방폐장’ 사건)으로써 한겨레신문 19건, 조선일보 17건을 대상으로 복수의 연구자가 분석을 실시하고 신뢰계수를 도출하였다.

신뢰계수는 내용분석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아래의 Holsti(1969)의 신뢰도 도출공식을 사용하였다.

<그림 3> 신뢰도 계수(Coefficient of reliability)

$$\text{신뢰도} = \frac{2M}{N1 + N2}$$

M : 2명의 코더 간 일치한 코딩의 개수

N1 : 본인의 코딩 개수

N2 : 보조자의 코딩 개수

본 연구에서 사전에 측정한 코더 간 신뢰도의 경우 한겨레신문의 경우 19건에 대하여 16건이 일치하여 84.21의 신뢰도가 도출되었고, 조선일보의 경우 17건에 대하여 88.23의 신뢰도가 도출되었다. 일반적으로 홀스티 신뢰도 도출공식을 사용했을 때 0.9이상이면 높은 신뢰도로 판단할 수 있으나 양 매체 모두 0.9를 넘기지 못하였으나 Kassajian(1977)이 최저 신뢰도로서 제시한 85%에 비슷하거나 상회하는 수치를 보였다. 다만, 상기 신뢰도 검증은 소위 방폐장사건에 한정되어 실시돼 그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0.9를 넘기지 못한 한계 역시 존재하여 실제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양적지표에 의한 보도태도 검증을 위한 어휘군 수집을 위해 노력하였고, 지속적으로 보조자와 피드백을 실시하였다.

제 4 장 내용분석의 결과

제 1 절 보도매체간 보도태도 차이에 관한 개별적 분석

1. 롯데호텔 노동조합 파업·농성 및 진압 사건

보도기간 : 2000. 01. 01 ~ 2000. 12. 31

검색어 : 롯데호텔 경찰

사건개요 | 2000년 6월 9일부터 롯데호텔 노동조합원들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 및 일방중재 조항 삭제 등을 요구하며 롯데호텔 내에서 농성한 사건이다. 특히, 6월 29일 새벽 여성 400여명을 포함한 1천여명이 파업 농성을 벌이던 호텔롯데에 테러진압 전문 일명 '술개부대'를 앞세워 진압을 감행하였고, 경찰이 노조원 1,122명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노조원 50여명과 경찰 6명이 부상당하였다. 이 과정에서 음주진압 의혹과 임신부 폭행 등 과잉폭력진압이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이후 롯데호텔 노사 양쪽은 그동안 노동쟁의의 핵심쟁점이 돼온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과 일방중재 조항의 삭제 등에 합의함으로써 파업 74일 만에, 그리고 경찰력 투입 54일 만에 정상을 되찾게 됐다.

| | 매우긍정 | 긍정 | 중립 | 부정 | 매우부정 | 총계 |
|-----|------|----|----|----|------|----|
| 한겨레 | 0 | 0 | 5 | 7 | 3 | 15 |
| 조선 | 0 | 0 | 5 | 2 | 0 | 7 |

기본적으로 한겨레신문 15건, 조선일보 7건이 분석대상이 되었다. 우선 당해 사건의 경우 호텔 내에서의 파업·농성 및 경찰의 호텔진입이라는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농성 및 진압 자체의 양상과 더불어 한국의 대외적 이미지 및 신뢰도 추락 등과 연계되어 보도범위가 확장되었다. 이 사건에서의 주요 논점과 관련하여서는 롯데호텔 노조의 파업·농성에 대한 경찰의 진압 자체 및 경찰의 롯데호텔 노조원 진압의 적절성, 그리고 사건으로 인한 한국의 대외적 이미지 및 신뢰도 영향과 관련해 양 매체가 다른 입장을 보였다. 반면에 경찰(공권력)의 집회·시위 진압에 있어서의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양 매체가 같은 보도태도를 나타내었다. 경찰에 대한 종합적 보도태도에 있어서 한겨레신문의 경우 3.86, 조선일보의 경우 3.28의 보도태도를 보여 보도태도에 있어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우선, 롯데호텔 노조의 파업·농성에 대한 경찰의 진압 자체와 관련하여 한겨레신문의 경우 ‘경찰 마구잡이 연행 (중략) 경찰은 농성 노동자들을 해산시킨 뒤 연행 과정에서도 노조원들을 마구 때려,(중략) 경찰은 강제 진압 소식을 듣고 현장에 온 롯데호텔 노조원과 민주노총 관계자들마저 폭행을 하며 연행했다.’ 7), ‘해머와 망치, 쇠파이프와 절단기 등으로 중무장한 경찰(중략) 임신부를 포함한 70여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경찰이 쏜 섬광탄 파편이 다리에 박힌 사람이 있는가 하면, 휘두른 곤봉에 맞아 머리가 터진 사람도 있었다. 특히 진압경찰관들은 노동자들을 줄 세워 연행하는 과정에서도 발과 곤봉 등을 무자비하게 휘둘러댔고, (중략) 농성장 밖에서도 경찰은 도로변에 10명 이상이 모이면 폭력을 휘두르며 강제 연행에 나섰다. (중략) 경찰의 행태는 '해도 너무

7) 롯데호텔 파업 강제진압, 한겨레/2000.06.30/19면/05판/사회/뉴스

한다'는 비판을 받을 만했다.' 8), '무엇보다 깊이 되새겨야 할 문제는 경찰의 무자비한 강제 진압과 그것이 가져온 엄청난 후유증에 대한 것이다.' 9)와 같이 경찰 진압의 폭력성을 강조하고, 임신부에 대한 진압 등을 언급하며 감정적인 적개심을 일으켰다. 반면, 조선일보의 경우 '연일 계속되는 파업에서 원칙과 기준, 윤리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노조원들은 건물을 점거한 채 사측 대표를 끌고 다니며 폭행하고(후략)' 10)와 같이 노조원들의 폭력성 역시 지적하며 경찰의 과잉진압 부분을 강조하는 기사를 찾을 수 없었다.

롯데호텔 노동조합원 파업·농성에 대한 경찰의 호텔 내 진압의 적절성과 관련하여 한겨레신문은 '우선 롯데호텔노조의 파업은 공공성을 거의 해치지 않았으며, 그럴 가능성도 별로 없었다. 그 호텔에서 자거나 회의를 하는 몇몇 사람이 불편했을 것이다. 은행파업은 경제 전체를 교란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성에 문제를 일으키며, 의사파업은 국민의 생명 전체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심각하게 공공성을 파괴할 가능성이 있었다. 곧 롯데호텔 노동자의 파업은 정당했고, 거의 공공성을 해치지 않았다는 말이다.' 11), '노조 쪽 불법사유가 단지 단체협약 위반이었음을 감안하면 과잉진압 명분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12)와 같이 다른 사건과의 비교와 노조 쪽 불법사유의 위법성 정도를 고려해보았을 때 경찰 진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조선일보의 경우 아래 대외적 이미지 및 신뢰도를 고려하여 경찰력의 투입은 적절하되 호텔 내가 아닌 외부

8) [취재파일] 다시 고개 드는 '폭력 진압', 한겨레/2000.07.03/10면/02판/오피니언·인물/컬럼,논단

9) [사설]롯데 타결에서 얻는 교훈, 한겨레/2000.08.23/04면/01판/종합/사설

10) 파업, 윤리도 원칙도 없다, 조선일보/2000.07.06/사회/27면

11) [야! 한국사회]집단 이기주의와 공공이익, 한겨레/2000.07.18/11면/02판/오피니언·인물/컬럼,논단

12) [사설]파업현장의 거친 두 모습, 한겨레/2000.07.07/04면/05판/종합/사설

에서 진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조를 전개하였다.

해당 사건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대외적 이미지 및 신뢰도 변화에 관련하여 한겨레신문은 ‘귀한 외빈들의 잡음 공해를 줄이기 위해서 자기 나라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정부와 경찰 당국의 추태를 지켜보면서’¹³⁾와 같이 대외적 이미지보다 노동자의 인권이 중요하다고 보도하였다. 반면에 조선일보의 경우 ‘스가와라 도오루(26)씨는 “경찰 진입도 문제지만 노조원들이 특급호텔에서 장기간 파업을 해 외국 관광객들을 골탕먹인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새로 예약한 인근 호텔로 발걸음을 돌렸다. 이사키씨는 “평소 서울이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생각이 바뀌었다”며 “당분간 한국을 방문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¹⁴⁾, ‘세종대 김홍범(김홍범·관광학) 교수는 “단기적으로 볼 때 특급호텔의 파업은 관광 한국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이번 사태를 호텔 서비스 수준과 임금·고용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는 계기로 삼는다면 장기적으로는 관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¹⁵⁾와 같이 외국인 관광객과 국내 전문가 의견의 인용을 통하여 한국의 관광사업 자체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사안으로 다루었다.

정부 및 경찰의 공권력집행 상 형평성과 관련하여 한겨레신문은 ‘폐업을 주도한 일부 의사들만이 처벌을 받는 모양(중략) 롯데호텔에서 생존권 차원의 파업을 벌이다 경찰의 가혹한 진압으로 좌절한 노동자들 처지’¹⁶⁾와 같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였다. 조선일보 역시 ‘한나라당 김

13) [아! 한국사회] 테러적 지배의 사회인가, 한겨레/2000.08.09/11면/02판/오피니언·인물/컬럼,논단

14) 로비 점거한 파업 노·경 격렬 충돌 사고도 없는 호텔 - 손님 배려는 없었다, 조선일보 2000.06.30/사회/31면

15) 뉴스추적 / 잇따른 호텔 파업 파장 - 외국인들 한국관광 취소 급증, 조선일보 /2000.07.13/사회/25면

16) [아침햇발] 잘잘못이 없는 사회, 한겨레/2000.07.06/10면/04판/매체/컬럼,논단

낙기(김락기) 의원은 “롯데호텔 파업진압 때 정부가 ‘음주 진압’에 임산부와 장애인에게 반인륜적 폭력을 저지른 것은 의료대란으로 꺾인 자존심을 힘없는 노동자 탄압으로 만회하려 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17)와 같이 당시 김낙기, 오세훈, 이원형, 신기남, 이종걸, 강숙자 국회의원의 의견을 인용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였다.

2. 부평 대우자동차 노동조합원 폭력진압 사건 (소위 ‘대우차 사태’)

보도기간 : 2001. 01. 01 ~ 2001. 12. 31

검색어 : 대우자동차 경찰

사건개요 | 2001년 4월 17일 무더기 해고통지에 반발한 대우자동차 부평 공장 노조원과 경찰이 충돌하였고, 이후 2001년 4월 20일 대우자동차 부평 공장 노조원과 가족, 민주노총 회원 등 1500여명이 인천 부평역 광장에서 ‘경찰투입 규탄 및 정리해고 분쇄를 위한 결의대회’를 갖고 경찰과 충돌한 사건이다. 사건 이후, 민주노총이 경찰의 폭력 현장을 찍은 비디오를 상영하며 대통령 사과와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자, 경찰도 정확한 진상을 알릴 필요가 있다며 자체 편집한 비디오를 곳곳에 배포하는 등 사건 이후에도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은 17일 대우자동차 노조원에 대한 경찰의 폭력진압 사태와 관련하여 “유감스러워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심정”이라며 ‘사과성 유감’을 표명한 이후 해당 사건과 관련된 경찰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졌다. 당시 경찰은 17일 및 20일에 부상당한 대우차 노조원 77명에게 치료비 전액인 9876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사건이 일단락되었다.

17) 국회 대정부질문 사회·문화 분야, 조선일보/2000.07.15/종합/3면

| | 매우긍정 | 긍정 | 중립 | 부정 | 매우부정 | 총계 |
|-----|------|----|----|----|------|----|
| 한겨레 | 0 | 0 | 11 | 6 | 5 | 22 |
| 조선 | 0 | 3 | 11 | 2 | 1 | 17 |

기본적으로 한겨레신문 22건, 조선일보 17건이 분석대상이 되었다. 우선 당해 사건의 경우 과잉진압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자체에는 양 매체 모두 동의하고 있었으며, 이 부분에 비판적인 보도들이 존재하였다. 다만 한겨레신문이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진압상황 자체에 집중하여, 경찰의 온건하고 합리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논조로 보도가 진행되었다. 조선일보의 경우 과잉진압에 대한 비판보도도 있었지만, 당시 ‘립스틱 라인’, ‘무최루탄 원칙’ 등 지나치게 유화적인 대처로 인하여 화염병 등이 다시 등장하게 되었고,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폭력사태가 발생했다고 진단하여 경찰의 일관적이고 엄정한 법집행이 중요하다는 쪽으로 논조가 전개되었다. 또한, 조선일보의 일부보도에서는 대우자동차 노조원의 불법시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찰이 더 엄정하게 법집행을 해야 한다는 기사까지도 존재하였다. 그 결과 경찰에 대한 보도태도에 있어서 한겨레신문의 경우 3.72, 조선일보의 경우 3.05의 보도태도를 보여 보도태도에 있어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찰의 대우자동차 노조원 과잉진압 자체와 관련하여 한겨레신문의 경우 ‘벌거벗은 대우 조합원들을 갑자기 달려들어 방패와 몽둥이로 개 패듯이 패기 시작하는 젊은 경찰들’¹⁸⁾, ‘우리는 사태를 이처럼 악화시킨 경찰의 폭력진압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중략) 노동자들을 마치 적을 대하듯 방패로 무자비하게 내리찍고 곤봉과

18) 흐린 뒤 맑음/동자의 분노 국민의 분노 , 한겨레/2001.04.24/07면/01판/오피니언·인물/컬럼,논단

발길질로 못매를 가한 것은 도저히 정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정할 수 없다.’ 19), ‘대우캐리어와 울산 효성의 노동자 투쟁에는 경찰이 용역강패까지 동원하여 노동자들을 짓이겨버렸다.’ 20)와 같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 내었다. 조선일보 역시 ‘강제 진압에 나선 경찰이 노조원들을 방패와 곤봉으로 때리고 쓰러진 노조원들을 군화발로 짓밟아 ‘과잉 진압’ 시비를 낳고 있다.’ 21), ‘시위대가 전·의경 12명을 끌고가 무장해제시켜 감정이 격화된 상태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며 이성적인 법집행을 해야 할 경찰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 22)와 같이 비판강도의 차이가 있지만 외형상의 폭력에 대해 비판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해당 폭력진압 사건의 원인과 관련하여 한겨레신문은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의 정리해고 반대 투쟁에 대한 경찰의 폭력진압, 특히 4월10일 비무장의 노동자 시위대에 가한 무자비한 폭력은 국가폭력의 실체를 보여준 것이었다.’ 23), ‘경찰의 '비디오 자의적 편집'에서 보듯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며 얼버무리려는 태도로는 성난 노동계를 달랠 수 없다.’ 24), ‘평행선을 달리던 대우차 노사는 막바지에 무급휴직과 희망퇴직을 서로 받아들여 해결되는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경찰이 공권력을 투입해 꼬이게 만들었고, 경찰지휘체계의 혼선으로 성당경내까지 난입해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5)와 같이 국가공권력 남

19) [사설]대우차 폭력진압 책임 엄히 물어야, 한겨레/2001.04.18/04면/04판/종합/사설

20) [길라잡이]세밑에 생각하는 상처 하나, 한겨레/2001.12.28/11면/01판/오피니언·인물/컬럼,논단

21) 대우차 폭력진압 파문경찰, 때리고 짓밟고... 노동계등서 문책 요구, 조선일보/2001.04.13/사회/31면

22) 사설 - 경찰 왜 갑자기 ‘과잉진압’ ?, 조선일보/2001.04.16/종합/2면

23) [길라잡이]세밑에 생각하는 상처 하나, 한겨레/2001.12.28/11면/01판/오피니언·인물/컬럼,논단

24) [사설]대우차 폭력진압 책임 엄히 물어야, 한겨레/2001.04.18/04면/04판/종합/사설

25) [취재파일]불신 쌓는 공권력 남용, 한겨레/2001.02.24/08면/01판/오피니언·인물/컬

용의 현실과 경찰의 부적절한 태도 및 성급한 법집행으로 진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조선일보의 경우 ‘문제는 시위환경이 바뀌었는데도 ‘겉멋’에 취해 무죄루탄 정책을 무리하게 고집하면서 비롯됐다. 한동안 자취를 감추었던 화염병이 다시 등장하고, 급기야는 시위 현장에서 사제 총탄까지 발견됐지만 경찰은 ‘무늬만 평화’에 매달렸다.’²⁶⁾, ‘그동안 도심에서 화염병과 쇠파이프가 난무해도 ‘인내(인내)진압’ ‘립스틱 라인’ 등 지나치게 유화적인 대처로 공권력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무기력했던 경찰이 갑자기 법을 어겨가면서 폭력진압에 나선 그 ‘표변과 변덕’의 이유를 알 수 없다. 경찰의 법집행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공권력 행사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엄정해야 한다.’²⁷⁾와 같이 당시 김대중 정부에서의 유화일변도의 법집행과 경찰의 집회·시위 진압에 대한 비일관성을 그 원인으로 지적하였다.

또한, 대우자동차 노조원 폭력진압 사건에 대한 당사자 외의 반응과 관련하여 한겨레신문의 경우 ‘폭력진압 현실을 접한 독자들이 국민기자석에 보내온 반응은 한마디로 "충격이었다" "치가 떨린다" "피가 끓었다"는 것이었다.’²⁸⁾, ‘공장 주변을 서성이던 해고자 부인은 머리채를 잡힌 채 다짜고짜 경찰에 끌려갔다. 생일날에 경찰에 잡혀간 여성은 면회 온 남편과 수갑을 차고 면회를 해야 했다.’²⁹⁾와 같이 경찰의 시위진압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여론이나 노동자의 가족 등 시위대 측을 중심으로 반응을 소개하였다. 반면, 조선일보의 경우 ‘재계가 노조의 불법행

럼,논단

26) 태평로 - 이무영의 진짜 책임, 조선일보/2001.04.25/여론·독자/7면

27) 사설 - 경찰 왜 갑자기 ‘과잉진압’?, 조선일보/2001.04.16/종합/2면

28) 여론 나침반/대우노동자 폭력진압 '분노' '정부 공식사과' 목소리 높아, 한겨레/2001.04.20/09면/02판/오피니언·인물/기획,연재

29) [가리사니] 2001년 부평과 인권운동, 한겨레/2001.03.16/11면/01판/오피니언·인물/컬럼,논단

위에 대해 개입을 기피하고 있는 공권력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엄정한 법집행을 강하게 촉구했다. 전경련은 또 “대우자동차 사태 때 초래된 경찰의 폭력행위는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이로 인해 공권력이 무력화돼서는 안되며,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행위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³⁰⁾와 같이 재계 등 불법집회·시위를 비판하는 반응을 보도한 기사 있었으며, 정치권의 반응과 관련해서는 여·야의 의견을 모두 소개³¹⁾³²⁾하여 제3자적 측면에서 논란이 존재하는 사안으로 프레임을 형성하였다.

3. 2002 한·일 월드컵 경호경비

보도기간 : 2002. 01. 01 ~ 2002. 12. 31

검색어 : 월드컵 경찰

사건개요 | 2002년 FIFA 월드컵은 대한민국과 일본 양국이 월드컵의 역사 상 처음으로 공동 개최한 제17회 FIFA 월드컵으로, 2002년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열렸다. ‘새 천년, 새 만남, 새 출발’을 슬로건으로 하였으며, 대한민국과 일본에서 각각 10곳, 총 20개의 도시에서 31일 간 64경기를 치렀다.

당시 2002년 FIFA 월드컵은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제행사 임은 물론 9.11미국테러 이후 고조된 추가테러 위협 등 불안한 국내외 정세 분위기로 인해 정부 및 경찰은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총력을 기울였다. 당시, 경찰은 '안전과 질서'라는 원칙 아래, 축제분위기를 감안한

30) 재계, 불법 파업 강력대응 촉구, 조선일보/2001.05.30/경제/13면

31) 대우차 폭력진압 여야 공방 - “경찰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미수”, “박훈변호사 선동행위도 규명해야” 조선일보/2001.04.17/종합/4면

32) ‘대우차사태’ 여야입장 - 여 “시위대·진압경찰 공동책임”, 야 “폭력 무자비·책임자 처벌”, 조선일보/2001.04.16/정치/5면

유연한 경비라는 운영방식으로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경호·경비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 | 매우긍정 | 긍정 | 중립 | 부정 | 매우부정 | 총계 |
|-----|------|----|----|----|------|----|
| 한겨레 | 0 | 6 | 10 | 4 | 0 | 20 |
| 조선 | 0 | 8 | 9 | 1 | 0 | 18 |

기본적으로 한겨레신문 20건, 조선일보 18건이 분석대상이 되었다. 우선 당해 사건의 경우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방향으로 보도가 진행되었다. 하나는 사전적으로 경찰의 우수한 경호경비 노력 및 시스템과 사후적으로 성공적이고 안전하게 행사가 종료된 것에 대한 긍정적 평가로써 전반적으로 긍정적 보도태도를 나타내었다. 나머지 하나는 경찰의 성공적인 월드컵 경호경비를 이유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특히, 집회·시위에 대한 대응이 빈도 및 강도에 있어서 상승한 것에 대한 평가였다. 이 때 한겨레신문의 경우 이러한 경찰의 대응에 대하여 부정적인 보도태도를 보였다면, 조선일보의 경우 그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해 피력하며, 긍정적인 보도태도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한겨레신문 역시 경찰의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에 대한 긍정적 보도가 전체적으로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결과 최종적 보도태도는 2.90로써 중립(3)을 기준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도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조선일보는 2.61로써 한겨레신문보다 더 긍정적인 태도를 견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내집단 및 외집단에 대한 프레임의 변화로 인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다른 사안의 경우 조선일보는 보수진영을, 한겨레신문은 진보진영을 표방하여 양 매체가 서로를 외집단으로 인식하고, 보수와 진보라는 각 집단을 대변하는데 집중하였다면, 월드컵의 경우 보수와 진보할 것 없이 세계적 행사 속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커다란 내집단 의식이 형

성되었고, 그 결과 대한민국 내 국민, 정부기관, 민간 등에 대하여 모두 긍정적 보도태도를 보이게 된 것으로 해석된다.

위 분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경찰의 우수한 경호경비 시스템 및 노력과 관련해 한겨레신문은 「월드컵에 땀흘린 이들에게」라는 헤드라인과 함께 경호와 경비를 책임진 군과 경찰에 긍정적으로 평가³³⁾하거나 ‘월드컵 성공을 위해 음지에서 고생한 경찰관, 소방관이나 소년소녀 가장, 장애인 등을 초청했다라면 평생 잊지 못할 추억으로 간직했을 터이다.’³⁴⁾, ‘히딩크 감독, 선수들, 붉은 악마, 경찰, 환경미화원, 자원봉사자 등 이 대회를 성공으로 이끈 모든 이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³⁵⁾와 같이 경찰을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칭찬하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조선일보 역시 ‘경찰은 최상의 경비와 치안을 담당할 6600여명의 경찰력을 집중 배치키로 했다. (중략) 시설의 안전 여부에 대해서도 빈틈 없는 점검을 펴고 있다.’³⁶⁾, ‘그러나 우리의 축제 뒤에는 질서와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수천명의 경찰 (중략) 우리들의 시선이 전광판을 향해 있을 때 이들(경찰)의 눈은 여러분을 향해 있습니다. (중략) 이기면 기쁨에 겨운 사람들 때문에, 지면 패배에 상심한 시민들 때문에 경찰들은 또 고단한 업무를 개시합니다.’³⁷⁾, ‘경찰의 대응은 신속했다. (중략) 경기 후에는 차도를 누비며 ‘거리축제’를 벌이는 시민들의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해 잠시도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³⁸⁾, ‘당국의 설명을 들어보면

33) [데스크 칼럼] 월드컵에 땀흘린 이들에게, 한겨레/2002.05.30/07면/08판/오피니언·인물/컬럼, 논단

34) [사설] 남은 축구표 그늘진 곳에 돌렸더라면, 한겨레/2002.05.22/18면/07판/사회/뉴스

35) [사설] 지구촌 축제는 끝나고, 한겨레/2002.07.01/04면/04판/종합/사설

36) 대구 3·4위전 가장 안전한 축제로 - 경찰병력 6600명 투입 ‘유종의 미’ 자신감 보여, 조선일보/2002.06.28/대구/23면

37) 독자와의 대화 / 경찰·119구조대·환경미화원들월드컵 ‘13번째 대표선수’, 조선일보/2002.06.22/사외보/56면

38) 독자와의 대화 / ‘13번째 선수’ 경찰·공무원·환경미화원, 조선일보/2002.06.18/

외형상 안전시스템은 잘 갖춰진 느낌이다.’ 39), ‘혹시 있을지 모르는 위험물질 누출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40)와 같이 경찰의 구체적 노력과 노고를 칭찬하거나 경찰활동 전반에 대하여 긍정적인 보도태도를 나타내었다.

다만, 경찰의 성공적인 월드컵 경호경비를 이유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특히, 집회·시위에 대한 대응이 빈도 및 강도에 있어서 상승한 것과 관련해서 한겨레신문은 「헌법 위 월드컵 비판 목소리」와 같이 국제적 행사가 국민의 기본권보다 중요한 것인가라는 비판⁴¹⁾을 제기하였고, ‘불법폭력 시위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집회를 금지통고한 경우는 2001년 1건인 데 반해, 2002년에는 150건으로 크게 늘어났으며, 신고가 필요 없는 1인 시위까지 경찰이 제한하거나 시위자를 연행한 것으로 드러났다.’⁴²⁾, ‘경찰이 단식 장소를 봉쇄함으로써 엄마를 만나러 온 아이들이 유리창 너머로 얼굴만 바라보는 비극이 벌어지기도 했다.’⁴³⁾, ‘경찰이 올해 월드컵축구대회와 각종 선거를 앞두고 집회, 시위에 대한 강경대응 방침을 정하고 경찰과 사소한 몸싸움을 벌이는 시위자도 현장에서 붙잡아 즉결심판에 넘기겠다고 밝혀 시민·노동 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⁴⁴⁾와 같이 과잉대응으로 평가하거나 과잉대응으로 평가하는 단체 및 개인의 의견을 전달하는 모습을 보여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조선일보의 경우 ‘경찰이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사외보/71면

39) [사설] ‘월드컵 안전’ 믿을 만한가, 조선일보/2002.05.27/대구/27면

40) 인천경찰청 하용철 월드컵기획계장-“안전 월드컵 책임지겠습니다”, 조선일보/2002.03.23/인천 25면

41) "헌법 위 월드컵" 비판 목소리, 한겨레/2002.06.09/15면/07판/사회/뉴스

42) “월드컵때 집회금지 2.6배 늘어”, 한겨레/2002.07.24/14면/06판/사회/뉴스

43) [사설] 월드컵에 묻힌 노동자들의 눈물, 한겨레/2002.06.22/04면/04판/종합/사설

44) 경찰 ‘월드컵 대비 시위 강경대처’ 지시 / 시민단체 ‘기본권 침해’ 반발, 한겨레/2002-01-12/18면/04판/사회/뉴스

통에 불법시위와 농성이 일상화되다시피한 가운데 거리질서는 매우 어지러워졌고 (중략) 우리 경찰은 지구촌 유일의 분단체제 속에서 냉전 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나라의 국내치안을 담당하는 공조직이다. 외국경찰보다 훨씬 일이 많고 책임도 무거운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래에는 치안 상태가 다른 나라에 비해 양호하다는 평을 들어왔다. 경찰관들이 헌신적으로 봉사한 결과임은 물론이다. 그같은 제대로 된 경찰로 하루빨리 되돌려 놓아야 한다.’ 45)와 같이 불법시위 등에 대해 더 엄정히 대처해야 한다는 기조 아래 경찰의 강화된 집회시위 통제를 긍정적으로 보도하고 있었다.

다만, 집회시위에 대한 대응이 아닌 일반적인 경찰활동과 관련해 조선일보가 ‘경기장 주변에 배치된 한국 경찰은 너무 예민한 것 같다. 테러 위험성 때문인지는 몰라도 교통경찰이나 안내요원들이 지나치게 경직돼 있는 듯했다.’ 46)와 같이 테러방지 등의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조금 예민하고 경직적으로 경찰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를 표하는 보도도 존재하였다.

4. 전북 부안군 위도 핵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사건

(소위 ‘부안 방폐장’ 사건)

보도기간 : 2003. 01. 01 ~ 2003. 12. 31

검색어 : 부안 경찰

45) [사설] ‘불법점거자’ 도 조사 못하는 경찰, 조선일보/2002.02.23/종합/2면

46) [월드컵 칼럼]이기든 지든 자랑스럽게, 조선일보/2002.06.14/여론·독자/9면

사건개요 | 2003년 7월14일 김종규 전북 부안군수가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유치 신청서를 정부에 단독 제출하여 전북 부안군 위도가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부지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부안 주민들은 주민 동의를 구하지 않은 김군수의 비민주적 신청과정과 원전센터의 안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핵폐기장 백지화 범부안군민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후 100일 넘게 촛불집회를 열었으며, 서해안 고속도로 점거와 격포-위도 간 해상 시위·부안예술관 등 관공서 방화 등 격한 투쟁으로 유치 계획의 백지화를 요구하였으며, 군수 폭행 사건까지 발생하였다. 이에 정부도 8천명의 경찰인력을 부안지역에 상주시키는 등 사태가 악화되었다. 이후 정부는 절차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부안 주민들에게 사과했고, 다른 지역의 유치신청을 받은 뒤 부안과 함께 주민투표를 실시해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유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사건이 진정되었다. 2004년 2월 14일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건립에 대한 부안군 주민 찬반 투표의 실시 결과, 이 투표에서 반대(91%)가 압도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위도 핵폐기장 건립이 무산되었다.

| | 매우긍정 | 긍정 | 중립 | 부정 | 매우부정 | 총계 |
|-----|------|----|----|----|------|----|
| 한겨레 | 0 | 1 | 13 | 2 | 3 | 19 |
| 조선 | 0 | 5 | 10 | 2 | 0 | 17 |

기본적으로 한겨레신문 19건, 조선일보 17건이 분석대상이 되었다. 우선 당해 사건에 대한 전반적 보도태도와 관련하여 한겨레신문을 진보신문으로, 조선일보를 보수신문으로 평가하는 기존의 연구결과에 부합하는 보도양상을 나타내었다. 부안군 위도의 핵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타당성과 관련하여 한겨레신문의 경우 절차적 미비 등을 이유로 비판위주의 보도를 내보냈다면 조선일보는 전라북도 의사·약사·치과의사·한의사회 회장단

의 의학적 소견을 인용해가며 핵폐기물처리장의 안정성과 부안군 위도 입지선정의 타당성을 피력⁴⁷⁾하였다. 이 외에도 입지선정을 추진하는 정부의 태도와 부안군수폭행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도 양 신문은 다른 태도를 견지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찰에 대한 언론의 보도태도 역시 극명하게 갈라졌다. 우선, 각 신문의 종합적 보도태도를 살펴보면, 한겨레신문이 3.36, 조선일보가 2.82로써 극명한 차이를 나타내었을 뿐만 아니라 중립을 기준으로 그 방향성도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방향성 차이의 원인은 집회시위의 폭력성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집회시위의 진압과 관련하여 용산사건과 같이 집회시위 측은 사회적 약자, 경찰은 공권력을 집행자로서 강자라는 프레임이 기본적으로 설정된다. 그러나 해당 사건의 경우 군수폭행, 시위도구로써 쇠파이프, 쇠갈퀴, 화염병, 염산 사용 등 그 시위방법의 잔혹성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프레임을 무너진 상황에서 양 신문이 자신의 입장에 따라 보도태도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흥미로운 사실은 한겨레신문과 조선일보 모두 경찰에 대한 비판적 보도가 다수 존재하였으나 그 비판의 내용 및 근거가 근본적인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었다. 한겨레신문의 경우 ‘전경들이 시위자들을 무차별로 방패로 찍고 곤봉을 휘둘러 술한 주민들이 피를 흘리고 다쳤다.’⁴⁸⁾, ‘길바닥에 쓰러진 시위 참가자에게 달려들어 발로 차고 방패로 머리를 찍고, 무방비 상태 노인의 머리를 곤봉으로 내리쳐서 실신시킨 경찰은 어느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다.’⁴⁹⁾, ‘무려 7천명 이상의 전투경찰이 부안 곳곳에서 군민들의 시위와 집회를 무자비하게 진압하고 있는 것이다.’⁵⁰⁾와

47) “核폐기장 반대” 7천여명 군청앞 대치부안주민·경찰 충돌… 100여명 부상, 조선일보/2003.07.23/사회/A8면

48) [아침햇살] 부안, 참여정부의 ‘5월 광주’?, 한겨레/2003.11.25/26면/01판/오피니언·인물/컬럼,논단

49) [시평] 경찰의 폭력은 무조건 정당한가, 한겨레/2003.11.22/27면/02판/오피니언·인물/컬럼,논단

같이 경찰을 무자비하고, 폭력적으로 묘사하면서 이에 대해 비판보도를 내보냈다. 그러나 조선일보의 경우 ‘경찰은 있는지 없는지 폭력을 선동하는 사람들이 매일같이 버젓이 시위에 나타나 이를 주도하고 있다.’⁵¹⁾, ‘연일 계속되는 과격폭력 시위에 대한 경찰의 미온적 대응의 복합적인 결과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⁵²⁾와 같이 과격폭력시위를 적절하게 진압하지 못하는 경찰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어 양 신문의 비판 논거가 근본적으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시위 및 시위진압의 결과에 대한 해석과 관련하여 한겨레신문의 경우 상기에서 제시한 보도와 같이 주민 측, 시위대 측의 피해만을 중점적으로 보도하거나,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부안 주민, 응급의학과 전문의 등 시위대 측을 옹호하는 전문가들의 의견만을 종합하여 보도한 기사가 있었다. 하지만 조선일보의 경우 ‘공권력은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있다. 올해 시위과정에서 파손된 경찰장비는 10월까지 1741건으로 작년 한 해(273건)의 6배가 넘었다.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와 종로 등에서 열린 농민대회에서만 경찰버스가 21대나 파손됐다. 연일 이어지는 시위 진압은 민생치안이나 방법보다 경찰의 우선 업무가 됐다.’⁵³⁾, ‘시위대가 전경 등 5000여명이 저지하는 군청 진입을 시도하면서 시위대를 이끌던 1.5 t 방송트럭에 전경 3명이 치여 다리 골절 등 부상을 입었다. 시위대는 또 군청을 향해 돌, 보도블록, 쇠파이프 등을 던져 유리창 80여장과 쓰레기 수거차 등 6대가 부서졌다.’⁵⁴⁾와 같이 경찰의 피해를 중점적으로

50) 왜냐면 토론 / 부안은 ‘녹색 광주’, 한겨레/2003.09.25/16면/01판/오피니언·인물/컬럼,논단

51) [사설]金 郡守가 주저앉아 린치당할 때 대통령과 行自부장관은 어디 있었나, 조선일보/2003.09.10/여론·독자/A19면

52) 폭력사태 오기까지..., 조선일보/2003.09.10/종합/A3면

53) [폭력시위에 나라가 명든다] <1> 무너진 공권력..전경들 “목숨 내놓고 전투”, 조선일보/2003.11.22/종합/A1면

54) “核폐기장 반대” 7천여명 군청앞 대치부안주민·경찰 충돌... 100여명 부상, 조선일보

로 언급하거나 사회에 대한 해악을 중점적으로 보도하였다. 뿐만 아니라 조선일보는 인용에 있어서도 한겨레신문과 달리 경찰병원 인턴의 인터뷰로 ‘기자와의 통화에서 “아무런 죄도 없이 매일 다쳐서 들어오는 전·의경들의 현실이 마스크에서 외면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에 이런 글을 올렸다”며 “시위문화가 평화적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중략) “여러분이 가만히 시위하시면 전·의경들이 달려들어서 절대로 방패로 찍지 않는다. (중략) 이들이 무슨 죄가 있는가? 왜 각목·쇠파이프·낫·죽창이어야 하는가?”라고 말했다.’⁵⁵⁾와 같이 인용함으로써 경찰 측 피해의 심각성 및 시위대의 폭력성을 강조하였다. (단, 한겨레신문에 기고형태를 통하여 ‘경찰들도 한 집안의 가장이요, 아들들입니다. 더 이상 피를 흘리는 폭력시위는 없어야겠습니다.’⁵⁶⁾라고 보도해 경찰 측 피해를 전달하는 기사가 한 건 있었다.)

5. 부유층 노인 및 출장마사지 종사 여성 연쇄살인사건 (소위 ‘유영철’ 사건)

보도기간 : 2004. 01. 01 ~ 2004. 12. 31

검색어 : 연쇄살인 경찰

사건개요 | 유영철이 서울지역 부유층 노인들을 살해하고 전화망과 출장마사지 일을 하는 여성 등 모두 21명을 연쇄살인한 사건이다. 구체적으로, 2003년 9월 24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숙명여대 명예교수 이은옥(72세)과 부인 이덕(67세)을 살해했으며, 그해 10월에는 9일에 종로

/2003.07.23/사회/A8면

55) 경찰병원 인턴, 인터넷에 호소문 “제발 전·의경 얼굴 때리지 마세요”, 조선일보 /2003.11.26/사회/A9면

56) 왜냐면 토론/존경하는 부안군민께-반론/, [한겨레] | 2003-11-27 | 25면 | 01판 | 오피니언·인물 | 컬럼, 논단

구 구기동에서 강은순(82세) 등 일가족 3명을, 16일에 강남구 삼성동에서 유준희(60세)를 살해했다. 2003년 11월 18일 화요일에는 종로구 혜화동에서 김종석(87세) 등 2명을 살해했고, 2004년 4월에 노점상 안재선(44세)을 살해하고 시신을 월미도에 버렸다. 이에 앞서 2004년 3월부터 그해 7월까지의 마포구 노고산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한숙자, 고선희, 우주연, 김미영, 임미연(27세) 등 2004년 한 해 동안 여성 11명을 살해하였다.

유영철은 2004년 7월 18일 경찰에 체포되었고, 이후 2004년 8월 13일 구속 기소되어 이문동 살인사건을 제외한 20명에 대한 살인이 인정돼 1심재판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다. 이후 유영철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05년 6월 13일 대법원은 유영철의 상고를 기각하고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 | 매우긍정 | 긍정 | 중립 | 부정 | 매우부정 | 총계 |
|-----|------|----|----|----|------|----|
| 한겨레 | 0 | 0 | 12 | 4 | 2 | 18 |
| 조선 | 0 | 0 | 8 | 4 | 0 | 12 |

기본적으로 한겨레신문 18건, 조선일보 12건이 분석대상이 되었다. 해당 사건의 경우 경찰이 연쇄살인사건에 대한 수사를 토대로 해당 피의자를 검거한 것이 아니라 우연한 기회에 다른 범죄사유로 경찰에 입건되었고, 조사과정에서 해당 범죄사실들을 털어놓음으로써 경찰의 수사 상 한계가 지적되어 부정적 보도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또한, 피의자에 대한 조사 및 현장검증을 마치고 검찰에 피의자를 호송하던 중 서울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의자에게 양산을 들어 폭행을 시도하려다 호송경찰의 발에 맞아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경찰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조성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다만, 언론의 보도태도와 관련해서

는 한겨레신문이 3.44, 조선일보가 3.33으로써 한겨레신문이 좀 더 부정적태도를 나타내었다.

구체적으로 해당 연쇄살인 범죄에 대한 진단에 있어서 한겨레신문의 경우 ‘범죄의 대담성·치밀성과 극적인 대비를 이루는 경찰 수사의 구태의 연합이다, 나날이 황포하고 복잡해지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주어야 할 경찰의 무능함이다.’⁵⁷⁾과 같이 해당 연쇄살인에 있어서 경찰의 책임이 막중하며, 이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었다. 다만, 조선일보의 경우 ‘이번 연쇄살인은 파탄난 한 인간이 자신의 불행을 막연하게 남의 탓, 구조 탓으로 돌리는 데서 빚어진 범죄였다는 점에서 모든 탓을 밖으로만 돌리려 하는 것 같은 요즘 사회 분위기가 걱정스럽기도 하다.’⁵⁸⁾와 같이 해당 사건 피의자의 개인적인 도덕성의 문제 혹은 사회적인 분위기를 지적하고 있어 전자와 대비된다. 물론, 전술한 바와 같이 양매체 모두 경찰의 수사상 한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며 조선일보 역시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범죄 수법이 갈수록 잔인해지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무차별 방식으로 진행되는 등 범죄경향이 바뀌고 있으나, 경찰 수사는 피해자 주변 탐문에 의존하는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속칭 ‘묻지마’ 범죄에 대해 경찰 수사력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⁵⁹⁾

또한, 피의자 송치과정 중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의자에게 달려드는 상황에서 호송경찰이 피해자의 어머니를 발로 찬 사건과 관련해 한겨레신문의 경우 ‘서울의 한 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인 정씨는 “경찰이 지난 1월에

57) [사설]경찰은 범인 진술만 바라보나, [한겨레] | 2004-07-20 | 23면 | 01판 | 오피니언·인물 | 사설

58) [사설]살인기계와 함께 섞여 사는 사회, 조선일보 2004.07.19 / 여론/독자 A31 면

59) [경악! 희대의 살인마] 범인에 조롱당한 경찰 수사, 조선일보 2004.07.19 사회 A10 면

유씨를 잡았다가 놓치지만 앓았어도 내 딸이 그렇게 되지는 앓았을 것”이라며 “딸을 잃은 것도 서러운데 경찰에 발길질까지 당해야 하느냐”고 분통을 터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60), ‘연쇄살인범에 희생된 한 피해자의 어머니가 경찰의 발길질에 뒤로 나뒹굴었다. 경찰 스스로 소명의식이 얼마나 천박한지를 내보였다면 지나친 말인가.’ 61)와 같이 피해자의 어머니가 해당 사건에 대해 분노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도하고, 앞뒤 맥락이 생략된 채 단순히 형사가 피해자의 어머니를 폭행한 것처럼 보도하였다. 반면, 조선일보의 경우 피해자 어머니와의 인터뷰를 다음과 같이 인용하면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해당 형사에 대해 용서를 구한다고 보도하여 기본적인 사실관계에서 차이를 나내고 있었다. (“당시엔 억울했지만… 그 사람도 그게 직업이잖아요. 내가 딸 복수하려고 간 것이지 형사들 목 자르려고(그만두게 만들려고) 갔겠어요? (징계 운운하는 이야기가) 대체 뭘 소리들 하는지 이해가 안가네. 용서해 줬으면 좋겠어요.” 62)) 또한, 조선일보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 어머니 측 입장이나 국민의 여론만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경사는 “경찰은 피호송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뽕족한 물건을 들고 갑자기 뛰쳐나와 순간적으로 방어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아줌마가 피해자 어머니이고 손에 든 물건이 양산인 것을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앓았을 것”이라며 “사과드려야 마땅할 것 같다”고 했다.’ 63)와 같이 해당 형사의 입장을 소개함으로써 양 측의 입장을 균등하게 제시하였으며, 해당 형사의 본래 의도

60) 연쇄살인범 유씨에 접근하던 희생자 어머니에게 발길질한 경찰, 한겨레/2004.07.27/09면/06판/사회

61) [사설]한맺힌 모정에 발길질한 경찰, 한겨레/2004.07.28/23면/04판/오피니언·인물/사설

62) 발길질 봉변당한 어머니 “당시엔 억울… 용서합니다”, 조선일보/2004.07.30/사회/A10면

63) ‘피명 든 가슴’에 경찰이 발길질, 조선일보/2004.07.27/사회/A10면

를 전함으로써 국민적 비판의 가능성을 낮추었다.

6. 여의도 농민집회 ‘전용철’ 사망사건

보도기간 : 2005. 01. 01 ~ 2005. 12. 31

검색어 : 전용철 경찰

사건개요 | 2005년 11월 15일 열린 "쌀협상 국회비준저지 전국농민대회' 중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입구에서 전용철씨와 경찰이 시위 중 충돌하였으며, 이후 24일 새벽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이다. 이에 대해 전국농민회총연맹은 경찰의 폭력진압으로 인해 전씨가 사망한 것으로 주장하였으나, 경찰은 전용철씨가 시위 참가 이후 집으로 돌아가던 중 넘어졌고, 이로 인해 뇌출혈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반박하였다. 이에 대해 전국농민회총연맹과 경찰은 24일 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속 의사들과 검사,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선임한 내과 의사가 참석한 가운데 전씨 시신을 부검하였다. 부검에 참석한 의사들은 사망원인으로 '두부손상에 의한 두개골 파열과 뇌손상'으로 의견일치를 보였으나 경찰과 전국농민회총연맹 양 측의 주장 한 쪽을 절대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근거는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12월 언론의 비판적 보도와 여론의 반향으로 인해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사과와 허준영 경찰청장의 사퇴가 이루어졌다.

| | 매우긍정 | 긍정 | 중립 | 부정 | 매우부정 | 총계 |
|-----|------|----|----|----|------|----|
| 한겨레 | 0 | 0 | 6 | 5 | 3 | 14 |
| 조선 | 0 | 0 | 8 | 0 | 0 | 8 |

기본적으로 한겨레신문 14건, 조선일보 8건이 분석대상이 되었다. 해당

사건에서 양 매체의 보도태도를 살펴보면 한겨레신문이 3.78, 조선일보가 3.00으로써 매우 큰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이러한 차이는 기사의 보도방향, 표현 등 세부적인 부분에서 더 극명하게 나타났다.

우선, 전용철 사망사건 수사전반과 관련하여 한겨레신문의 경우 ‘이를 두고 검찰,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국무총리실까지 나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최종 결과는 안 나왔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과 증언, 정황 등으로 볼 때 두 농민의 사망은 시위 진압과 관련이 있는 게 분명한 듯하다.’⁶⁴⁾, ‘경찰의 발빠기식 자체수사는 유족과 농민들의 분노만 키웠다.’⁶⁵⁾와 같이 최종수사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스스로 수사결과를 확정짓거나 표현 등에 있어서 부정적 태도를 일관적으로 견지하였다. 반면, 조선일보의 경우 수사진행상황을 사실전달 형태도 보도⁶⁶⁾하거나 수사결과에 대한 경찰과 시위대 측의 의견을 모두 제시⁶⁷⁾하여 중립적 입장을 견지하였다.

특히, 전용철 사망 원인에 대한 부검 결과에 있어서 한겨레신문의 경우 여러 개인 및 단체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도하는 듯한 형식을 사용하였지만 ‘전용철 농민 살해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 사망한 전 씨를 옹호하는 농민회원, 인도주의실천 의사협의회 등 모두 경찰에 비판적인 의견만 모아서 제시⁶⁸⁾하였다. 반면에 조선일보의 부검결과보도의 경우 진압이 직접적 원인이 아니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당시 ‘서중석 소장’) 등의 의견 둘, 진압이 중대한 원인일 수 있다는 서울대 법의학팀 등의 의견 둘을 번갈아 제시⁶⁹⁾하였다.

64) [현장에서]경찰 수사권과 ‘농민사망’ 수사의지, 한겨레/2005.12.20/03면/06판/종합/컬럼,논단

65) [사설]경찰청장 물러나야, 한겨레/2005.12.20/31면/06판/오피니언·인물/사설

66) 경찰 강경진압 ‘시위농민 사망’ 파문 확산, 조선일보/2005.12.20/사회/A8면

67) 重傷 시위 농민 끝내 숨져, 조선일보/2005.12.19/사회/A10면

68) 전용철씨 농민집회서 쓰러진 사진 나왔다, 한겨레/2005.11.28/09면/06판/사회

가장 양자간의 차이가 크게 발생한 것은 경찰청장의 향후 거취와 관련한 것이었다. 이는 전용철 사망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를 인정하느냐, 부정하느냐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었다. 당시 허준영 경찰청장의 사퇴여부와 관련하여 한겨레신문은 ‘대통령 위에 경찰청장’이라는 헤드라인과 함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최근 급속승진 범위를 경위로까지 확대한 경찰공무원법은 다른 기관 공무원들과의 형평성을 도외시킨 조직이기주의의 산물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국회에서 열린 수사권 조정 관련 공청회에 경찰관 1천여명이 무더기로 몰려가 세를 과시한 일도 있었다. 총수가 이러니 조직이 온전하겠는가?’⁷⁰⁾와 같이 해당 사건과 무관한 사안을 당시 경찰청장의 문제로 연결시키면서까지 사퇴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에 반해 조선일보의 경우 ‘경찰총수가 물러나지 않겠다고 했다면, 그는 자신의 남은 임기를 폭력시위와 강경진압의 악순환을 끊는 데 바치겠다는 결의를 가져야 할 것이다.’⁷¹⁾와 같이 이에 대해 우호적 혹은 중립적 입장을 견지하였다.

또한, 경찰청장의 거취와 관련한 경찰 내부의 반응을 분석함에 있어서도 한겨레신문의 경우 ‘중하위직 경찰관들은 의견이 갈리고 동요하는 모습을 보였다. 허 청장이 수사권 조정이나 경찰공무원법 개정 등의 문제에서 경찰의 위상과 자존심을 세웠다고 평가하는 경찰관들은 내부통신망에 “청장님에게 격려를 보내자”는 등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경찰 일각에서는 허 청장이 정치권이나 여론의 반발을 무릅쓰면서 자리를 지킬 경우, 수사권 조정 등 현안이 경찰 쪽에 불리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⁷²⁾와 같이 내부에 동요가 있거나 의견대립이 있는 것으로 보도하

69) “숨진 농민 田씨 팔에 外力의한 상처”, 조선일보/2005.12.01/사회/A8면

70) [현장에서] 대통령 위에 경찰청장?, 한겨레/2005.12.28/03면/06판/종합/컬럼, 논단

71) [사설]합법 시위 최대 허용, 불법 시위 엄정 대처가 解法, 조선일보/2005.12.28/여론·독자/A31면

였다. 이에 반해 조선일보의 경우 ‘역대 경찰총수의 경우 큰 현장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했던 전례가 적지 않다. 이런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허 청장이 ‘마이 웨이(My Way)’를 외치고 나선 배경에는 경찰 내부의 튼튼한 지원이 있다.’⁷³⁾와 같이 경찰은 청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식의 보도를 내보냈다.

7. 서울 서남부 연쇄살인사건 (소위 ‘정남규’ 사건)

보도기간 : 2006. 01. 01 ~ 2006. 12. 31

검색어 : 연쇄살인(정남규, 서남부 추가 검색), 경찰

사건개요 | 해당 사건 피의자 정남규(1969년 3월 1일 ~ 2009년 11월 22일)는 지난 2004년 1월부터 2006년 4월까지 서울 영등포·관악·구로구, 경기 부천·군포시에서 여성·노약자 등 14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이다. 구체적으로 2004년 1월, 경기도 부천시에서 초등학교 2명을 납치, 성폭행 한 뒤 살해한 것을 비롯하여,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일대를 돌아다니며 심야에 귀가하는 여성들을 무차별적으로 살해하거나 거주지에 침입하여 살인과 방화를 함께 저지르는 등 연쇄살인 행각을 벌였다.

2006년 4월 22일 새벽 다른 남성과의 싸움 중 주민 신고로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으며, 이문동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밝혀졌다. 2006년 6월 7일에 구속 기소되어, 9월 21일에 정남규는 살인 등의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고, 2007년 4월 12일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되어 서울구

72) 거세지는 사퇴론 “곤혹스럽네”, 한겨레/2005.12.29/03면/06판/종합/뉴스

73) 버티는 경찰청장許청장 “물러나야 책임지는 건 아니다”, 조선일보/2005.12.28/종합/A5면

치소에 수감되었다. 그러나 2009년 11월 21일 오후, 구치소 독방에서 목을 매 자살을 기도한 것을 교도소 근무자가 발견하여 병원으로 옮겼으나, 다음날 새벽 사망했다.

| | 매우긍정 | 긍정 | 중립 | 부정 | 매우부정 | 총계 |
|-----|------|----|----|----|------|----|
| 한겨레 | 0 | 0 | 6 | 1 | 0 | 7 |
| 조선 | 0 | 0 | 3 | 0 | 0 | 3 |

기본적으로 한겨레신문 7건, 조선일보 3건이 분석대상이 되었다. 양 매체의 보도태도와 관련해서는 한겨레신문이 3.14, 조선일보가 3.00으로 나타났지만 분석대상 기사 수가 매우 적어 의미 있는 수치라고 보기 어렵다. 양 매체의 보도태도에 차이가 난 원인은 한겨레신문에서 한 개의 비판 기사를 보도한 까닭이다. 한겨레신문은 경찰이 사건 피해자의 아버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보험금을 노려 친 딸을 살해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한 것에 대해 ‘김씨에게 상처를 준 것은 범인만이 아니다.’⁷⁴⁾고 비판하였다.

따라서, 이 외에 양 신문의 보도태도 차이를 분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인다. 다만,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양 신문 모두 수원 납치토막살인사건(이하 ‘오원춘’ 사건)과 서울 서남부 연쇄살인사건(이하 ‘정남규’ 사건)의 보도빈도에서 급격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정남규’ 사건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여에 걸친 연쇄살인임에도 연구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보도 검색기간을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로 설정한 결과 검거 이후의 수사보도에 한정되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오원춘’ 검거 이후의 보도빈도와도 확연히 차이가 난다.

74) 사건 그 후/ ‘서남부 연쇄살인범’ 에 두 딸 잃은 아버지, 한겨레/2006.12.21/10면/05판/사회/뉴스

‘오원춘’ 사건의 경우 항고심 판결에서 ‘범죄의 잔혹성은 인정되나 인육 및 장기밀매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1심 판결의 명확한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추가 혐의를 도출하지 못한 바’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다. 이에 반해 ‘정남규’ 사건의 경우 3년여에 걸쳐 총 14명을 살해하였으며, 법원 역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하였다. 즉, 객관적인 범죄의 심각성과 중대성은 ‘정남규’ 사건이 더 크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오원춘’ 사건에 대해 압도적으로 많은 보도를 내보낸 것은 1) ‘토막 살인’이라는 범죄의 잔혹성이 선행연구에서 검토한 언론의 선정주의에 부합하였고, 2) 외국인체류자에 대한 민족적 배타주의와 결합하기 쉬웠으며, 3) 경찰의 명백한 실책에 대해 국가(정부)에 대한 불신 혹은 분노가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된다. 즉, ‘텔런트 고 장자연 성상납 의혹 사건’에서 나타난 언론의 모습과 마찬가지로 언론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안의 객관적 중요성을 판단하여 보도빈도, 보도방식을 결정한다기보다 국민의 여론 혹은 당해 신문사의 이해관계에 의해 보도가 상당부분 좌지우지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었다.

8. 김승연 한화그룹회장 보복폭행사건

보도기간 : 2007. 01. 01 ~ 2007. 12. 31

검색어 : 한화 김승연 경찰

사건개요 | 2007년 3월 8일 07:00 서울 강남구 청담동 내 주점 계단에서 김승연 회장의 차남 김씨가 술집 종업원 윤씨 등 일행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윤씨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안면부 심부열상을 입게 되었다. 그러자 3월 8일 오후 김승연은 경호원 17명을

대동하고 자신의 아들과 몸싸움을 벌인 술집 종업원 윤씨 등을 청계산으로 끌고 가 쇠파이프 등을 이용해 폭행을 가하고, 전기충격기 등으로 위협한 사건이다.⁷⁵⁾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이로 인해 보복 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판사:김철환)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법원(판사:김득환)은 김승연 회장에 대해 징역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하여 풀려났다. 이러한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국민의 법감정이 악화되었으며, 이외에 한화그룹의 경찰청장(당시 ‘이택순’) 등에 대한 로비 의혹, 감싸기 수사, 누장수사까지 문제되면서 현행 법치주의 적용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 되었다.

| | 매우긍정 | 긍정 | 중립 | 부정 | 매우부정 | 총계 |
|-----|------|----|----|----|------|----|
| 한겨레 | 0 | 0 | 17 | 6 | 2 | 25 |
| 조선 | 0 | 2 | 17 | 3 | 0 | 22 |

기본적으로 한겨레신문 25건(203건의 검색기사 중 정확도 80% 이상의 기사로 한정), 조선일보 22건(136건의 검색기사 중 세 번째 간격으로 계통표본추출)이 분석대상이 되었다. 우선 해당 사건의 경우 사건의 진행에 따라 언론의 보도태도가 다르게 진행되었다. 양 매체 모두 사건 초기에는 재벌회장의 보복폭행사건이라는 특수성에 초점을 맞추고 경찰수사에 대해서는 중립적으로 보도(일부 긍정적 보도)하는 경향이 짙었다. 그러나 사건 후기에는 한화그룹의 경찰청장 등에 대한 로비 의혹, 감싸기 수사, 누장수사, 이택순 청장 사퇴여부 등의 문제로 중심점이 옮겨가 부정적 보도가 주를 이루었다. 다만, 이러한 시기별 보도패턴은 달랐으나 종합적 보도태도의 경우 한겨레신문이 3.40, 조선일보가 3.23으로 한겨레신문이

7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단2779

좀 더 부정적 보도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경찰 수뇌부의 사건 은폐·축소 의혹과 관련하여 한겨레신문의 경우 ‘법질서 유지의 최일선에 선 경찰 조직이 송두리째 재벌 총수 앞에 납작 엎드려,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해 버린 꼴이다. 경찰 간부들의 도덕성이 이렇게 형편없다는 건 충격적이다.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자에게는 쉽게 무릎을 꿇는 경찰’ 76), ‘재벌그룹 회장이 관련된 사건에서 경찰이 보이고 있는 철저한 감추기와 능장 대응’ 77)과 같이 극단적인 단어까지 사용하여 맹렬히 비판하였다. 반면에 조선일보의 경우 ‘경찰의 초기 수사태도도 석연치 않다.’ 78), ‘전직 경찰총수의 로비를 받은 수사가 제대로 될 리 없었다.’ 79)와 같이 절제된 단어를 사용하여 비판하여 그 강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담당 수사관(광역수사대)의 수사와 관련해서는 한겨레신문의 경우 ‘경찰 최고의 수사기관이 벌이는 수사치고는 지나치게 뒷말만 무성하다’ 80), ‘폭행 사건 조차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는 경찰의 무능력이 부각’ 81)과 같이 일관되게 비판적 태도를 견지하였다. 그러나 조선일보의 경우 ‘경찰은 김 회장의 혐의를 입증할 물증을 찾는 데 총력을 쏟고 있다.’ 82), ‘경찰은 이번 사건을 수사하면서 내부 인터넷 게시판에 “한국 경찰 역사상 처음으로 재벌총수를 구속하는 가슴 벅찬 순간을 맞을 것”

76) [사설] 경찰은 이 치욕을 어떻게 씻을 것인가, 한겨레/2007.07.14/31면/05판/사설

77) “한화회장 자녀가 가해자” 첩보 받고 수사관할 옮기며 한달 간 ‘내사’ 시늉만, 한겨레/2007.04.27/04면/06판/종합/뉴스

78) [사설] 폭력 피의자로 경찰에 출두한 재벌 회장, 조선일보/2007.04.30/여론·독자/A31면

79) “환화, 13억원 쓰며 전방위 로비” 경찰도 초기 현장조사 중단, 보고서 6건 조작 등 지연·축소, 조선일보/2007.12.21/사회/A13면

80) 강남 술집비리 수사 /실체는 없고 뒷말만, 한겨레/2007.12.31/12면/06판/사회/뉴스

81) ‘적극적 지휘권’ 강조 배경 /검찰 ‘어처구니 없는 수사’ 직접 손볼까, 한겨레/2007.05.03/08면/01판

82) 경찰청, 김승연 회장 재소환 시사, 조선일보/2007.05.04/사회/A8면

이라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⁸³⁾,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의 베테랑 형사들이 사건(3월 8일 발생)을 제보받아 2주에 걸쳐 내사(內査)한 보고를 ‘미확인 첩보’로 묵살, 사건을 축소’⁸⁴⁾와 같이 일선 수사관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수뇌부에 의하여 제대로 발현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보도를 내보냈다.

9. 경기 안양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 (소위 ‘혜진·예슬’ 사건)

보도기간 : 2008. 01. 01 ~ 2008. 12. 31

검색어 : 혜진 예슬 경찰

사건개요 | 2007년 12월 25일 경기도 안양시에서 이혜진(여성, 당시 10세, 초등학교 4학년)과 우예슬(여성, 당시 8세, 초등학교 2학년)이 동시에 납치되어 살해된 사건이다. 범인의 이름을 따 ‘정성현 사건’으로도 불린다. 해당 사건의 범인인 정성현((남성, 1969년 7월 14일생, 당시 38세)은 안양시의 한 자취방에서 은둔하며 지내다가 두 초등학생에게 접근하여 안양 시내를 구경시켜준다고 유인, 성폭행을 하고 살해 후 의왕~고색간 일반국도 인근 야산에 암매장하였다. 정성현은 2008년 3월 16일 오후 9시 25분쯤 충청남도 보령시에 살고 있는 어머니의 집에서 검거되었다. 정성현은 처음에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다가 두 아이를 교통사고로 숨지게 한 후 당황하여 시신을 유기하였다고 말을 바꾸었다. 그러나 교통사고 흔적이 발견되지 않음을 경찰이 추궁하자 결국 두 아이를 납치해 살해했다고 자백하였다.

83) 물러난 서울경찰청장의 눈물, 조선일보/2007.05.26/종합/A3면

84) 베테랑 수사관의 2주 내사 보고 경찰 수뇌부는 “황당하다” 무시, 조선일보/2007.05.02/사회/A8면

안양 초등생과 군포 부녀자 정덕순(44세) 등 총 3명을 토막 살해한 범인 정성현에게 2008년 6월 18일 수원지방법원은 사형을 선고하였다. 정성현은 이 날 판결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008년 10월 17일 서울고법도 정성현에게 사형을 선고하였다. 정성현은 역시 이 날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이듬해 2009년 2월 26일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 | 매우긍정 | 긍정 | 중립 | 부정 | 매우부정 | 총계 |
|-----|------|----|----|----|------|----|
| 한겨레 | 0 | 0 | 10 | 6 | 0 | 16 |
| 조선 | 0 | 1 | 15 | 3 | 0 | 19 |

기본적으로 한겨레신문 17건, 조선일보 19건이 분석대상이 되었다. 우선 해당 사건의 경우 경찰의 초동수사대응 논란이 있었으나 한 해 발생하는 8천여 건의 실종 사건 가운데 범죄와 관련된 경우는 10~30여건에 불과하다는 실종사건의 특수성이 있었다. 또한, 1회 수색 시 최대 1만2500여명의 경찰 동원, 연간 2만 5000명 투입, 휴대전화 1만 7천여 건 확보, 100명이 넘는 형사대, 조속한 앰버경고 발동 등을 고려했을 때 경찰의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이었다. 또한 수사 초반 비공개 수사의 문제점과 관련해서도 경찰의 공개수사 제안에 대해 해진·예슬양의 부모가 반대하여 비공개수사로 진행했던 것이었다. 이러한 결과 언론의 보도 역시 중립적 보도가 중심을 이루었으며, 구체적으로 한겨레신문이 3.29, 조선일보가 3.10의 보도태도를 보여 중립에 가깝되 한겨레신문이 조금 더 부정적인 태도를 견지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겨레신문의 경우 ‘경찰은 1만2500여명을 동원해 안양지역을 샅샅이 뒤졌다. 100명이 넘는 형사대는 4천여가구를 돌며 광범위한 탐문’⁸⁵⁾, ‘치안을 책임진 경찰은 제 구실을 하지 못했다.’⁸⁶⁾

로 보도하였다. 조선일보 역시 ‘숨진 혜진양의 집에서 불과 130m 떨어진 곳에 살고 있던 용의자를 코앞에 두고서도 80일 넘게 경찰 2만5000명과 수색견, 헬기까지 동원해 '헛다리' 수사를 벌였던 경찰’ 87), ‘경찰은 수사의 초보(初步) 교범에도 나와 있는 수사 힌트를 그냥 흘려버린 채 전경더러 삽과 꼬챙이로 야산을 파헤치게 하고 수색견과 헬기까지 동원하는 '보여주기' 수사나 하며 헤매고 다녔던 셈이다.’ 88)라고 보도한 것처럼 경찰의 수색 자체는 긍정적으로 보았으나 수색의 근거 및 대상에 대해서는 양 매체 모두 부정적으로 보도하였다.

또한, 경찰 수사상의 외적, 환경적 한계를 지적하여, 제도 및 시스템적 대응을 보도한 기사도 양 매체 모두에 존재하였다. (한겨레신문의 경우 ‘30여개의 폐쇄회로텔레비전 화면을 분석 중이지만, 대부분 저장기한이 5일에서 1개월에 불과해 이 역시 어려움에 빠져 있다.’ 89)로 보도하였다. 조선일보의 경우 ‘이번 초등생 살해사건도 경찰의 수사 부실도 문제지만, 위치정보의 접근 불가도 원활한 수사진행에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의견도 많다.’ 90)라고 보도한 바 있다.)

다만, 사건 이후 치안대책과 관련해 한겨레는 별다른 보도가 없거나 ‘부끄러운 ‘혜진·예슬이 대책’ 91)과 같이 부정적으로 보도하였다. 반면에 조선일보의 경우 ‘경찰은 바로 '초등학교 주변에 순찰차를 배치하

85) “이번주 개학인데...” 대답 없는 혜진·예슬이, 한겨레/2008.01.28/12면/06판/사회/뉴스

86) [사설] 굶디고운 10살 아이를 죽이는 ‘야만 사회’, 한겨레/2008.03.15/31면/06판/오피니언·인물/사설

87) [기자수첩] 대책없는 '아동·부녀자 실종 대책', 조선일보/2008.03.27/종합/A3면

88) [사설]'동네 범인' 잡는 데 82일 걸린 안양 초등생 실종사건, 조선일보/2008.03.18/여론/독자/A35면

89) ‘혜진양 피살사건’ 수사답보, 한겨레/2008.03.17/12면/01판

90) [독자칼럼] 위치정보법 개정 서두르자, 조선일보/2008.03.28/여론/독자/A37면

91) [편집국에서] 부끄러운 ‘혜진·예슬이 대책’, 한겨레/2008.04.07/30면/06판/오피니언·인물/칼럼,논단

고 어린이 안전구역을 지정해 CCTV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답장 (중략) 24시간이 채 안돼 양구경찰서는 2일부터 야간 자율학습을 마친 학생들을 위해 112 순찰차와 자율방범대 차량을 제공했다.' 92)와 같이 치안대책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조선일보가 좀 더 긍정적으로 보도하였다.

즉, 이 사건을 통해 본다면 경찰의 가시적이고 중대한 실책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양 매체의 전반적 보도태도가 중립으로 수렴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치안대책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여전히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10. 텔런트 고 장자연 성상납 의혹 사건 (소위 '장자연리스트 사건')

보도기간 : 2009. 01. 01 ~ 2009. 12. 31

검색어 : 장자연 경찰

사건개요 | 장자연(張自然, 1980년 1월 25일 ~ 2009년 3월 7일)은 대한민국의 모델 출신 배우로써 드라마 《꽃보다 남자》에 출연하던 중 2009년 3월 7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목을 매 숨진 채로 발견되었다. 자살 이후 전 매니저에 의해서 숨지기 직전에 쓴 자필문건이 추가로 공개되었으며, 이 문건에는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 서명 등이 적혀 있었고, 기획사로부터 술접대와 성상납 강요를 받는 등 폭행에 시달려왔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장자연 문건' 이라고 불리는 이 문건에는 언론사 대표, 방송사 PD, 기업체 대표 등의 실명이 적혀있었으며, 이로 인해 연예인 지망생들을 접대에 이용하는 기획사에 대한 인

92) 지자체 여론수렴 활발 “주민 목소리에 귀 열겠습니다.”, 조선일보/2008.04.04/강원/A14면

권 유린과 불법성에 대해 관심이 높아졌다. 특히 유서에 적혀진 유명인사들의 실명에 대한 의혹이 커졌다. 특히, 민주당 이종걸 의원에 의해 국회에서 유서에 언급된 조선일보의 유력 관련자 실명이 공개되자 조선일보에서는 즉각 반발하고 이를 공개한 KBS와 MBC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장자연의 자살 사건에 대해 연예인들에 대한 성상납과 술접대 강요등의 의혹과 이를 덮으려는 시도의 의혹 등이 제기되는 한편 의혹을 받는 유력인사 측에서는 정치적 의혹을 제기하는 등 점점 문제가 점점 커져갔다. 그러나 유력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후 경찰조사가 끝난 후 검찰로 넘어 갔지만 수사대상자 20명중 7명만 사법처리 대상이 되었으며 일본으로 도피하였다가 구속되었던 사건 핵심인물인 소속사 대표 김성훈은 보석으로 풀려났다. 한편 문건을 세상에 알린 유장호는 모욕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기각되었다.

| | 매우긍정 | 긍정 | 중립 | 부정 | 매우부정 | 총계 |
|-----|------|----|----|----|------|----|
| 한겨레 | 0 | 0 | 14 | 8 | 3 | 25 |
| 조선 | 0 | 0 | 12 | 7 | 1 | 20 |

기본적으로 한겨레신문 25건, 조선일보 20건이 분석대상이 되었다. 해당 사건의 경우 경찰이 언론 보도를 한 발짝 늦게 따라가며 '뒷북 수사'로 일관하는 모습이나 외압 등에 의하여 수사를 지지부진하게 이끈다는 등의 비판보도가 주를 이루었다. 구체적인 보도태도에서도 한겨레신문이 3.56, 조선일보가 3.45로써 중립기사를 제외하고는 비판적기사가 주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때, 상기와 달리 한겨레신문과 조선일보가 보도태도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흥미로운 사실은 비판의 내용과 양상이 극단적으로 차이를 보였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해당사건의 특수성 때문이었다. 당해 사건에서 소위 ‘장자연 리스트’ 내에 조선일보社 임원이 속해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이때 한겨레신문은 경찰의 부실한 수사로 언론사 임원 등 사회고위층의 범죄 혐의가 제대로 밝혀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반면에 조선일보는 경찰의 신속하지 못한 수사로 인해 관련 없는 제3자(조선일보社 임원)가 루머로 고통 받고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 특히, 조선일보의 경우 25개 기사 중 25개 모두 조선일보 임원의 결백함과 루머확산으로 인한 당사자의 피해를 언급하였고, 조선일보 사설에서 ‘특정 목적을 위해 조선일보 임원과 조선일보를 음해해온 세력들은 이런 경찰 발표 뒤에 마치 무슨 압력이라도 있는 것처럼 음해를 계속했다.’⁹³⁾, ‘한겨레신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조선일보 특정 임원에 대한 의혹이 해소돼가자 4월 1일 1면 머리기사에 '경찰이 유력 언론사 대표는 빼놓은 채 다른 사람만 처벌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며 아직 나오지도 않은 수사결과를 놓고 미리 의혹이 있다는 식으로 보도했다.’⁹⁴⁾와 같이 직접적이고, 원색적으로 상대 언론사를 비판함으로써 언론보도가 중립적이라기보다 언론사의 성향 및 이해관계에 의해 크게 좌지우지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더 살펴보면, 한겨레신문의 경우 ‘경찰의 수사는 시늉만 하다 만 듯하다. 변죽만 울리면서 대놓고 봐주려 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⁹⁵⁾, ‘경찰은 혐의를 받는 유력 인사들을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서 면죄부만 줬다.’⁹⁶⁾, ‘이는 경찰이 일부 경량급 인사만 처벌

93) [사설] 경찰, 이제 장자연씨를 죽음으로 몬 세력 밝혀낼 차례, 조선일보/2009.06.26/여론/독자/A35면

94) [사설] 조선일보의 명예를 훼손한 49일간의 비방 공격, 조선일보/2009.04.25/여론/독자/A27면

95) [사설]시늉만 한 경찰의 ‘장자연 사건’ 수사, 한겨레/2009.07.11/27면/06판/오피니언·인물/사설

96) [사설]시늉만 하다 면죄부에 그친 ‘장자연 수사’, 한겨레/2009.04.25/27면/07판/오피니언·인물/사설

하고, 중량급 인사한테는 ‘면죄부’를 줄 것이라는 경찰 안팎의 우려를 뒷받침한다.’ 97), ‘경찰이 장씨에게 성접대를 받았다는 유력 인사들을 감추기에 급급했으니, 경찰 수사가 제대로 됐을 리 없다.’ 98)와 같이 유력인사에 대한 미흡한 수사를 집중 비판했다. 반면에 조선일보의 경우 ‘경찰의 장자연 문건 수사가 실체에 대한 확실한 규명도 없이 일부 인사들에 심각한 명예훼손과 ‘인격 살인’이라는 상처만 남긴 채 일단락됐다.’ 99), ‘경찰이 시간을 끄는 사이 장씨는커녕 김씨와도 일면식이 없는 인사들이 ‘장자연 리스트’에 올라 막대한 피해와 타격을 입고 있다.’ 100), ‘안이한 수사와 일부 악의적인 네티즌 탓에 무고한 사람을 ‘힘없는 여배우를 괴롭힌 파렴치한’으로 모는 ‘아니면 말고’ 식의 루머’ 101), ‘경찰이 알 수 없는 이유로 미적거리고 있는 것이다. 그 바람에 루머의 타깃이 된 이들은 장기간 억울한 피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02), 루머의 무정부상태, 루머의 파상공격에서 우리 사회를 방어할 수 있는 것은 경찰의 신속하고 명쾌한 수사밖에 없다.’ 103)와 같이 루머의 확산 및 이로 인한 피해를 야기한 경찰의 수사를 집중 비판한 것이다.

이 외에 수사의 부실논란과 관련하여 한겨레신문의 경우 ‘경찰은 “김전 대표의 신병을 확보한 뒤 조사를 재개할 것”이라고 공언했으나, 추가 조사 없이 결론을 낸 것이다.’ 104), ‘경찰 수사가 24일 ‘용두사미’로

97) 장자연 사망 한달째/미적대는 경찰...피명드는 유족, 한겨레/2009.04.06/11면/07판/사회/뉴스

98) [사설] '장자연 리스트'에 있다는 유력 언론사 대표, 한겨레/2009.04.07/23면/07판/오피니언·인물

99) 루머로 인격살인 '확인 안된 리스트' 인터넷서 실명·얼굴까지 퍼져, 조선일보/2009.04.25/사회/A8면

100) [사설] 경찰, 무슨 이유로 '장자연 사건' 수사 질질 끄나, 조선일보/2009.04.11/여론/독자/A27면

101) '장자연 수사' 본질 놓치고 해매는 경찰, 조선일보/2009.04.10/사회/A10면

102) 경찰 '장자연 사건' 수사 하나 안하나, 조선일보/2009.03.27/사회/A10면

103) '장자연 리스트' 12명 경찰, 본격 조사 착수, 조선일보/2009.03.25/사회/A10면

104) 장자연 사건 최종결과 발표 '봐주기 수사' 논란, 한겨레/2009.07.11/10면/06판/사

사실상 막을 내렸다.’¹⁰⁵⁾와 같이 경찰의 수사의지 부족이나 경찰 자체적인 수사범위 제한을 지적하였다. 반면에 조선일보의 경우 ‘전화기 3대의 1년치 착·발신 통화내역 5만1161건을 모두 조사했다.’¹⁰⁶⁾, ‘경찰은 지난 25일 유씨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10시간 넘게 강도 높게 조사를 벌였지만, 일명 '장자연 문건'을 둘러싼 의혹을 속 시원히 밝혀주는 새로운 '팩트'를 내놓지는 못했다.’¹⁰⁷⁾, ‘경찰 수사를 가로막는 세력이 있다는 의혹이 커질 수밖에 없다.’¹⁰⁸⁾와 같이 수사노력 자체는 인정하거나 경찰 외부의 압력 부분을 지적하여 차이를 보였다.

11. 양천경찰서 피의자 가혹행위 사건

보도기간 : 2010. 01. 01 ~ 2010. 12. 31

검색어 : 양천경찰서

사건개요 | 2010년 6월 조현오 서울지방경찰청장 임기 당시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피의자 21명이 2009년 8월부터 2010년 3월까지 26차례에 걸쳐 날개꺾기 등 가혹 행위를 당한 사건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피의자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성모(40) 강력5팀장 등 경찰관 5명을 파면결정하고, 정은식 전 양천서장에게 정직 1개월, 당시 형사과장에게는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려줬다.

이에 대해 사건이 알려지게 된 초반에는 경찰의 민간인 가혹행위라는 부분

회/뉴스

105) ‘장자연 수사’ 진실 못밝혔다, 한겨레/2009.04.25/01면/07판/종합/뉴스

106) 누군가를 조선일보 임원인 것처럼 소개... 경찰, 제3인물 추적, 조선일보/2009.04.25/사회/A8 면

107) " 유장호씨 진술 모순 많아... 곧 재소환 조사 ", 조선일보/2009.03.28/사회/A12면

108) [사설]연에게 수사만 하면 무슨 외압이 그렇게 쏟아지는가, 조선일보/2009.04.17/여론/독자/A31면

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그러나 2010년 7월 채수창 총경(경찰대 1기)은 강북경찰서장으로 재직 중 기자회견을 자청해 조현오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무리한 실적주의가 피의자 가혹행위의 원인이 되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양천경찰서 고문 의혹 사건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해당사건은 ‘경찰 내 실적주의’, ‘경찰 초유의 항명사태’, ‘경찰대 및 비경찰대 갈등’ 등으로 초점이 이동하였다. 당시 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채수창 총경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렸으나 채수창 전 총경은 이에 행정소송을 내 승소하여 2012년 경찰 조직에 복귀하였다.

| | 매우긍정 | 긍정 | 중립 | 부정 | 매우부정 | 총계 |
|-----|------|----|----|----|------|----|
| 한겨레 | 0 | 0 | 11 | 5 | 5 | 21 |
| 조선 | 0 | 0 | 12 | 1 | 1 | 14 |

기본적으로 한겨레신문 21건, 조선일보 14건이 분석대상이 되었다. 해당 사건에서 언론의 경찰에 대한 보도태도의 경우 수사 중 가혹행위(고문)에 대한 보도라는 특성상 양 신문 모두 경찰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견지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였다. 그러나 그 구체적 비판 강도에 있어서는 한겨레신문이 3.71, 조선일보가 3.21로써 상당히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보도의 초점과 방식 역시 양 신문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부분은 헤드라인에서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었는데 조선일보 기사 중 「[사설] 고문은 나라의 수치다.」¹⁰⁹⁾는 헤드라인을 제외하고는 「인권위 “경찰, 피의자 고문” … 경찰 “사실무근”」¹¹⁰⁾, 「양천署 고문

109) [사설] 고문은 나라의 수치다, 조선일보/2010.06.22/여론/독자/A39면

110) 인권위 "경찰, 피의자 고문" … 경찰 "사실무근" 조선일보/2010.06.17/사회/A12면

피해자 “경찰이 고문사실 알리지 말라고 압력”」¹¹¹⁾과 같이 중립적 입장에서 피의자, 경찰의 양 입장을 압축전달하거나 혐의사실에 주목하였다. 반면에 한겨레신문의 경우 「정신 못차린 양천경찰서」¹¹²⁾, 「내우외환 경찰 어쩌다 이지경」¹¹³⁾, 「인권 잊은 경찰」¹¹⁴⁾ 등과 같이 다소 감정적이고, 추상적으로 경찰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나타내었다.

구체적인 보도 내용에 있어서도 경찰의 가혹행위 혐의 반박과 관련해 한겨레신문은 ‘경찰관들이 오 국장을 향해 ‘고문하는 것 봤냐’며 빈정댔다.’¹¹⁵⁾와 같이 반박 자체를 변명으로 일축하였다. 이에 반해 조선일보의 경우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의자들이 마약이나 절도 같은 전과(前科)가 많아 고문 주장의 신빙성을 의심하거나 경찰관들을 동정하는 시각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그 어떤 이유로도 고문이 합리화될 수는 없다.’¹¹⁶⁾와 같이 경찰의 입장과 반박여론 역시 소개하고 있다.

또한, 해당 사건의 책임 주체와 관련해 한겨레신문의 경우 ‘피의자를 끔찍하게 고문해서 세상을 발각 뒤집어놓았던 고문’¹¹⁷⁾과 같이 피의자에 대한 수사주체인 경찰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하지만 조선일보의 경우 ‘고문은 가장 야만적인 범죄행위다. (중략) 이런 의무조차 다하지 못하는 정부는 정부라고 부를 수도 없다.’¹¹⁸⁾와 같이 이를 전 정부적인 책임으로 연결시켰다.

마지막으로 경찰의 기본적인 수사태도와 관련해서도 한겨레신문의 경우

111) 양천署 고문피해자 " 경찰이 고문사실 알리지 말라고 압력 " 조선일보/2010.06.23/사회/A12면

112) 정신 못차린 양천경찰서, 한겨레/2010.07.15/09면/07판/사회/뉴스

113) 내우외환 경찰 어쩌다 이지경/기업식 성과주의/ '인권경시' 부추겨, 한겨레/2010.06.30/01면/07판/종합/뉴스

114) 부당구금·욕설·물세례...인권 잊은 경찰, 한겨레/2010.07.05/11면/03판

115) 정신 못차린 양천경찰서, 한겨레/2010.07.15/09면/07판/사회/뉴스

116) [조선테스크] 경찰 고문이 지은 죄, 조선일보/2010.06.26/여론·독자A26면

117) 경찰과 대학, 성과주의 함정, 한겨레/2010.07.05/15면/01판

118) [사설] 고문은 나라의 수치다, 조선일보/2010.06.22/여론·독자/A39면

‘경찰이 ‘성과’와 ‘엄격한 법집행’만을 강조했을 뿐, 이를 ‘인권’과 조화시키는 데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다.’¹¹⁹⁾, ‘, 경찰 조직이 인권이나 민주적 절차 따위를 아무렇지 않게 여기게 된 것은’¹²⁰⁾과 같이 경찰의 기본적 수사태도에서 인권의식 미비를 지적했다면, 조선일보의 경우 ‘피해자들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 열심히 뛰는 경찰도 많을 것이다. (중략) 경찰이 피해자를 위한다며 고문까지 하며 수사했지만 결국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피해를 안겨 주게 된 셈이다.’¹²¹⁾와 같이 피해자 인권 측면이라는 새로운 방향에서 접근한 모습도 나타났다.

12. 인화학교 장애인성폭행사건 (소위 ‘도가니 사건’)

보도기간 : 2011. 01. 01 ~ 2011. 12. 31

검색어 : 경찰, 인화학교

사건개요 | 2000년대 초 광주광역시의 청각 장애 특수학교 인화학교에서 교내의 간부, 교사들이 장애 학생 10여명을 성폭행한 사건이다. 이에 대해 인화학교 교직원 일부와 인권단체 등은 광주광역시 교육청과 교육부에 탄원서를 보내는 등 이를 알리려고 하였으나, 관계기관의 반응은 냉담하였다. 당시 인화학교 대책위원회는 2006년부터 2007년까지 242일간 천막 농성을 벌였지만 오히려 업무방해, 집단행동 등의 이유로 파면, 해임 등 대량 징계를 당하게 된다. 또한, 2005년부터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지만 가해자 일부에게 경한 처벌만 내려졌다.

119) 경찰 평가시스템 어떻게/살인 50점·절도 20점...검거실적 압박이 가혹수사 불가, 한겨레 2010.06.29/05면/07판/종합/뉴스

120) [사설] ‘인권경시 실적주의’가 경찰 일탈 불렀다, 한겨레/2010.06.30/39면/07판/오피니언·인물/사설

121) [조선데스크] 경찰 고문이 지은 죄, 조선일보/2010.06.26/여론·독자/A26면

그러나, 이 사건은 2009년 공지영 작가의 소설인 도가니의 모티브가 되었으며, 영화 도가니로도 제작되기도 하였다. 이후 이 사건은 다시 국민적 관심사가 됐고 이에 재수사가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인화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예산을 대폭 삭감함에 따라서 2012년 2월 29일 폐교되었다.

| | 매우긍정 | 긍정 | 중립 | 부정 | 매우부정 | 총계 |
|-----|------|----|----|----|------|----|
| 한겨레 | 0 | 1 | 12 | 4 | 2 | 19 |
| 조선 | 0 | 2 | 10 | 1 | 0 | 13 |

기본적으로 한겨레신문 19건, 조선일보 14건이 분석대상이 되었다. 해당 사건에서 언론의 경찰에 대한 보도태도의 경우 한겨레신문이 3.36, 조선일보가 2.85로써 매우 큰 차이를 나타내었고, 양 신문이 중립(3)을 기준으로 반대방향의 태도를 견지하고 있었다.

우선,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와 관련하여 한겨레신문의 경우 ‘빗발치는 여론에 경찰은 영화의 소재가 된 ‘광주 인화학교 사건’을 전면 재조사하기로 했다. 영화 <도가니>가 흥행돌풍을 일으키자, 경찰은 재수사를 발표하고’¹²²⁾, ‘성폭행 수사를 하는 경찰이 피해 여성에게 모욕을 주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¹²³⁾와 같이 수사 착수 자체에 대해 여론에 떠밀린 수사로 평가하고 있으며, 수사방식에 대해서도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반면에 조선일보의 경우 ‘2개월여 수사를 벌여 학교·법인 관계자 12명을 성폭력·비리·폭력 등 혐의로 불구속’¹²⁴⁾, ‘경찰 재수사 끝에 범행이 확인돼 다시 구속 기소’¹²⁵⁾, ‘상당소는 경찰에 알렸고 경

122) 논쟁/ ‘도가니’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한겨레/2011.10.01/22면/07판/오피니언·인물/칼럼,논단

123) 왜냐면/ 똑같은 사건이 미국에서 벌어졌다면, 한겨레/2011.10.11/29면/07판/오피니언·인물/칼럼,논단

124) 영화 '도가니'서 손발 묶고 성폭행 실제 인물 구속, 조선일보/2011.12.30/사회/A10면

125) '도가니' 가해자에 구형(7년)보다 센 징역 12년, 조선일보/2012.07.06/종합/A8면

찰은 곧바로 수사에 들어갔다.’¹²⁶⁾ 등 경찰의 기민함과 노력에 대하여 중립적 혹은 긍정적 평가가 주로 나타났다.

또한, 사건 이후 치안대책 등과 관련해 한겨레신문은 ‘촉구할 방침이라고만 밝힌 바 있다’¹²⁷⁾라고 소개하였다. 하지만 조선일보의 경우 ‘장애우와 아동을 성범죄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치안대책을 내놴. 일제 점검은 법률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으나, 복지시설이 요청하면 실시할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¹²⁸⁾와 같이 긍정적 수식어를 붙이거나 미진한 법체계와 부족한 권한 하에서 방안 마련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으로 소개하여 차이를 나타내었다.

흥미로운 사실은 경찰, 전문가 등의 의견을 인용하여 기사에 게재한 것으로써 기사 전체는 중립으로 코딩되었으나 인용 내용에 있어서 한겨레신문의 경우 ‘박찬동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이날 “당시 경찰 조사가 지지부진했는데, 학교법인 임원 가운데 경찰 퇴직자가 있어 후배(경찰)에게 압력을 넣은 게 아니냐.” 는 의혹을 제기하였다.’¹²⁹⁾라고 하여 경찰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인용하였다. 반면에 조선일보의 경우 ‘당시 사건을 조사했던 한 경찰관은 "'반사회적 범죄'라고 생각했는데, 선고 결과를 보고 (너무 가벼워) 놀랐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¹³⁰⁾와 같이 경찰에 대해 중립 혹은 긍정적인 견해를 인용하여, 인용견해의 선정에 있어서도 보도태도가 간접적으로 반영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상기분석은 양 신문의 전반적 보도태도로써 한겨레신문도 ‘수사에

126) 장애아 성폭행한 교사들… 실화 영화에 전국 '분노의 도가니', 조선일보/2011.09.27/종합/A2면

127) ‘도가니’ 인화학교 교사 특채 싸고 시끌, 조선일보/2011.10.11/14면/43판

128) [호남] 광주경찰청, 장애우 성범죄 예방책 마련, 조선일보/2011.10.05/호남/A16면

129) 영화 '도가니'과장 확산/ ‘도가니’ 추가 피해자 없나..., 한겨레/2011.09.30/05면/07판/종합/뉴스

130) '도가니'는 진행 중… 가해자 10명 중 5명 버젓이 학교에, 조선일보/2011.09.28/사회/A11면

곧바로 착수했다.’ 와 같이 긍정적으로 보도한 기사가 있었다. 조선일보도 ‘「도가니」 파문이 커지자 경찰은 뒤늦게 재수사에 착수했고’ 와 같이 비판적으로 보도한 기사가 있었다.

13. 수원 납치토막살인사건 (소위 ‘오원춘 사건’)

보도기간 : 2012. 01. 01 ~ 2012. 12. 01

검색어 : 경찰, 오원춘

사건개요 | 오원춘은 2012년 4월 1일 휴대 전화 부품 공장에서 일하고 퇴근하는 한국인 여성 회사원 박모양(1984년 ~ 2012년 4월 2일)을 집으로 납치하여 2012년 4월 2일 새벽 5시 경 박 양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 내던 중 경찰에 붙잡혔다. 살해당한 여성은 살해당하기 전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나, 경찰의 늦장 대응으로 피해자를 구조하지 못했다는 논란이 있었으며 이에 대해 경찰은 사과문을 발표하였다. 이 사건의 처음 보도 당시 당초 경찰은 살해당한 여성과 사건 접수를 한 경찰관과의 통화시간이 1분 20초라고 밝혔으나 2주일 간의 언론의 취재 결과 112신고센터 간 통화시간은 총 7분 36초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오원춘은 소방방재센터의 위치추적(GPS)도움을 받은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는데, 사건 이후 경찰에 대한 위치추적권부여와 관련한 법안이 통과되었다. 2012년 6월 15일 1심 법원인 수원지방법원은 오원춘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는 판결문에서 그가 인육이나 장기밀매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으며, 또한 시체의 일부를 타인에게 제공하려고 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오원춘은 법원의 판단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2012년 10월 18일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

(부장 김기정)는 범행 수법이 잔인해 죄질이 무겁지만, 인육 및 장기밀매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1심 판결의 명확한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사형 판결을 내린 1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 | 매우긍정 | 긍정 | 중립 | 부정 | 매우부정 | 총계 |
|-----|------|----|----|----|------|----|
| 한겨레 | 0 | 0 | 8 | 8 | 1 | 17 |
| 조선 | 0 | 2 | 10 | 7 | 3 | 22 |

기본적으로 한겨레신문 17건, 조선일보 22건이 분석대상이 되었다. 해당 사건에서 언론의 경찰에 대한 보도태도의 경우 한겨레신문이 3.58, 조선일보가 3.5로써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건의 경우 경찰 신고접수자의 미숙한 대응, 주위 동료 및 112 지령실의 안이한 대응, 출동 형사팀의 소극적 수색, 녹취록 공개거부 등으로 경찰에 대해 전반적으로 비판기조(태도)를 띄고 있는 것은 동일한 양상을 보였으나 보도취지와 보도방식은 양 매체 간에 확연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가령, 한겨레신문의 경우 오원춘 사건을 보도함에 있어서 누장대응을 했던 다른 사건들을 인용 및 결합하여 경찰의 다수 사건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도¹³¹⁾하고, 사건 이후 경찰의 정책에 대하여서도 부정적인 기조¹³²⁾를 일관되게 유지하였으며, 추측성 기사를 통해 경찰에 부정적 태도를 견지한 보도¹³³⁾도 존재하였다.

그러나 조선일보의 경우 경찰의 대응만을 문제 삼기보다 출입국관리당국 ‘체류외국인 거주지 관리(주소변경신고미비)’의 허술함¹³⁴⁾, 119와의

131) 「남편폭력 신고하자 경찰 “참아라”」, 한겨레/2012.06.26/12면/07판/사회/뉴스/

132) 경찰, ‘영장 없이 주거지 수색’ 추진, 위험한 경찰력 확장, 한겨레/2012.07.02/11면/07판/사회/뉴스

133) 경찰, 녹음파일 공개 계속 거부 ... 숨기는 것 더 있나, 한겨레/2012.04.14/09면/01판

공조시스템 미비¹³⁵⁾, 아동포르노에 대한 느슨한 법체계¹³⁶⁾¹³⁷⁾ 등 사회 전반의 시스템 문제를 지적한 기사가 다수 있었으며, 112장난전화 등 국민의 의식 문제¹³⁸⁾를 지적한 기사도 있었다. 또한, 사건에서의 경찰태도는 비판하더라도 사건 이후 경찰의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 태도를 견지한 기사¹³⁹⁾¹⁴⁰⁾가 다수 존재하였다.

제 2 절 가설의 검증 및 분석결과의 해석

1. 가설 I의 검증

가설1-1(H1-1) : 사건별로 언론의 경찰에 대한 보도태도는 부정적일 것이다.

가설1-2(H1-2) : 전체적으로 언론의 경찰에 대한 보도태도는 부정적일 것이다.

우선, 상기의 가설과 관련하여 아래의 <표>를 살펴보면 단적으로 각 사건별로 경찰에 대하여 ‘매우긍정’ 적으로 보도한 기사를 찾아볼 수 없으며, ‘긍정군’ (‘매우긍정’ 및 ‘긍정’)과 ‘부정군’ (‘매우부정’ 및 ‘부정’)을 비교해보았을 때 한겨레신문의 경우 ‘긍정군’ 이 3.4%,

134) 3명 권총 살해하고 한국 온 외국인 ... 주소파악만 2주 걸려, 조선일보/2012.11.17/A10면/사회

135) 美 911, 신고 즉시 반사적으로 경찰 출동 조선일보/2012.04.11/A11면/사회

136) 오원준 등 예외 없이 포르노광 ... 느슨한 법이 희대의 흉악범 키워, 조선일보/2012.09.07/A4면/종합

137) 아동음란물 탐닉에 대한 법적 처벌 강화 문제의 경우 한겨레신문 역시 지적하였다.

138) 112 장난전화 첫 배상판결 ... 시간외수당까지 물려, 조선일보/2012.10.20/A10면/사회

139) 112 지령실서 CCTV 실시간 확인한다, 조선일보/2012.04.24/A16면/경기

140) ‘성폭력 우범자엽’ 가동하니 ... 3일 걸리던 초동수사, 하루면 완료, 조선일보/2012.11.06/A12면/사회

‘부정균’ 39.9%로 나타났고, 조선일보의 경우 ‘긍정균’ 이 12.0%, ‘부정균’ 20.3%로 나타나 한겨레신문 및 조선일보 모두 후자의 비중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한겨레신문의 경우 후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겨레신문과 조선일보의 차이에 관해서는 [가설2]에서 논하는바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한다.

<표 17> 경찰주요사건별 · 매체별 전체 보도기사의 보도태도 분포

| 연도 | 한겨레신문 | | | | | 조선일보 | | | | |
|------|----------|-----------|-----------|-----------|-----------|----------|-----------|-----------|-----------|----------|
| | 매우 긍정 | 긍정 | 중립 | 부정 | 매우 부정 | 매우 긍정 | 긍정 | 중립 | 부정 | 매우 부정 |
| 2000 | 0 | 0 | 5 | 7 | 3 | 0 | 0 | 5 | 2 | 0 |
| | 0.0 % | 0.0 % | 33.3 % | 46.7 % | 20.0 % | 0.0 % | 0.0 % | 71.4 % | 28.6 % | 0.0 % |
| 2001 | 0 | 0 | 11 | 6 | 5 | 0 | 3 | 11 | 2 | 1 |
| | 0.0 % | 0.0 % | 50.0 % | 27.3 % | 22.7 % | 0.0 % | 17.6 % | 64.7 % | 11.8 % | 5.9 % |
| 2002 | 0 | 6 | 10 | 4 | 0 | 0 | 8 | 9 | 1 | 0 |
| | 0.0 % | 30.0 % | 50.0 % | 20.0 % | 0.0 % | 0.0 % | 44.4 % | 50.0 % | 5.6 % | 0.0 % |
| 2003 | 0 | 1 | 13 | 2 | 3 | 0 | 5 | 10 | 2 | 0 |
| | 0.0 % | 5.3 % | 68.4 % | 10.5 % | 15.8 % | 0.0 % | 29.4 % | 58.8 % | 11.8 % | 0.0 % |
| 2004 | 0 | 0 | 12 | 4 | 2 | 0 | 0 | 8 | 4 | 0 |
| | 0.0 % | 0.0 % | 66.7 % | 22.2 % | 11.1 % | 0.0 % | 0.0 % | 66.7 % | 33.3 % | 0.0 % |
| 2005 | 0 | 0 | 6 | 5 | 3 | 0 | 0 | 8 | 0 | 0 |
| | 0.0 % | 0.0 % | 42.9 % | 35.7 % | 21.4 % | 0.0 % | 0.0 % | 100 % | 0.0 % | 0.0 % |
| 2006 | 0 | 0 | 6 | 1 | 0 | 0 | 0 | 3 | 0 | 0 |
| | 0.0 % | 0.0 % | 85.7 % | 14.3 % | 0.0 % | 0.0 % | 0.0 % | 100 % | 0.0 % | 0.0 % |
| 2007 | 0 | 0 | 17 | 6 | 2 | 0 | 2 | 17 | 3 | 0 |
| | 0.0 % | 0.0 % | 68.0 % | 24.0 % | 8.0 % | 0.0 % | 9.1 % | 77.3 % | 13.6 % | 0.0 % |
| 2008 | 0 | 0 | 10 | 6 | 0 | 0 | 1 | 15 | 3 | 0 |
| | 0.0 % | 0.0 % | 62.5 % | 37.5 % | 0.0 % | 0.0 % | 5.3 % | 78.9 % | 15.8 % | 0.0 % |

| | | | | | | | | | | |
|------|----------|----------|-----------|-----------|-----------|----------|-----------|-----------|-----------|-----------|
| 2009 | 0 | 0 | 14 | 8 | 3 | 0 | 0 | 12 | 7 | 1 |
| | 0.0 % | 0.0 % | 56.0 % | 32.0 % | 12.0 % | 0.0 % | 0.0 % | 60.0 % | 35.0 % | 5.0 % |
| 2010 | 0 | 0 | 11 | 5 | 5 | 0 | 0 | 12 | 1 | 1 |
| | 0.0 % | 0.0 % | 52.4 % | 23.8 % | 23.8 % | 0.0 % | 0.0 % | 85.7 % | 7.1 % | 7.1 % |
| 2011 | 0 | 1 | 12 | 4 | 2 | 0 | 2 | 10 | 1 | 0 |
| | 0.0 % | 5.3 % | 63.2 % | 21.1 % | 10.5 % | 0.0 % | 15.4 % | 76.9 % | 7.7 % | 0.0 % |
| 2012 | 0 | 0 | 8 | 8 | 1 | 0 | 2 | 10 | 7 | 3 |
| | 0.0 % | 0.0 % | 47.1 % | 47.1 % | 5.9 % | 0.0 % | 9.1 % | 45.5 % | 31.8 % | 13.6 % |
| 합계 | 0 | 8 | 135 | 66 | 29 | 0 | 23 | 130 | 33 | 6 |
| | 0.0 % | 3.4 % | 56.7 % | 27.7 % | 12.2 % | 0.0 % | 12.0 % | 67.7 % | 17.2 % | 3.1 % |

또한, 상기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아래의 <표> 경찰주요사건별 종합적 보도태도 및 중립기사배제 보도태도 역시 살펴보면, 2002년 한·일 월드컵 경호경비를 제외하고는 사건별로 종합적 보도태도에 있어서 모두 중립(3)을 기준으로 비판적인 보도태도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도 보도태도가 3.32로 나타나 비판적인 보도태도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분석의 대상이 된 기사 중에서 중립적 보도태도를 보인 기사를 제외한 나머지 기사를 통하여 사건별 종합적 보도태도를 산정할 경우 비판적 태도의 정도가 더 심화됨을 알 수 있고, 전체적으로도 3.84의 보도태도를 보여 언론의 경찰에 대한 비판적 보도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이와 관련하여 사건 선정에 있어서의 편의성으로 인하여 결론의 객관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나 상기의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사건에서의 경찰의 고의·과실 및 책임의 정도와 무관하게 중립적 기사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각 사건에 있어서 중립적 보도태도로 보도하는 것이 가능하고, 언론이라면 이것이 상식으로 기능함

에도 불구하고 단어, 어휘, 문장, 전체적 구성, 인용, 인용의 배치 등을 사용하여 자신의 보도태도를 드러내고 있는바 언론 전반에서 경찰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인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에 무리가 없을 것이다.

<표 18> 경찰주요사건별 종합적 보도태도 및 중립기사 배제 보도태도

| 연도 | 사건명 | 종합적 보도태도 | 중립배제 보도태도 |
|------|--|-------------|--------------|
| 2000 | 롯데호텔 노동조합 파업·농성 및 진압 사건 | 3.68 | 4.25 |
| 2001 | 부평 대우자동차 노동조합원 폭력진압 사건 (소위 ‘대우차 사태’) | 3.44 | 4.00 |
| 2002 | 2002 한·일 월드컵 경호경비 | 2.76 | 2.53 |
| 2003 | 전북 부안군 위도 핵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사건 (소위 ‘부안 방폐장’ 사건) | 3.11 | 3.31 |
| 2004 | 부유층 노인 및 출장마사지 종사 여성 연쇄살인사건 (소위 ‘유영철’ 사건) | 3.40 | 4.20 |
| 2005 | 여의도 농민집회 전용철 사망사건 | 3.50 | 4.38 |
| 2006 | 서울 서남부 연쇄살인사건 (소위 ‘정남규’사건) | 3.10 | 4.00 |
| 2007 | 한화그룹 김승현회장 보복폭행사건 | 3.23 | 3.85 |
| 2008 | 경기 안양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 (소위 ‘혜진·예슬’ 사건) | 3.23 | 3.80 |
| 2009 | 텔런트 고 장자연 성상납 의혹 사건 (소위 ‘장자연리스트’ 사건) | 3.51 | 4.21 |
| 2010 | 양천경찰서 피의자 가혹행위사건 | 3.51 | 4.50 |
| 2011 | 인화학교 장애인성폭행사건 (소위 ‘도가니’ 사건) | 3.19 | 3.60 |
| 2012 | 수원 납치토막살인사건 (소위 ‘오원춘’ 사건) | 3.54 | 4.00 |

| | | | |
|----|--|------|------|
| 평균 | | 3.32 | 3.84 |
|----|--|------|------|

2. 가설 II의 검증

가설2(H2) : 보도매체의 이념적 지향에 따라 언론의 경찰에 대한 보도태도는 다를 것이다.

| |
|---|
| H2 ₁ : μ 조선(보수) \neq μ 한겨레(진보) |
| H2 ₂ : μ 조선(보수) = μ 한겨레(진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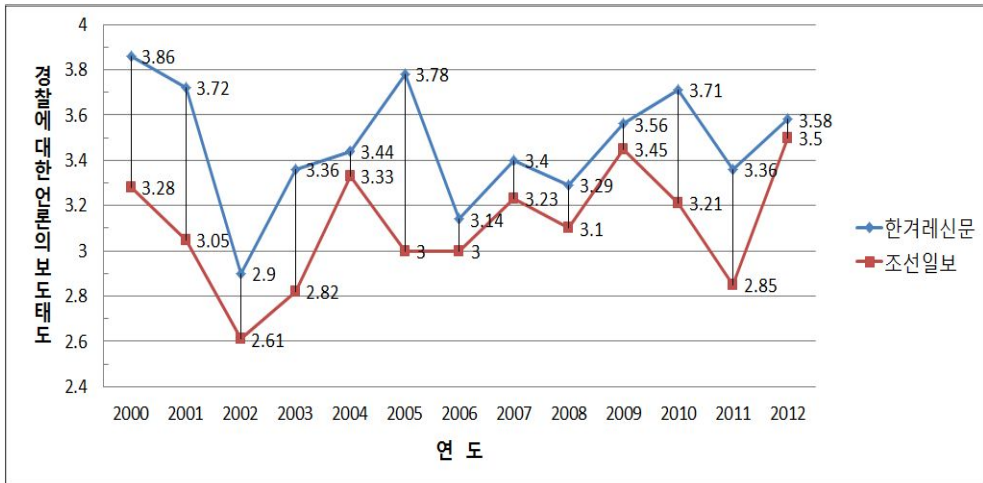
우선 경찰주요사건에 대한 매체별 보도태도를 살펴보면 아래 <그림>과 같이 단 한 건의 예외 없이 한겨레신문이 조선일보보다 모든 사건에 있어서 경찰주요사건에 대한 보도에 있어서 더 부정적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도 한겨레신문이 3.49, 조선일보가 3.11의 보도태도를 나타내어 0.37만큼의 보도태도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여의도 농민집회 전용철 사망사건에서 양 매체 간 차이가 0.78로서 보도태도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텔런트 고 장자연 성상납 의혹 사건 (소위 ‘장자연리스트’ 사건) 및 부유층 노인 및 출장마사지 종사 여성 연쇄살인사건 (소위 ‘유영철’ 사건)에서 양 매체 간 차이가 0.11로서 보도태도에서 가장 작은 차이를 나타내었다.

<표 19> 경찰주요사건별 · 보도매체별 보도태도 및 그 차이

| 연도 | 사건명 | 경과 | 한겨레 | 조선 | 차이 |
|------|---------------------------|----|------|------|------|
| 2000 | 롯데호텔 노동조합 파업 · 농성 및 진압 사건 | 경비 | 3.86 | 3.28 | 0.58 |

| | | | | | |
|------|--|----|------|------|------|
| 2001 | 부평 대우자동차 노동조합원 폭력 진압 사건 (소위 ‘대우차 사태’) | 경비 | 3.72 | 3.05 | 0.67 |
| 2002 | 2002 한·일 월드컵 경호경비 | 경비 | 2.90 | 2.61 | 0.29 |
| 2003 | 전북 부안군 위도 핵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사건 (소위 ‘부안 방폐장’ 사건) | 경비 | 3.36 | 2.82 | 0.54 |
| 2004 | 부유층 노인 및 출장마사지 종사 여성 연쇄살인사건 (소위 ‘유영철’ 사건) | 수사 | 3.44 | 3.33 | 0.11 |
| 2005 | 여의도 농민집회 전용철 사망사건 | 경비 | 3.78 | 3.00 | 0.78 |
| 2006 | 서울 서남부 연쇄살인사건 (소위 ‘정남규’ 사건) | 수사 | 3.14 | 3.00 | 0.14 |
| 2007 | 한화그룹 김승연회장 보복폭행사건 | 수사 | 3.40 | 3.23 | 0.17 |
| 2008 | 경기 안양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 (소위 ‘혜진·예슬’ 사건) | 수사 | 3.29 | 3.10 | 0.19 |
| 2009 | 텔런트 고 장자연 성상납 의혹 사건 (소위 ‘장자연리스트’ 사건) | 수사 | 3.56 | 3.45 | 0.11 |
| 2010 | 양천경찰서 피의자 가혹행위사건 | 수사 | 3.71 | 3.21 | 0.5 |
| 2011 | 인화학교 장애인성폭행사건 (소위 ‘도가니’ 사건) | 수사 | 3.36 | 2.85 | 0.51 |
| 2012 | 수원 납치토막살인사건 (소위 ‘오원춘’ 사건) | 수사 | 3.58 | 3.5 | 0.08 |
| 평균 | | | 3.49 | 3.11 | 0.3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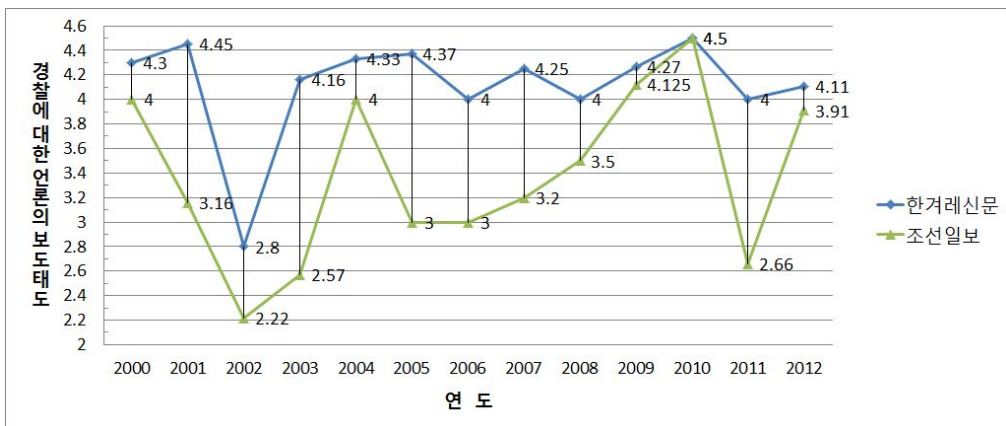
<그림 4> 매체별 경찰주요사건에 대한 언론의 보도태도 추이



다만 위 결과 내 데이터에는 중립적 보도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매체별 중립적 보도의 편차에 따라서 상기의 분석이 오류를 가질 수 있는바 중립적 보도태도를 보이는 기사를 제외하고 재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아래와 같이 나타났는데 경찰주요사건에 대한 매체별 보도태도를 살펴보면 여기서도 한겨레신문이 조선일보보다 모든 사건에 있어서 경찰주요사건에 대한 보도에 있어서 더 부정적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도 한겨레신문이 4.13, 조선일보가 3.35의 보도태도를 나타내어 0.77만큼의 보도태도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상기의 보도태도 차이보다 더 큰 것으로써 중립적 기사가 배제되어 ‘긍정군’ 및 ‘부정군’의 보도태도를 보이는 기사의 영향력이 강화된 까닭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여의도 농민집회 전용철 사망사건에서 양 매체 간 차이가 1.38로서 보도태도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양천경찰서 피의자가혹행위사건에서 양 매체 간 차이가 0.00으로써 보도태도가 같은 것으

로 나타났다. 위 분석과 차이를 나타내는 이유는 상기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전체 기사 중 중립적 기사의 비중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양천경찰서 피의자 가혹행위사건을 예로 들면 한겨레신문의 경우 중립적 보도의 비중이 52.4%, 조선일보의 경우 중립적 보도의 비중이 85.7%를 보이고 있어 중립적 보도를 포함하여 매체의 종합적 보도태도를 판단 시 조선일보의 종합적 보도태도가 중립적 방향으로 수렴하여 양 매체 간에 보도태도가 차이를 보였던 것이다.

<그림 5> 매체별 경찰주요사건에 대한 언론의 보도태도 추이
(중립기사배제)



<표 20> 경찰주요사건별 · 보도매체별 보도태도 및 그 차이
(중립기사배제)

| 연도 | 사건명 | 경과 | 한겨레 | 조선 | 차이 |
|------|---------------------------------------|----|------|------|------|
| 2000 | 롯데호텔 노동조합 파업 · 농성 및 진압 사건 | 경비 | 4.30 | 4.00 | 0.30 |
| 2001 | 부평 대우자동차 노동조합원 폭력 진압 사건 (소위 ‘대우차 사태’) | 경비 | 4.45 | 3.17 | 1.29 |
| 2002 | 2002 한 · 일 월드컵 경호경비 | 경비 | 2.80 | 2.22 | 0.58 |

| | | | | | |
|------|--|----|------|------|------|
| 2003 | 전북 부안군 위도 핵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사건 (소위 '부안 방폐장' 사건) | 경비 | 4.17 | 2.57 | 1.60 |
| 2004 | 부유층 노인 및 출장마사지 종사 여성 연쇄살인사건 (소위 '유영철' 사건) | 수사 | 4.33 | 4.00 | 0.33 |
| 2005 | 여의도 농민집회 전용철 사망사건 | 경비 | 4.38 | 3.00 | 1.38 |
| 2006 | 서울 서남부 연쇄살인사건 (소위 '정남규' 사건) | 수사 | 4.00 | 3.00 | 1.00 |
| 2007 | 한화그룹 김승현회장 보복폭행사건 | 수사 | 4.25 | 3.20 | 1.05 |
| 2008 | 경기 안양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 (소위 '혜진·예슬' 사건) | 수사 | 4.00 | 3.50 | 0.50 |
| 2009 | 탤런트 고 장자연 성상납 의혹 사건 (소위 '장자연리스트' 사건) | 수사 | 4.27 | 4.13 | 0.15 |
| 2010 | 양천경찰서 피의자 가혹행위사건 | 수사 | 4.50 | 4.50 | 0.00 |
| 2011 | 인화학교 장애인성폭행사건 (소위 '도가니' 사건) | 수사 | 4.00 | 2.67 | 1.33 |
| 2012 | 수원 납치토막살인사건 (소위 '오원춘' 사건) | 수사 | 4.11 | 3.92 | 0.19 |
| 평균 | | | 4.13 | 3.35 | 0.77 |

또한 해당 연구가설에 부가하여 제한적이지만 정권별로 양 신문의 보도 태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때 이 문제를 '제한적으로' 살펴볼 수밖에 없다고 밝히는 이유는 현재 연구기간 내의 경비 및 수사 사건의 선별·배치와 관련이 있다. 다만 이는 본 연구의 서두에서 자세히 밝힌바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한다. 박용규(2008)의 연구에 따르면 한겨레신문의 20년 동안의 사설을 분석해 정권에 따른 한겨레신문의 논조 변화를 밝혀낸 바가 있다. 주요 결론 중 하나로써 김대중 정부

시기(39.0%)에 노무현 정권(17.5%)에 비해 정부와 갈등을 겪고 있는 주체와 정부를 동시에 비판하는 양시양비론이 많았다고 밝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양시양비론에 대하여 중립으로 코딩한바 김효진(2008)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생각해보았을 때 노무현 정권시기보다 김대중 정권시기에 중립적 기사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이와 정반대였다. 한겨레신문의 주요 경찰사건에 대한 중립적 보도의 비중을 살펴보면 김대중 정권 2000년에서 2002년까지 각각 33.3%, 50.0%, 50.0%로 나타나고 있으나 노무현 정권 2003년에서 2008년까지 각각 68.4%, 66.7%, 42.9%, 85.7%, 68.0%로 나타나서 2005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노무현 정권시기에 오히려 김대중 정권시기보다 중립적 보도의 비중이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김효진(2008)의 연구결과가 경찰주요사건에 대한 보도에 있어서는 적용되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의 정권별 보도태도 차이에 집중하여 살펴보면 다소 흥미로운 점이 발견된다. 중립적 보도의 비중에 따라서 인하여 각 신문사의 보도태도에 왜곡이 생기므로 중립 기사를 배제한 데이터를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리커트(Likert)척도 상에서 보도태도 간 간격이 1점이므로 사건별로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 간에 1점 이상의 보도태도 차이가 난다면 양 매체 간에 보도태도가 크게 다르다고 가정한다. 본 연구에서 이렇게 보도태도 크게 차이가 난 해를 살펴보면 2001년, 2003년, 2005년, 2007년, 2011년으로써 정권별로 살펴보았을 때 노무현 정권에 많이 몰려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상기에서 밝힌 바와 같이 선별사건의 경과분포 차이로 인해 왜곡이 발생할 수 있는바 해석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3. 가설 Ⅲ의 검증

가설3(H3) : 경찰업무유형별(‘경찰경비’ 및 ‘경찰수사’)로 경찰주요사건에 대한 보도매체 간 보도태도 차이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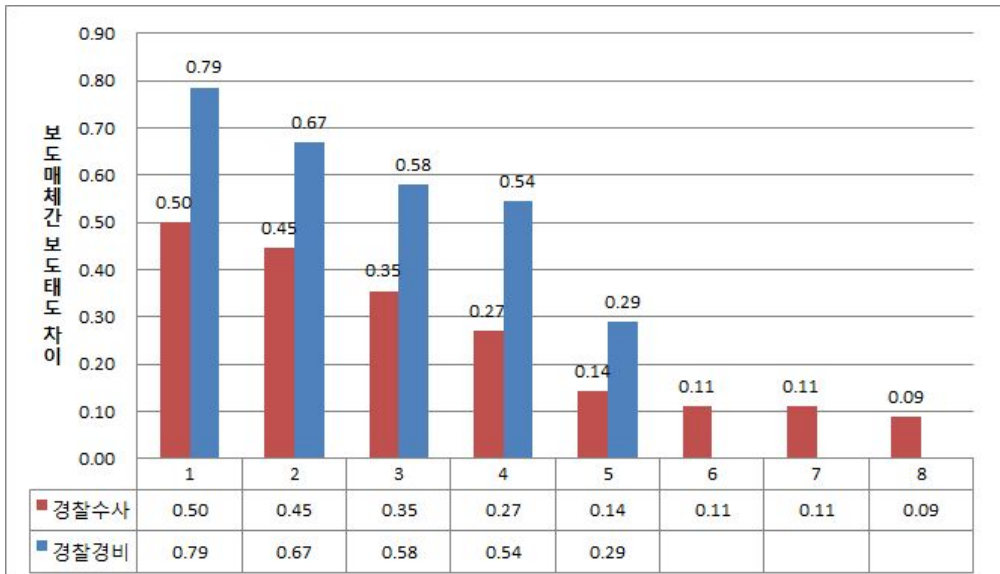
| |
|---|
| $H3_1 : \mu_{\text{경비}} \neq \mu_{\text{수사}}$ $H3_2 : \mu_{\text{경비}} = \mu_{\text{수사}}$ |
|---|

우선, 해당 가설을 검증하는데 있어서 각 연도별로 ‘경찰경비’ 및 ‘경찰수사’ 각 한 건씩을 선정하여 분석한 것이 아닌바 연도별로 양 자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가사 그렇게 상기에서 분석을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각 연도별로 ‘경찰경비’ 사건과 ‘경찰수사’ 사건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연도별로 양 자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자의 경우 현재 13개 사건 중 ‘경찰경비’ 사건이 5건, ‘경찰수사’ 사건이 8건인데 각각 보도매체간 보도태도 차이를 내림차순으로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이는 ‘경찰수사’ 및 ‘경찰경비’라는 경찰업무유형 각각의 보도매체간 보도태도의 차이의 순위가 반영될 수 있어 경찰업무유형간의 보도태도차이에 대한 적실한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래 <그림 6>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각 경찰업무유형별 각 순위에서 모두 ‘경찰경비’ 사건에서의 보도태도 차이가 ‘경찰수사’ 사건에서의 보도태도 차이보다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 경찰업무유형별 보도매체간 보도태도 차이



엄밀히 분석할 경우, ‘경찰수사’ 사건 중 보도태도 차이 순위 7, 8위와 ‘경찰경비’ 사건 중 보도태도 차이 순위 5위를 비교해야하는 것과 같이 각 경찰업무유형별 총 사건 수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나 이 경우 양 경찰업무유형 간 보도태도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날 것이기에 가설검증과 관련한 결론이 바뀔 수 없어 논의의 실익이 적다고 보인다.

제 5 장 결 론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경찰과 언론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으며 이러한 인식 하에 경찰청 대변인실의 신설과 경찰 자체의 언론 창구 마련을 위한 PBN 경찰 뉴스의 활성화, 경찰청 공식 블로그 ‘폴인러브(Pol in love)’ 등과 같은 노력을 펼치고 있으나 정작 기본적으로 언론이 경찰에 대하여 어떠한 보도태도를 나타내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파악과 관련한 연구가 미진하였고, 언론 내 각 매체(성향)별로 경찰에 대하여 어떠한 보도태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었다. 따라서 현재 경찰에 대한 언론의 보도태도, 보도매체 간 보도태도의 차이, 경찰업무유형별 보도태도의 차이 등을 알아보려는 문제의식에서 해당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리고 해당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 조사에서 밝혀진 매체별 영향력과 신뢰도를 기준으로 한겨레신문과 조선일보라는 두 매체를 선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경찰 전반에 대한 언론의 보도태도를 파악하는 것은 경찰업무의 광범위성과 경찰관련 보도의 홍수 속에서 현실적 한계가 존재하였다. 이에 200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1일까지 기간을 한정하고, 각 연도 내 경찰주요사건을 선정하여 해당 사건에 대한 매체의 보도태도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연구의 가설로써 1) 사건별로 혹은 전체적으로 언론의 경찰에 대한 보도태도는

부정적일 것이다. 2) 보도매체(성향)별로 언론의 경찰에 대한 보도태도는 다를 것이다. 3) 경찰업무유형별(‘경찰경비’ 및 ‘경찰수사’)로 경찰주요 사건에 대한 보도매체 간 보도태도 차이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설정하여 이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의 기본적 방법론은 내용분석 기법을 따랐으며, 내용분석의 신뢰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복수의 코더가 사전검사를 거쳤으며, 보도태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세부매뉴얼을 작성하였다.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하여 한겨레신문과 조선일보 기사를 추출하였는데, 이 때 자료수집의 방법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KINDS와 조선일보 DB를 사용하였고, 기사의 선정 및 배제 기준을 설정하여 연구 및 연구결과의 객관성을 제고시키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총 13개년도 13개 사건에 대하여 각 매체별 보도태도 등과 관련한 개별적 분석이 이루어졌다. 롯데호텔 노동조합 파업·농성 및 진압 사건과 관련해서는 경찰 진압 자체에 대한 폭력성, 롯데호텔 노동조합원 파업·농성에 대한 경찰의 호텔 내 진압의 적절성, 사건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대외적 이미지 및 신뢰도 변화 가능성에서 양 매체가 이견을 보였으나 정부 및 경찰의 공권력집행 상 형평성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

부평 대우자동차 노동조합원 폭력진압 사건(소위 ‘대우차 사태’)에서는 해당 폭력진압 사건의 원인, 해당 사건 당사자 외의 반응해석에서 양 매체가 이견을 보였다면 경찰의 진압 자체에 대해서는 양 매체 모두 폭력성을 인정하여 유사한 의견을 보였다.

2002 한·일 월드컵 경호경비 사건은 13개 사건 중 유일하게 양 매체 모두 긍정적인 보도태도를 보인 사건으로써 이러한 결과는 내집단 및 외집

단에 대한 프레임의 변화로 인해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이유로 경찰의 우수한 경호경비 시스템 및 노력에 대해서 양 매체 모두 긍정적으로 보도하였으나 경호경비를 이유로 한 국민의 기본권제한과 집회시위의 빈도 및 강도 상승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나타내었다.

전북 부안군 위도 핵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사건 (소위 ‘부안 방폐장’ 사건)의 경우 부안군수폭행 등 시위대의 폭력성 정도가 타 집회·시위보다 강하였고, 조선일보가 경찰 쪽 입장을 크게 지지함으로써 중립을 기준으로 양 매체의 보도태도가 갈라지게 되었다. 경찰에 대한 비판적 보도가 양 매체 모두 존재하였으나 그 비판의 근거와 양상이 달랐고, 시위 및 시위진압의 결과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도 양 매체가 차이를 드러내었다.

부유층 노인 및 출장마사지 종사 여성 연쇄살인사건(소위 ‘유영철’ 사건)의 경우 양 매체 간 언론의 보도태도가 크게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으나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를 드러내었다. 해당 연쇄살인 범죄의 원인 등에 대한 진단, 피의자 송치과정 중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의자에게 달려드는 상황에서 호송경찰이 피해자의 어머니를 발로 찬 사건에 대한 사실전달 등에서 양 매체가 차이를 나타내었다.

여의도 농민집회 전용철 사망사건의 경우 매체별 경찰에 대한 보도태도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내었다. 실제로 전용철 사망사건 수사 전반에 대한 평가 및 해석에 있어서 차이를 드러내었으며, 경찰청장의 사퇴 필요성, 경찰청장의 거취와 관련한 경찰 내부 반응 분석 등에 있어서도 차이를 나타내었다.

서울 서남부 연쇄살인사건 (소위 ‘정남규’ 사건)의 경우 분석대상의 기사 수가 매우 적어 보도태도와 관련해서는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에

무리가 있었다. 그러나 수원 납치토막살인사건(소위 '오원춘'사건)과 당해 사건을 비교함으로써 언론의 선정주의, 보도에 있어서 국민여론에 의한 보도의 편익(침묵의 나선이론) 등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

한화그룹 김승연회장 보복폭행사건은 초반 재벌회장의 보복폭행이라는 부분에서 경찰청장에 대한 로비의혹, 감싸기 수사, 늑장수사 등으로 보도 초점이 옮겨간 사건이었다. 해당 사건에서 경찰 수뇌부의 사건 은폐, 축소 의혹과 관련하여 양 매체가 비판의 강도 및 표현에 있어서 차이를 나타냈고, 담당 수사관의 수사결과 및 노력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도 차이를 나타내었다.

경기 안양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 (소위 ‘혜진·예슬’ 사건)은 다른 사건과 달리 경찰의 조속한 대응과 전폭적인 수사 인력 배치 등으로 양 매체 모두 상당히 중립적인 보도태도를 나타내었다. 양 매체 모두 경찰의 수색 자체와 수색의 근거 및 대상설정에 대하여 같은 보도태도를 나타내었고, 경찰 수사상의 외적·환경적 한계를 지적한 부분도 일치하였다. 그러나 사건 이후 치안대책과 관련해서는 양 매체의 보도태도가 차이를 나타내었다.

탤런트 고 장자연 성상납 의혹 사건 (소위 ‘장자연리스트’ 사건)의 경우 소위 '장자연 리스트'에 조선일보의 간부가 포함되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양 매체 간에 감정적 신경전이 일어났던 사건이다. 이를 통해 언론보도가 중립적이라기보다 언론사의 성향 및 이해관계에 의해 크게 좌지우지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양 매체 모두 경찰의 수사에 대하여 비판적 태도를 견지하였으나 그 근거는 극명하게 차이를 나타내었다.

양천경찰서 피의자 가혹행위사건의 경우 가혹행위사건이라는 특성상 양

매체의 부정적 보도태도가 예측되었으나 비판이 강도 및 표현에 있어서는 역시 차이를 나타내었다. 또한 경찰의 기본적인 수사태도 및 사건의 책임주체와 관련하여 양 매체가 차이를 드러내었다.

인화학교 장애인성폭행사건 (소위 ‘도가니’ 사건)의 경우 해당 사건의 경찰 재수사착수에 대한 해석, 사건 이후 치안대책, 경찰에 대한 외부 의견의 인용 선별 및 방식에 있어서 차이를 나타내었다.

수원 납치토막살인사건 (소위 ‘오원춘’ 사건)의 경우 경찰 신고접수자의 미숙한 대응, 주위 동료 및 112 지령실의 안이한 대응, 출동 형사팀의 소극적 수색, 녹취록 공개거부 등으로 경찰에 대한 비판적 기조는 동일하였으나 경찰 사건 전반의 능력대응 정도, 해당 사건의 책임귀속범위 등과 관련하여 양 매체가 차이를 드러내었다.

이러한 개별적사건분석 이후 상기에서 제시한 가설에 대하여 검증이 이루어졌다. 우선 첫 번째 가설과 관련하여서는 각 사건별로 '매우부정'으로 코딩된 기사들은 많았던 반면에 '매우긍정'적으로 코딩된 기사를 찾아볼 수 없었으며, '긍정균'과 '부정균' 비교 시에 전자보다 후자 비중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경찰주요사건별 종합적 보도태도에서도 이러한 결론은 뒷받침되었으며, 중립적 보도태도를 보이는 기사를 제외하더라도 결론이 지지되었다.

두 번째 가설의 경우 <그림 4> 매체별 경찰주요사건에 대한 언론의 보도태도 추이에서 나타나듯이 모든 사건에 있어서 한겨레신문이 조선일보보다 부정적 보도태도를 취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러한 결론은 중립적 보도태도를 보이는 기사를 제외하고 재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지지되었다.

세 번째 가설의 경우 '경찰경비'사건 5개와 '경찰수사'사건 8개를 각각 보

도매체간 보도태도 차이 순대로 정리하여 분석하였고, 그 결과 '경찰경비'사건에서의 보도태도 차이가 '경찰수사'사건에서의 보도태도 차이보다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경찰주요사건에 대한 보도매체 간 보도태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특정 기간과 언론매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기본적으로 내용분석 방법을 통해 분석결과를 도출하였고,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경찰에 대한 언론의 보도태도가 현재의 부정적 태도에서 긍정적 태도로 변화할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경찰업무가 국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할 때 그 성과를 적실하게 나타낼 수 있다는 점과 함께 경찰 내부 조직원 등의 사기 및 리더십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현재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여러 경찰 관련 사건에 있어서 경찰의 과실 및 책임이 크게 존재했던 사안도 있었지만 반대로, 적절하고, 기민하게 대응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부정적으로 보도하거나 향후 치안대책에 있어서도 근거 없이 비판하는 등의 보도태도가 나타나고 있었다. 이 경우 경찰의 노력과 관계없이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할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이를 위해 경찰 자체의 언론창구를 개설하거나 경찰의 노력을 언론에 홍보하는 것만으로는 한계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상기에서 나타났듯이 언론사의 경우 객관적인 보도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론을 고려하고 해당 신문사의 이해관계를 고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론만이 대상이 아닌 국민전반에서 경찰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하고, 신문사의 이해관계 문제를 고려하여 경찰청 기자실 문제 등에 대해 신중히 접근하고, 언론사들과의 주기적 간담회 및 포럼 등을 개설하여 양 자의 이해관계를 조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감정적이고, 공격적인 언론의 보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여의도 농민집회 전용철 사망사건 초반에 한겨레신문은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하여 감정적이고 공격적으로 대응하였으나 이에 대해 경찰청 차원에서 당시 시위상황을 채증한 자료를 경찰청 홈페이지에 업로드하고, 경찰의 입장과 진압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자 한겨레신문이 중립적 보도태도로 전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이처럼 경찰의 적극적 대처가 언론의 보도태도 자체를 바꿀 수도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경찰의 적극적 대응이 언론이 보도태도를 변화시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대응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경기 안양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소위 ‘혜진·예슬’ 사건)을 살펴보면 경찰의 조속한 대응과 기민한 수사체제, 전폭적인 수사지원 등으로 인하여 객관적인 시각에서 경찰의 문제점이 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겨레신문은 추측성보도와 더불어 근거 없는 비판을 통해 경찰에 대한 이미지를 훼손시켰는데 이에 대한 방관이 계속될 경우 그러한 보도태도의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텔런트 고 장자연 성상납 의혹 사건(소위 ‘장자연리스트’ 사건)에서 조선일보가 한겨레신문의 보도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했던 것과 같이 맹목적이고, 근거 없는 비판에 대해서는 경찰 역시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매체별, 경찰업무유형별로 차별적인 경찰 내 정책이 입안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령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의 비교했을 때 조선

일보의 경우 경찰의 명백한 과실 및 책임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중립적인 보도태도를 견지한 경우가 많았으나 한겨레신문은 이 경우 강하게 비판적인 보도를 내보냈는데 이렇게 경찰활동에 대한 보도태도가 차이가 있다면 이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도 경찰이 지닌 자원과 인력을 차등하게 배치해 정책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찰업무유형에 있어서도 경찰경비 사건의 경우 언론의 보도태도가 극명하게 드러나는바 채증을 강화하고, 전·의경 등의 사상 시 경찰병원 등으로부터 종합적인 진단서를 이첩 받는 부분 등에 더 많은 자원과 인력을 집중하고, 수사 사건에 있어서는 항상 비판적 보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초동수사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치안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제언

본 연구는 경찰주요사건에 대한 보도매체 간 보도태도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내용분석의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 분석 및 자료수집의 대상에 있어서 언론 중 신문매체에 한정하였고, 그 중에서도 한겨레신문과 조선일보 두 개의 신문만을 선정하여 방송, 인터넷매체 등의 경찰에 대한 보도태도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신문매체 있어서도 타 신문사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지 못해 연구 결론의 신뢰성 제고에 한계가 있었다고 보인다. 물론, 방송, 인터넷 매체 등을 배제한 당위적 이유가 있었으나 이는 차후 연구에서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여러 장치를 고안함으로써 충분히 문제해결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신문

선정의 협소함에 있어서는 현실적 문제가 가장 큰 이유로 작용하였지만 차후 연구에서 다수의 연구 인력과 시간이 확보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둘째, 경찰업무유형별로 언론의 보도태도가 어떻게 다른 지를 분석했던 세 번째 가설과 관련하여 수사 및 경비 이외에 감찰, 경무, 교통, 외사, 기획 등 타 경찰업무유형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못했던 것이 가장 아쉬운 부분으로 생각된다. 경찰업무의 광범위성으로 인해 이러한 전체 경찰업무유형을 모두 고려할 경우 분석대상 기사 수가 폭증하여 연구의 실현가능성이 매우 저하됨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나 기획, 경무 등 수사 및 경비 이외에 경찰에서 중요하게 담당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후속연구 연구가 진행된다면 좀 더 풍부한 결론 및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셋째, 연구의 방법론적 측면에서 내용분석을 사용함에 있어서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은 다하였으나 사전검사에서 코더 간 신뢰도가 90%를 넘기지 못하였고, 이러한 신뢰도 측정 역시 13건 중 1건에 대해서만 이루어져 그 사전조사의 대상이 적었던 것도 부인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보도태도를 판단하는 기준에 있어서 사전조사 및 지속적인 수정·보완을 통하여 주관성을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기하긴 하였으나 양적지표와 질적지표를 동시에 고려하는 과정에서 주관성이 개입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차후에는 양적지표 만을 근거로 보도태도를 판단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연구 역시 의미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다수의 연구 인력과 시간이 확보된다면 보도태도의 판단기준과 관련한 세부매뉴얼이 좀 더 정교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1. 국내 단행본

- 경찰대학 (1998), 『경찰학 개론』, 서울: 경찰대학교 교재편찬위원회
- 김광웅 (1996), 『방법론 강의』, 서울: 박영사
- 김경동·이온죽 (1995), 『사회조사 연구방법: 사회연구의 논리와 기법』, 서울: 박영사
- 김병섭 (2009), 『편견과 오류 줄이기 : 조사연구의 논리와 기법』, 서울: 법문사
- 김영석 (1994), 『언론학 원론』, 서울: 나남
- 김왕석·임동욱 외 (1992), 『한국언론의 정치경제학』, 서울: 아침
- 남궁근 (2010), 『행정조사방법론』, 서울: 법문사
- 박영상 (1998), 『센세이셔널리즘과 오보』, 서울: 삼성언론재단
- 이상안 (1995), 『신경찰행정학』, 서울: 대한문화사
- 이해영 (1999), 『사회과학 연구방법론』, 서울: 학현사
- 차배근 (1999), 『사회과학 연구방법론』, 서울: 세영사
- 최정호·강현두·오택섭 (1992), 『매스미디어와 사회』, 서울: 나남

2. 국내 논문

- 공양식 (2011), 경마의 부정적 인식에 대한 언론보도 변화분석, 서울대

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희 · 노기영 (2011), 한국 신문사의 이념과 북한 보도방식에 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Vol.55 No.1, pp. 361-387
- 김광웅 (1983), 정부의 적정규모에 관한 한 논의, 행정논총, Vol.21 No.1, pp 1093-1104
- 김도훈 (2007), 정부규모에 대한 언론의 보도성향 분석,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태 · 이창호 (2007), 공적 이슈에 대한 미디어 보도 분석 : 수돗물 관련 기사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Vol.39 No.-, pp. 40-68
- 김영식 · 유제설 (2011), 4P 모델 분석을 통한 경찰과 언론의 바람직한 관계 정립 방안, 한국컨텐츠학회논문지, Vol.11 No.1, pp. 340-349
- 김현주 (2012), 경찰조직에서 리더십유형과 부하의 집단주의 성향이 리더십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효진 (2008), 한겨레신문과 조선일보의 사설 비교 연구 : 20년간 사설의 의제와 프레임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나태준 (2003), 청계천 복원사업의 언론보도 내용분석,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Vol.13 No.2, pp. 147-167
- 나태준 (2005), 내용분석 방법론을 활용한 정책분석의 시도 : 청계천 복원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Vol.14 No.3, pp. 207-231

- 남궁구 (1997),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전략으로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6 No.1, pp. 361-395
- 남정한 (2011), 일선 경찰 공무원의 시민에 대한 신뢰의 영향요인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재우 (2000), 치안행정서비스와 경찰개혁의 과제, 한국경찰학회보, Vol.- No.2, pp. 319-344
- 박은혜 (2007), 위기상황의 언론보도 프레이밍과 위기 커뮤니케이션이 공중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윤경 (2011), 냉소 프레임이 정치 냉소주의와 선정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 미디어 리터러시의 조절효과 분석, 경희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은혜 · 김영옥 (2007), 언론 프레이밍과 이미지 회복 전략이 공중의 위기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정보학보, Vol.38 No.-, pp. 73-118
- 박허식 (1986), 신문의 선정주의와 사회변동 변인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신문학과 박사학위논문
- 배현석 (2002), 지역 TV 뉴스의 다양성에 관한 연구 : 대구 지역 공중과 TV 뉴스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Vol.46 No.4, pp. 141-176
- 백선기 (1997), 제15대 총선 보도시의 가십기사 유형과 심층구조 :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 Vol.- No.41, pp. 41-107
- 송용희 (2005), 미디어, 프레임, 현실구성 : 미디어프레임 연구의 과제

와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소고, 한국언론학보, Vol. -
No.13, pp. 125~157

송용희 (2007), 언론의 현실해석과 객관화 담론전략 : 조선일보와 한겨
레의 2004년 국가보안법 개폐논쟁 관련 해설 기사를 중
심으로, 한국언론학보, Vol.51 No.1, pp. 229-251

송종길 (2004), 2002년 대통령후보 텔레비전 토론에서 나타난 수사학
적 토론전략 연구 : 후보자의 설득적 공격과 방어전략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Vol.48 No.2, pp.
108-137

유용민 · 김성해 (2007), 노동운동의 담론적 위기 : 신자유주의담론과 미
디어 노동담론의 역사적 접합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
보, Vol.51 No.4, pp. 226-251

유정선 (2009), 김대중 대통령 서거에 관한 언론보도의 뉴스 프레임 분
석 - 조선일보 · 중앙일보 · 한겨레신문을 중심으로, 강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건혁 (2002), 미디어 프레임이 부정 감정, 정치 냉소, 그리고 정치 효
능성에 미치는 영향 :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한국언
론학보, Vol.46 No.3, pp. 252-288

이명구 (2009), 경찰의 질서유지 행정의 집행과정 분석 : 일선경찰관의
집회 · 시위 관리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이상호 (2005), 내용분석법을 적용한 행정학 연구 논문의 비판적 검토
,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 No.-, pp.
29-43

- 이세화 (2005), 한국 대통령 연설문의 변화와 정책적 반영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진빈 (2002),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언론의 군사문제 관련 보도성향의 변화에 관한 연구 : 조선일보, 한겨레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한아 (2009), 경찰의 시민반응성에 미치는 영향 요인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남식 (2004), 한국 신문의 공격적 기사 프레임 분석 ; 김영삼 · 김대중 · 노무현 정부와 언론의 갈등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나리 (2007), 국내 언론의 환경 이슈 보도 행태 분석 - 청계천 복원 사업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미소 (2008), 한미관계에 대한 언론의 프레임 분석 : 노무현 정권 시기의 신문 사설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재철 (2001), 언론개혁에 관련된 담론 분석 :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Vol.17 No.1, pp. 112-144
- 정정화 (2006), 환경정책과정에서 NGO의 미디어전략과 언론보도 내용 분석 : 새만금간척사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Vol. 18 No.4, pp. 1081-1101
- 한동섭 · 유승현 (2008), 언론 보도에서 나타난 익명 정보원에 관한 연구: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란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Vol.8 No.4, pp. 702-739

- 한석봉 (2006), ‘황우석 교수 사태’ 관련 한국 언론의 뉴스 프레임에
관한 연구 ; 매체 간 · 매체 내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진 (2009), 중국 신문의 남북한 관련보도 내용분석, 한국지역발전학
회, Vol.9 No.1, pp. 189-211

4. 외국 단행본

- Berelson, B. (1952), 『Content analysis in communication
research』, NY: Hafner
- Emery, E. & Emery. M. (2000), 『The Press and America : an
interpretive history of the mass media』, NY: Bacon
- Gitlin, T. (1980), 『The whole world is watching』, 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Howard, H. E. (1987), 『Police Community Relation』, Illinois:
Charles C. Thomas Publisher
- Holsti, O. R.(1969), 『Contents Analysis for the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MA: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 Kerlinger, F. N. (1986), 『Foundation for behavioral research
(3rd ed)』, NY: holt, Rinehart
- McCombs, M. E. (2004). 『Setting the Agenda : The mass media
and public agenda』, MA: Blackwell
- McLuhan, M. (1964), 『Understanding Media : The Extensions of

- Man』, Boston: Beacon Press, 김성기 · 이한우 역
(2002), 『미디어의 이해』, 서울: 민음사
- Pool, S. (1973), 『The Handbook of Communication』, Chicago:
Rand Mc Nally College Publishing Company
- Thibault, E. A. & Lawrence M. L. & McBride, B. R. (2011),
『Proactive Police Management,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 Hall
- Tuchman, G. (1978), 『Making News : A study in the construction
of reality』, New York: FreePress, 박홍수 역
(1995), 『메이킹 뉴스 : 현대사회와 현실의 재구성』, 서울: 나남
- Walizer, M. H. & P. L. Wienir. (1978). 『Research method and
analysis : Searching for relationships』, NY: Harper & Row
- Weber, R. P.(1985), 『Basic Contents Analysis』, Beverly Hills:
Sage Publications

5. 외국 논문

- Entman, R. M. (1991), Framing U.S. coverage of international news:
Contrasts in narratives of KAL and Iran Air incidents,
Journal of communication, Vol.41 No.-, pp. 6-27
- Fiske, L. (2006), Politics of exclusion, practice of inclusion:
Australia's response to refugees and the case for

- community based human rights work,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rights, Vol.10 No.3, pp. 219–229
- Gamson, W. A. (1992), Constructing Social Protest, Social movements protest and contention, Vol.4 No.—, pp. 85–106
- Kassarjian, H. (1977), Contents Analysis in Consumer Research, Th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Vol. 4 No.1, pp. 8–18
- Motts, J. L. (1969), Multiplication rings containing only finitely many minimal prime ideals, Journal of science of the Hiroshima University Mathematics, physics, chemistry, Vol.33 No.1, pp. 73–83
- Noelle–Neumann, E. (1974), The spiral of silence : A theory of public opinion, Journal of Communication, Vol.24 No.—, pp. 43–51
- Scheufele, D. A. (1999), Framing as a Theory of Media Effects, Journal of communication, Vol.49 No.1, pp. 103–122

Abstract

Analysis the difference of the media
report attitudes regarding police security
and investigation case

: from conservative and progressive newspaper

Kim, Dong-ju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Police has a mission to provide public security and order, protect the life of the people, the physical and the property as well. Those police service are not only for general action for citizen but also interaction between police and citizen especially, it

influences politics, the media and culture too. Moreover, regarding the media they don't explain nature social status, they reconstructed the status and exercise independent influence. Recently the media is getting strengthen of social influence and it influence to awareness of public institution and to build up reliability.

From this research, I would like to make sure how the press report's attitude show of police's main stories. basically I analyzed based on: firstly case of the media, it is not limited in a fact objective convey I guess the media report's aspect will be shown differently by news tendency, reporting attitudes and etc as main agent to form of frame so, analysis real condition of the media report about police. Secondly analyzed how each agents have difference view, i aspect different understanding and expressions based on identical matter by every media agents, the media tendency. Lastly I analyzed how the media agents make difference report attitudes depending on the type of police's duty.

This reseach's analysis about the media report's time unit is from 2000, Jan 1 to 2012, Dec 1 and selected every year's major total 13 cases regarding police security and police investigation.

The research method that I used is content analysis to analyze the media report attitudes. For sampling I chioce "Cho-seon and Han-kye-le newspaper " and used Korea Press Foundation's an article DB-KINDS(KINDS : www.kinds.or.kr)

from Han-kye-le an opinions, a person, politics, explanation, total contents, regions, economy, the media, culture, social, life, woman, speail event and report genre is included all genre from Cho-seon. The reason that I selected these two media is to see the difference between conservative and progressive.

The result of analysis, Cho-seon and Han-kye-le have difference on individual case. Basically Han-key-le was more negative than Cho-seon regarding “ Police” based on all cases without any exception. Concretely they have difference regarding security case; Korea pro-anti image and possibility of change reliability police suppression’ s violence and cause, assembly and demonstration’ s people legitimacy and etc. To take a broad view, Cho-seon and Han-kye-le have different view point when values is crash about assembly, demonstration and freedom of association and to keep public security and order. About investigation case, two media have different view: crime victim, bereaved family protection, police members and departs’ s possibility of concealment, police investigation’ s ability and police investigation’ s ethicality.

After individual case’ s analysis, I analyzed widely regarding same issues. First of all I couldn't find any very affirmation articles about police’ s news from both media. Also, to compare positive(very positive and positive) and negative(very negative and negative) Han-kye-le’ s positive is 3.4% and negative is

39.9% and Cho-seon' s positive is 12.0% and negative is 20.3% so, both media have bigger importance to the latter. Thru this result, current media have negative report attitudes for police' s articles.

Regarding second research matter, Han-kye-le has more negative attitudes than Cho-seon about all case. overall, Han-kye-le report attitudes is 3.49% and Cho-seon report attitudes is 3.11% the difference between media is 0.37%. More in detail, biggest report attitudes gab is 0.78 from famer assembly Jeon Youngchul' s death case and smallest gab is 0.11 from TV star Jang Jayeon' s sex scandal case(so-called Jang Jayeon case), noble senior and massager' s consecutive murder incidents(so-called Yoo Youngchul case).

Lastly I analyzed report attitudes different from each media regarding "5 case of Police security and 8 Police investigation" and result of that matter: "Police security" has big difference than "Police investigation" .

